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문 옥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유치원에서의 부모코칭
적용과정탐색

2013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민 선 옥

유치원에서의 부모코칭
적용과정탐색

이 문 옥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민 선 옥

인 준 서

민선옥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여 유치원에서 부모의 역할을 돕는 부모코칭의 적용방안은 무엇이고 부모코칭의 적용에 따른 부모들의 변화양상은 어떠한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유치원에서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코칭의 적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유치원에서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코칭의 적용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유치원에서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코칭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부모들의 변화는 어떠한가?

본 연구는 연구자가 유치원에서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코칭을 어떤 과정으로 적용하는지, 또한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부모들의 변화는 어떠한지를 파악하고자 이루어졌다.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연구자와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을 나누고 이 과정에서 부모들이 자신의 양육방법을 반성하고 체계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의 행동과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면접할 수 있는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연구자의 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로 만 3세 유아의 부모 4명, 만 4세의 부모 4명, 만 5세의 부모 4명으로 아버지 6명, 어머니 6명 총 12명이다. 본 연구는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약 12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유치원에서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코칭의 적용과정을 탐색하는 연

구로 연구준비단계, 연구실행단계, 연구평가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연구준비단계 기간은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이며 이 기간에는 연구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 분석,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코칭의 구성 및 연구 절차를 수립하였다. 연구실행단계 기간은 2012년 5월부터 7월까지 진행 되었으며 그 기간에는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코칭의 구성과 6회의 부모코칭이 진행되었다. 연구평가단계 기간은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그 기간에는 부모코칭의 적용과 적용 과정에서 부모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연구기간 동안 수집된 부모코칭을 위한 조사지, 현장노트, 참여관찰, 심층면담, 사진 및 동영상, 연구참여자의 저널, 평가지 등으로 이루어졌고 수집된 자료의 내용을 통합하고 분류, 조직, 범주화 하는 과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과정을 토대로 유치원에서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코칭의 과정과 부모들의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일상생활에서 부모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부모역할을 돕는 방안으로 부모코칭을 적용하였다. 부모들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양육태도가 부적절한 점, 부부간의 양육태도가 일치하지 않은 점,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 자녀의 문제 행동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태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부모코칭은 부모들의 역할을 돕고자 마음열기, 자녀와의 소통 코칭, 훈육을 위한 코칭 I, 훈육을 위한 코칭 II, 유아기 자녀를 위한 코칭, 지혜로운 부모 되기 코칭으로 실행하였다.

둘째,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코칭 적용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부부를 자녀 양육의 협력자로 인식하는 자세가 형성되었고 자녀와의 의사소통 기술이 향상되었으며, 유치원을 자녀 양육의 동반자적기관으로 인식하는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부부간에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면 부모코칭의 초기에는 부모들이 서로 다른 양육태도로 인해 문제 행동에 대한 지도가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잦은 문제행동의 원인을 부모들이 서로 배우자의 탓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부모코칭에 참여하면서 부모가 자녀 양육을 함께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대화로 점차 일치된 양육태도를 가지게 되면서 서로를 양육의 협력자로 인식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코칭에서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부모들이 자녀의 문제 행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자녀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부모코칭을 통해 자녀와 대화하는 방법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의사소통방법과 자녀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법을 실천하면서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지는 변화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치원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면 부모코칭은 유치원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부모들의 어려움에 대한 실제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기회를 갖도록 했다. 이러한 유치원의 지원이 부모로 하여금 유치원을 부모의 어려움을 돕는 기관으로 인식하게 하였으며 부모는 자녀와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유치원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여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유치원에 소속된 학부모는 물론 유치원 주변에 유아기 자녀를 둔 이웃까지 자녀와의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요청 해오기도 하였다. 또한 부모코칭에 참여한 부모들은 자연스럽게 교류하면서 자녀를 위한 부모의 재능을 나누는 홈스쿨을 운영하기도 하는 등의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들이 유치원의 지원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유치원을 단순히 자녀를 교육하는 기관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부모와 함께 자녀를 교육하는 동반자로 인식하는 변화를 보여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7
3. 연구자 배경	8
II. 이론적 배경	12
1. 부모역할	12
1) 부모역할의 개념과 중요성	12
2) 부모역할의 유형	14
2. 부모 교육	16
1) 부모교육의 개념	16
2) 부모교육의 필요성	19
3) 부모교육의 유형	23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유형	26
5) 부모코칭	30
3. 선행연구	45
III. 연구 방법	48
1. 연구 참여자	48

1) S유치원	48
2) S유치원 학부모	49
3) 연구자	58
2. 연구절차	59
1) 연구준비 단계	61
2) 연구실행 단계	66
3) 연구평가 단계	71
3. 자료수집	72
1) 부모코칭을 위한 조사지	72
2) 현장노트	73
3) 참여 관찰	73
4) 심층면담	73
5) 사진 및 동영상 촬영	75
6) 저널	75
7) 부모코칭 평가	76
4 자료 분석	77
5. 자료의 신뢰성 확보 및 윤리적 고려	78
IV. 결과 및 해석	81
1. 유치원에서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코칭 적용과정	81
1) 마음열기	82
2) 부모-자녀 의사소통코칭	89
3) 훈육을 위한 코칭 I	94
4) 훈육을 위한 코칭 II	101

5) 유아기 자녀를 위한 코칭	106
6) 지혜로운 부모되기 실천코칭	117
2. 부모코칭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부모의 변화	124
1) 부모간의 협력자적 자세 형성	125
2) 자녀와의 의사소통기술 향상	131
3) 유치원을 자녀 양육의 동반기관으로 인식하는 자세 형성	137
V. 논의 및 결론	141
1. 논의	141
2. 결론	147
3. 제언	150

참 고 문 헌

부 록

ABSTRACT

표 목 차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50
<표 2> 연구 일정 및 실행 절차	60
<표 3> 부모코칭의 필요성	61
<표 4> 부모코칭이 필요한 이유	62
<표 5> 유아기 자녀에게 궁금한 점	63
<표 6> 유아기 자녀에 대한 궁금증 해소방법	64
<표 7> 자녀 교육에 대한 가정과 유치원의 관계성에 대한 인식	64
<표 8> 부모코칭 활동 희망 요일	65
<표 9> 부모코칭 활동 희망시간	66
<표 10> 부모코칭의 내용	69
<표 11> 심층면담의 방법 및 내용	74
<표 12> 수집한 자료	76
<표 13> 부모코칭의 적용	81
<표 14> 만 3세 A아버지의 실천사례 적극적인 의사소통 5단계	103
<표 15> 만 3세 B아버지의 실천사례 적극적인 의사소통 5단계	105
<표 16> 자녀에게 선택권 주기	107
<표 17> 자녀가 좋아하는 부모의 모습	110
<표 18>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	111
<표 19> 좋은 부모의 조건	112

그림 목 차

<그림 1> 부모코칭 단계	34
<그림 2>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코칭의 적용과정 방안	67
<그림 3> 연구 참여자 자녀들의 합창	118
<그림 4> 연구 참여자가 작성한 「행복한 부모 실천 서약서」	121
<그림 5> 행복한 부모 실천 서약서 낭독	121
<그림 6> 가족사랑 티셔츠 만들기	122
<그림 7> 축하 파르페 만들기	122
<그림 8> 연구 참여자의 기타 연주	123
<그림 9> 연구 참여자 가족들과의 기념촬영	123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태어나면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발달을 시작하는 첫 생활환경이 가정이며 가정의 여러 환경적 요인 중에서도 최초의 인적환경인 부모는 자녀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모는 자녀가 처음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이고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자녀의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적절한 영양공급과 함께 자녀의 건강한 신체발육을 돕는다. 또한 정서적으로 안정된 애착형성은 자녀의 기본적인 신뢰감을 형성하고 부모가 전달하는 문화와 가치를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돕는다. 자녀는 부모와 따뜻한 관계 속에서 올바른 친구관계, 사회와의 관계를 배움으로써 사회적 지식, 기술, 태도를 형성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회에 유능한 인재로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부모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며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적응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정서적으로 성숙한 행동을 학습하는데 의도적, 무의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모들이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의 특성과 요구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야하며 이들의 욕구와 능력을 적절하게 교육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부모가 다양한 상황에서 자녀와 총체적인 관계를 맺고 이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모교육은 인류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초기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이어져 왔다(이경화, 김연진, 배지현, 2010).

부모교육은 자녀의 양육과 교육활동에 관여하고 또한 참여하고 있는 부모들이 그들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의 교육적 자질과 소양을 높이기 위해 제공되는 교육이다(김오남, 1999).

Hamner와 Turner(1985)는 부모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아동기 초기에 효과적인 부모역할이 자녀의 전인적 발달에 매우 중요한데 어려운 부모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보급되면서 부모교육은 유아교육기관에서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의 일부가 되었다. 부모교육은 프로그램의 종류도 효과적인 부모교육프로그램(Parent Effective Training: PET), 체계적인 부모교육프로그램(Systematic Training for Effective Parenting: APT),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 프로그램(Active Parenting Training: ATP)에서 좀 더 다양화되어 최근에는 부모코칭프로그램(Popkin, 2007)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방법과 부모, 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한 부모참여방법(김금주, 유윤영, 2005), 부모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으로서의 부모교육방법(김희진, 2005)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부모교육의 방법적 변화는 현대 사회의 변화에 따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로 인식된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해지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속에서도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모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성공적인 부모역할에 대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찾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자녀를 지도하는데 올바른 방법을 찾기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을 자녀에게 시도하여 실패감을 느끼거나 오히려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는 등의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모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모역할과

기능은 대부분 자녀 발달 수준의 이해 부족,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적절한 기술의 결핍,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 등이며 이를 통해 부모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면서 자녀양육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김영철, 이영선, 이호준, 1997).

부모역할은 개인의 특성이나 가치관 및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남희, 2009). 이들의 역할은 자녀성장에 필수적인 영양공급에서부터 잠재력을 키워주는 역할까지 다양하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부모역할 수행에 전문성과 교육이 요구된다(김미옥, 2011).

따라서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부모교육이 실시되고 연구되고 있다. 부모교육은 주로 강사 주도적, 지시적, 강의식 교수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형태는 대집단으로 운영하는 부모 강연이나 중·소집단의 부모교육, 개별상담, 지면을 활용한 부모교육 가정통신문, 유치원 홈페이지를 활용한 부모교육자료 탑재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중 유아교육기관에서 가장 많이 실시되고 있는 부모교육은 많은 부모들에게 동일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대집단 강의이다. 하지만 개별적인 부모들의 요구가 만족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는 이러한 전통적 부모교육은 일반적인 지식전달에 치중되어(한국부모코칭센터, 2005) 실질적으로 부모 스스로가 양육기술을 체득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천적 확산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소희, 2005). 또한 부모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부모교육을 위한 계획과 지원체계가 미흡하다(김희진, 2002). 보육시설 역시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참여에 대한 실태 및 인식조사 연구에서 보육시설에서 행해지고 있는 각종 모임에 부모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부모상담,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부모참여수업을 제외한 다른 모임의 참

여 비율이 낮은 것으로 연구되어 부모교육이 소극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형태로 실시되어야 함을 명시하였다(홍경미, 2003).

뿐만 아니라 교육의 방법도 일반적인 지식전달방법이 아니라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효율적이라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전계순(2007)은 부모교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의 유형, 방법, 대상 등을 알아보는 부모교육의 실태와 부모와 교사의 인식과 요구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전계순은 유치원과 가정의 연계를 통한 유아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모교육이 필요하며, 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가정과 연계된 부모교육의 내용과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대의 바쁜 부모들을 배려하여 시간, 장소, 교육방식에 구애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방안의 모색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인정(2009)은 부모교육에서 아버지 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교육의 실태와 인식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인정은 아버지의 역할이 어머니보다 전통적인 경향이 높고 실제로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이 적으므로 현대적으로 바람직한 아버지의 역할 인식과 역할 수행의 실천바탕을 마련하는 아버지 대상의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현대사회의 아버지들은 가정 밖에서 발생하는 과다한 업무와 긴장감, 스트레스 등의 상황에서도 자녀양육에 도움을 바라는 어머니들의 요구와 함께 늘 아주기를 원하는 자녀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아버지는 자녀양육을 위한 시간 부족의 곤란함과(정문자, 1987) 자녀 양육에 대한 궁금증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최영미, 2001). 따라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과 양육참여의 저해 요인을 고려해 볼 때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아버지 역할 수행을 위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유치원에서는 아버지 대상의 부

모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의 대상이 되는 아버지가 프로그램의 계획, 실시, 평가 단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그들의 요구 및 특성을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박은혜, 1981).

이학자(2002)는 유치원에서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와 부모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유치원에서의 부모교육의 현황 및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이학자는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의 조절, 참여 부모의 흥미와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주제, 부모들 간의 연계가 가능한 정기적인 모임, 부모교육에 대한 홍보, 부모교육 중 자녀의 돌봄 시스템, 인터넷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부모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모교육의 대상자, 장소, 교육의 목표와 내용, 부모의 참여 형태, 유치원의 특성과 부모들의 실정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최근에는 부모-자녀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기술을 알려주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고남희, 2009; 김미옥, 2011; 김소영, 2008; 김유정, 2007; 김현주, 2008) 조직적으로 구조화된 부모교육 프로그램, 슬라이드나 비디오를 통한 시청각 교육, 그리고 참여활동을 통한 부모교육을 부모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진양희, 2000).

그 중 부모 코칭은 부모-자녀간의 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과 체계적인 목표설정, 자녀 양육 및 자녀 교육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활동이다. 또한 코치와 코칭을 받는 사람 간의 동등성에 기초하여 코치가 일방적으로 상대를 이끌고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함께 소통하고 대화하여 결과적으로 코칭을 받는 사람이 코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부모교육과는 차별화된다(박정길, 최소영, 2007).

부모코칭은 부모가 자녀로 하여금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행복한 성공을

이를 수 있도록 지지하는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며(한국부모코칭센터, 2005) 지도자가 토의나 대화로 개입 혹은 중재하여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태도가 변화할 수 있도록 돕고 부모의 역량을 개발하여 긍정적인 자녀 양육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다(송정애, 2008).

또한 부모 코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부모가 자녀를 일방적으로 지도하고 가르치기보다는 자녀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통해 자녀 스스로 답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지지함으로써 자녀가 긍정적으로 변화해 나가도록 하는데 있다. 즉, 부모코칭은 기존의 일방적인 부모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쌍방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자녀지도의 방법적인 원리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의 탐색, 성장과 발달을 강조하는 코칭적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김미옥, 2011).

부모코칭이 부모교육의 한 부분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모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김경미(2009)의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모역할지원 멘토링에 관한 연구, 김연진, 배지현, 이경화(2009)의 자녀이해와 발달 지원을 위한 부모역할 프로그램의 의미연구, 김은설(2009)의 유아교육의 참여 활성화 방안연구, 김희진(2002)의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모교육에 대한 조사연구, 김혜린, 김희진(2002)의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질적 환경에 따른 부모참여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부모코칭의 강의식 부모교육과 소그룹 부모교육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코칭의 쌍방향 소통과 코칭기술을 통해 부모들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어려움을 알고 스스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함으로써 부모의 역할을 돕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 자신이 자녀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문제점

을 발견하도록 돕고 부모 자신의 내적 자원을 활용하여 자녀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일방적인 부모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시대적 요구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코칭의 적용과정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지금까지의 부모교육은 대부분 아버지나 어머니인 한 쪽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로 양부모를 동시에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자녀에게는 양부모의 역할이 모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양육에 따른 자녀의 변화를 도모하기에는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교육적으로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동시에 참여하는 부모코칭으로 부모들의 실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부모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자녀들의 잠재력을 이끌 수 있는 양육 자세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또, 유치원에서 부모의 역할을 돕는 부모코칭 적용의 발전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2. 연구문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유치원에서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코칭의 적용과정은 어떠한가?
- 2) 유치원에서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코칭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부모의 변화는 어떠한가?

3. 연구자 배경

본 연구자는 20년의 교육 경력 중 15년의 교사 경력을 가지고 있다. 15년 동안 다양한 유아들을 만났으며 세월의 흐름만큼이나 유아들의 변화도 다양했다. 교사로서 만났던 유아들은 해당 부모들과의 상담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만큼 큰 문제를 지닌 경우들은 없었다. 하지만 사회가 급변하고 다양해지다 보니 가족의 형태 및 기능도 점차 다양해졌고 핵가족으로 구성된 가족들 중 한 부모가정, 다문화 가정, 조손 가정, 맞벌이 가정 등 학급 안에는 여러 유형의 가족들로 구성된 유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족들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이전의 나의 교사경험들이 무색해질만한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다.

교사 경력 8년차 때에는 유치원에 종일반이 생기게 되었다. 그 때 연구자의 학급에도 종일반 유아가 1명 있었고 그 유아는 한 부모 가정의 자녀였다. 당시에는 한 부모가정이 많지 않았으며 연구자 역시 처음 맞이하는 한 부모 가정의 유아였다. 종일반 유아가 1명인 관계로 하원지도는 교사가 집까지 데려다 주어야 했다. 등원 첫 날 연구자는 해당 유아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으나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학부모와 통화를 해보니 어린이집을 다닐 때부터 어머니가 귀가할 때까지 혼자 집에 있었으므로 괜찮다며 연구자에게 유아만 남겨 놓고 돌아가라고 하였다. 하지만 연구자는 유아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어 해당 유아의 집에서 어머니가 귀가하길 기다렸다. 당시의 연구자로서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이후 해당 어머니와 자녀를 방치하여 발생하는 문제, 안전 불감증에 대한 인식과 적절한 대처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유아가 방치되는 일이 해소될 때까지 도움을 주었던 것을 기억한다. 하지만 당시 연구자는 미혼이며 저 경력의 교사였기 때문에 이 일은 매우 어려운 과

제였던 것으로 회상된다. 이 때 각 가정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교사로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제시할 때 가족지원이 이루어짐을 어렵게 경험하게 되었다.

본 연구자가 2008년 S유치원의 원장으로 임용되면서 부모교육과 상담을 통한 가족지원프로그램을 연간으로 계획하게 되었다. 다양한 강사들과 내용을 구성하여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가족별 특성에 따른 부모 상담도 진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가족지원프로그램들이 유아들의 문제행동 개선이나 부모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하도록 돕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많은 학부모들은 전통방식의 부모교육은 그 효과가 짧은 평가지를 제출하며 지속적으로 부모인 자신을 자극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던 중 지난 2006년 우리 유치원에는 만 3세의 남아와 만 4세의 남아가 형제인 가정이 입학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두 형제는 공격적인 언행이 매우 심하여 다른 유아들과 학급의 하루 일과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에 두 형제와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형제들의 공격적인 행동은 아버지의 영향임을 알게 되었다. 이번에 역시 연구자는 해당 학부모와 개별 상담을 시작하였다. 그 동안은 주로 어머니와 상담을 하고 문제를 해결했던 반면 아버지를 상담하는 것은 처음이라 익숙하지 않은 점이 많았고 처음에는 연구자 역시 아버지와 상담이 불편하였다. 불편한 상담 속에서 자녀는 체벌로 양육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확고한 자신만의 양육철학을 가진 형제의 아버지를 돕기에는 매우 어려웠다. 연구자는 형제의 아버지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당시의 감정을 회상해보게 하고 이를 통해 자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후 형제 아버지는 유치원을 신뢰하고 작은 문제도 도움을 요청하였다. 형제들이 3년의 유치원 교육과정을 마치고 난 졸업 후에는 연구자의 유치원을 방문하며 자녀들의 긍정적인 성장

에 대해 자랑을 하곤 하셨다.

이러한 경험은 가정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도움이 부모와 유아, 가정에 매우 유익함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이후에도 다양한 부모들과 상담을 통해 부모의 역할을 꾸준히 지원하던 중 연구자는 부모들을 집단으로 교육하는 것의 비효율성을 느끼고 연구자의 유치원에서 2009학년도부터 부모코칭 동아리를 운영하게 되었다. 부모 코칭 동아리는 1년에 4기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기수 당 총 6~8회를 진행하였다. 코칭동아리는 지혜로운 부모 되기,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기, 오카리나 배우기, 함께 살아가는 아이로 키우기 등 총 10기의 동아리를 운영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진행해 온 코칭 동아리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모두 어머니가 그 대상이었다. 그러던 중 지난 해 2기 동아리 활동을 마무리 하는 정답회 시간에 A어머니로부터 코칭 동아리에 아버지도 참가했으면 더 도움이 되었을 것 같으며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코칭 동아리를 제안하였다. 이에 3기에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코칭 동아리가 운영되었고 그 결과 매우 만족스러운 효과를 보게 되었다. 3기 아버지 코칭 동아리에 참여한 아버지 중 A아버지의 자녀는 종일반 유아였다. 그 유아는 유치원의 등·하원을 가정에서 지원하고 있었는데 등원은 주로 어머니가, 하원은 아버지가 지도해 주셨다. 그런데 하원을 하는 시간이 되면 유아는 누가 자신을 데리러 왔는지 궁금해 했고 아버지가 자신을 데리러 왔음을 알게 되면 집으로 귀가하는 것을 거부하곤 했다. 부모코칭 동아리를 진행하기 전에는 왜 유아가 아버지가 데리러 오면 집에 가기 싫어하는지를 몰라 선생님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코칭 동아리활동을 통해 유아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A아버지는 항상 소리를 지르고 체벌로 훈육을 하는 양육태도를 갖고 있어 유아가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A아버지는 이후 코칭 동아리를 통해 자신의 양육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많은 눈물을 흘렸

으며 자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작용 기술 및 가정에서 자녀와 놀이하는 방법을 안내 받고 꾸준히 실천하였다. 또, 연구자의 권유로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진행되는 모래놀이치료과정을 유아가 참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A아버지는 부모로서의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고 적절한 양육태도를 형성해 가기 시작했고 유아는 더 이상 아버지를 거부하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아버지코칭 동아리를 마친지 1년이 지난 얼마 전 A어머니는 A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전 A는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이와 같은 연구자의 경험은 부모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배우면서 자녀의 변화를 도모하는데 한 부모가 아니라 양 부모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유용함을 알게 되었다.

위와 같은 연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치원에서 부모가 함께 참가하는 부모코칭 적용과정을 탐색하는 연구를 계획하게 되었다.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역할

1) 부모역할의 개념과 중요성

일반적으로 역할개념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수행되도록 기대되는 특정한 행동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부모역할은 부모라는 사회적 지위를 정하고 있는 사람이 수행하도록 기대되는 과업 또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행동은 부모로서 갖게 되는 지식, 태도, 기술 등으로 인해 표출되는 것으로 부모역할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양육태도 혹은 양육행동 등으로 부모역할을 총칭하기도 한다(유진희, 2006).

결혼한 부부는 대부분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부모라는 사회적 위치에 서게 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역할을 하게 된다. 부모는 어떤 방식으로든 행동하게 되고 이 방식은 상황에 따라 일관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동은 이 속에 사회적인 체계를 구축하여 특유한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고 한다(이숙, 1988). 따라서 부모역할은 자녀의 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부모는 자녀의 강력한 모델로서 자녀의 성격형성과 대인관계의 길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요구하는 행동규범, 가치, 도덕성을 획득하는 사회화 과정과 자녀의 부적응을 경감, 완충시키는 핵심 역할을 한다(박주희, 2001). 이는 부모역할이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직·

간접 요인이 됨을 의미하며 따라서 부모가 부모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녀에게 발생하는 결과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부모역할은 자녀의 전인적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므로 자녀의 발달에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실제로 부모가 적절한 부모역할을 하는 경우 자녀는 또래 관계에서 적응력과 수용력이 높고 또래관계가 좋으며 자아 존중감, 가치감이 높고 유능감과 적응발달이 높다(허묘연, 2000). 그러나 부모가 적절한 부모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자녀는 또래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이혜영, 1986)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부정적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높았다(임선화, 1987). 이렇게 부모역할은 자녀의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하고 촉진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문제와 병리를 야기하거나 가속화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공하기도 한다(유진희, 2006). 이는 부모역할이 자녀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부모역할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개념은 애정과 통제이다. 많은 연구에서 애정은 청소년 발달과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통제에 대한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통제를 부모역할의 유형으로 간주하거나 애정과 대립되는 적대감이나 거부의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한다(Barber, 1996). 그러나 최근에 부모역할에서 통제와 자녀의 적응과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적절한 통제를 하는 경우 자녀의 적응을 촉진시키는 요소로서 입증되어지고 있다(Grusec & Goodnow, 1994).

부모역할의 목적은 자녀의 발달 과정 동안 양육하고 보호하고 지도하는 것이다(Brooks, 1994). Hauser(1973)는 현재와 미래의 자아상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준 태도가 자기 지각의 척도가 되어 자녀의 지적, 정의적 특성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부모역할은 가정의 분위기, 사회, 경제적 수준, 문화적 배경, 부모나 자녀의 특성 등과 깊

은 관계를 가진다(박경자 외, 2001).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부모역할을 결정하기 때문에 부모역할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학자에 따라 태도에 초점을 맞추거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대부분 태도와 행동을 구별하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Becker, 1964).

2) 부모역할의 유형

부모역할에 따른 양육태도는 여러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서로 다른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최초로 체계화한 사람은 Symond(1949)로 그는 양육태도를 부모가 자녀를 수용하고 사랑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수용-거부차원과 부모의 생각대로 자녀를 지내하고 복종하게 하느냐에 따라 지배-복종차원이라는 두 가지의 차원으로 부모역할을 분류하고 각 차원은 지배에는 기대형과 엄격형, 보호에는 간섭형과 불안형, 복종에는 맹종형과 익애형, 거부에는 소극적인 거부형과 적극적인 거부형의 형태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거부적이지도 않고 지배적이지도 않으며 과보호나 복종적이지 않은 중간을 취하는 부모역할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부모역할이 부정적으로만 설명되었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전한 역할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Schaefer(1959)는 Symond(1949)의 모형 요인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부모의 건전한 역할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밝혀내고 정상적인 부모역할을 근거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초기에는 두 개의 독립적인 차원을 가진 구조 즉, 자율-통제, 애정-적대의 차원으로 분류하였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수용하고 가족이 자유를 행할 수 있게 해주면 자녀는 타인을 따르고 신뢰하면서 독립적이고 자기 주장적이고 우호적이며 어떠한 일을 수행할 때 전통

적인 방식을 수용하면서 창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이후 Schaefer(1959)는 부모역할을 극도의 자율, 느슨한 훈육 등 26개 요인으로 구분하여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차원은 수용-거부이다. 수용-거부차원의 긍정적인 측면은 긍정적인 평가, 공유, 애정의 표현, 감정적인 지지, 평등주의적 태도가 포함되었고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무시, 무관심, 거부가 포함되었다. 두 번째 차원은 심리적 자율-통제로 침입, 부모중심, 죄책감을 통한 통제, 소유, 보호, 수용, 잔소리, 부정적 평가, 거부, 엄격함과 처벌 등의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 차원은 확고한 통제 대 느슨한 통제로 느슨한 훈육과 극단적인 자율성, 처벌, 엄격한 요인이 포함되었다.

이렇게 부모역할의 차원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는 상황에서 부모역할의 유형에 초점을 준 연구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유형론의 대표적인 학자가 Baumrind이고 그의 모델에서는 부모역할의 유형을 독재형, 허용형, 권위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가장 널리 알려진 유형이다. Baumrind는 통제를 중심으로 한 유형으로 분류를 하였고 부모역할을 범주화하기 위해 부모의 통제, 온정의 행동영역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기준 중에 부모의 통제는 Schaefer의 통제 개념과는 달리 무조건적인 규제, 처벌적 태도나 강요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화 기능으로 간주하여 자녀로 하여금 목표지향적인 행동을 형성시키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수정하게 하는 행위로 간주하였다. 또한 부모의 온정은 보호하는 기능으로서 애정을 표현하고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한 부모의 태도와 행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두 가지 기준에 의해 부모의 온정과 통제가 모두 높은 경우 권위적, 온정이 높고 통제가 낮은 경우 허용적, 통제가 높고 온정이 낮은 경우 독재적인 부모역할을 분류한다. 이러한 유형론적인 분석은 차원론적인 분석보다 좀 더 부모역할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 부모교육

1) 부모교육의 개념

전통적으로 부모란 성인 남녀가 결혼하여 자녀를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맡게 되는 역할이고 또 이 역할은 누구나 쉽게 그리고 본능적으로 잘 할 수 있다고 여겨 왔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다양하고 급격한 변화는 과거의 단순했던 가족 구조 역시 다양하게 변화시켰고 그 결과 현대의 부모-자녀관계도 매우 다양해졌다고 볼 수 있다(김진영, 김진원, 전선옥, 2001).

자녀를 갖는 동기가 어떠한든, 자녀의 수가 많은 적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면서도 체계적인 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못하고 대부분의 인간이 맡게 되는 역할이 바로 부모라는 역할이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다. 부모로서의 책임은 단순히 자녀에게 필요한 음식물을 제공해 주고, 옷을 입히고, 잠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교육은 바로 부모로 하여금 자녀교육의 책임을 인식하고, 주어진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여 부모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태도를 지니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어지는 교육과정을 의미한다(유효순, 이원영, 2007). 일반적으로 부모교육(parent education)은 부모 훈련(parent training), 부모 참여(parent participation), 부모 개입(parent involvement), 부모 역할 하기(parenting) 등의 다양한 용어로 불리기도 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용어는 부모교육과 부모참여이다. 그러나 이들 용어는 통일된 정의나 명확한 구별이 이루어지지 않고 활동 특성이나 목적에 따라 혼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부모교육과 부모참여를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부모참여를 부모교육보다 포괄적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며 두 가지 용어를 분리하기 보다는 부

모교육과 부모참여를 유아교육기관과 부모의 동반자적 협력 관계 속에서 파악하기도 한다(김은영, 2011).

먼저, 부모교육과 부모참여를 어느 정도의 차이를 지닌 두 가지 개념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배지희 등(2011)은 부모교육을 전문가에 의해 부모를 교육시키는 의미로, 부모참여를 부모와 교사의 협력적 관계를 강조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장지원(2005)은 부모교육을 부모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부모의 수동성을 강조한 반면, 부모참여는 부모의 자녀 교육권의 주체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고 부모의 적극성을 강조한 개념으로 보았다. 박영실(1981)도 효과적인 부모역할 수행을 위하여 부모가 부모교육자로부터 교육을 받는 것을 부모교육으로 보았으며, 유아교육을 위하여 유아교육기관과 부모가 동등한 입장에서 적극 노력하는 과정을 부모참여로 보았다. 김희진(2006)은 활동의 특성이나 초점에 따라 부모교육과 부모참여를 구분하였다. 부모교육은 부모에게 정보 제공 및 태도, 기술, 전략 등을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활동으로 정의하고, 부모참여는 학급활동, 부모회 활동, 기관 운영 관련 등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활동에 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것을 강조한 용어로 사용하였다. 김은설(2009)은 부모교육을 부모의 변화를 목적으로 도움을 주는 활동이라 하였으며, 부모참여는 부모를 동반자 및 도움을 주고받는 대상으로 인식할 때 일어나는 활동이라 하였다. 또한 부모교육은 과거에 주로 사용되던 용어이며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부모참여라는 현대적인 개념의 용어로 대체되고 있으나 부모참여가 온전히 부모교육을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로 ‘부모교육’과 ‘부모참여’를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관점에서 볼 때 부모교육은 부모를 ‘수동적인 학습자’로 보고 부모를 가르치는 것이 목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 참여는 부모를 ‘적극적인 학습자’로 인식하여 부모교육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효선(2010)은 부모참여를 부모교육 및 부모 개입, 부모 훈련 등을 포함한 포괄적 의미로 보았으며, 자녀의 발달과 성장을 위하여 부모의 효과적인 역할수행을 위해 도움을 주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조미영(2008)은 보다 효율적인 유아교육을 목표로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의 동반자적 관계 속에서 서로 능동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부모참여로 정의하고 부모교육을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하고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보았다. 지금까지 언급한 연구자들은 부모참여와 부모교육을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부모참여가 부모교육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교육과 부모참여를 구분하지 않고 부모와 유아교육기관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보기도 한다. 최형윤(2006)은 부모 교육과 부모참여를 분리된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유아교육을 위하여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이 서로 능동적으로 더불어 협력하는 모든 활동으로 보고 이를 통한 가정과 기관의 동반자적 관계 형성을 강조하였다. 박은숙(2006)은 부모교육을 부모와 유아교육기관이 동등한 입장에서 유아의 양육 및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보다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상호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든 과정으로 보았다. 그리고 최광희(2004)는 부모참여를 부모와 교사가 유아의 동등한 교육적 책임자로서 교육, 참여, 후원, 지지 및 상호작용을 통한 교육 내용의 공유 기능을 수행하여 부모와 자녀 모두의 긍정적 행동변화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교육이라고 하였다.

부모교육의 개념이 통일되지 않고 다양한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이들 용어를 서로 배타적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김희진, 2006). 이러한 다양한 용어의 혼재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부모를 바라보는 관점, 부모교육에 대한 부모의 요구 및 필요, 부모교육의 대상이 가족 전체로 확대 등 지속적인 변화에 기인하기 때문이다(김은영, 201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교육과 부모참여는 각각의 용어를 명확하게

분리하여 정의하는 것은 어렵지만 두 용어 모두 부모에게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태도와 지식을 안내하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유아로 성장하는 것을 돕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는 자녀를 올바르게 성장시키고 부모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유치원, 부모와 자녀가 함께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바람직한 유아교육은 유아교육기관과 가정 중 어느 한쪽만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공동의 가치관과 책임의식으로 함께 할 때 성공적인 유아교육을 기대할 수 있다.

2) 부모교육의 필요성

부모는 유아가 세상에 태어나 최초로 맺는 인간관계의 대상이며, 부모가 제공하는 환경은 유아발달 전반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부모 역할수행 여부는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모교육은 고대에서 중세, 근대와 현대까지 접근방법과 내용에 변화가 있을 뿐 인류의 역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부모교육의 필요성은 그 시대의 인간관, 교육, 사회, 문화, 역사, 경제적 상황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이은화, 1997). 오늘날의 급격한 사회와 경제의 변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의 변화,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 그리고 가족구조와 관계 및 역할의 변화 등은 현대사회의 부모들이 바람직한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김진영, 김진원, 전선옥, 2001). 오늘날의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바를 모르며(이연승, 1989), 부모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 및 경험의 부족으로 특정문제 상황에 접하게 되면 갈등을 일으키고 역할 수행에 대한 혼란을 호소하고 있

다.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 교육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역할수행의 혼란은 부모교육에 대한 정보나 기술의 부재 및 결핍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부모들은 바람직한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제반교육과 이에 관련된 체계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류지후, 1996). 또한 유아들이 많은 시간을 유아교육기관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의 협력적인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들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협력을 요청하여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이 동반자적 자세를 형성하고 일치된 교육철학으로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이원영(1995)은 유아의 입장, 부모의 입장, 사회의 입장으로 밝히고 있다. 먼저, 유아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부모는 유아의 신체, 사회, 정서, 인지 등의 전인적인 발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첫째, 부모의 미성숙한 인성을 들 수 있다. 성숙된 인성을 갖고 아이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동시에 독립심, 자발성, 창의성, 협동심을 길러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부모교육을 받지 않아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결혼의 연령이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이 대부분인 것을 감안해 본다면 결혼 당시에 성숙된 인격을 갖기란 쉽지 않다. 미성숙한 인성을 가진 젊은 남녀가 만나면 어쩔 수 없이 불만과 불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기가 태어난다면 그 불화는 더욱 심해진다. 따라서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부모 자신의 인성도 함께 성숙되어 갈 수 있는 부모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확대가족의 붕괴를 들 수 있다. 과거 양육방식이 바람직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는 접어 두고 후세에게 전달되는 방법만을 논한다면 현대의 젊은 부모들은 양육모델을 잃어 가고 있다. 과거 확대 가족 제도에서는 적어도 3~

4대가 함께 살게 되므로 젊은 세대는 자녀를 양육할 때 어른들의 도움과 조언을 즉각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핵가족 제도가 보편화되면서 젊은 부모들은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녀 양육의 책임을 수행해야할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다. 준비 없이 낳아 기르게 되는 아기 양육은 기쁨이라기보다는 짐으로 여겨지는 것이 보통이다. 어린 아기를 보다 기쁜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부모역할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이동을 들 수 있다. 사회가 도시화, 문명화, 산업화가 될수록 가정 단위 또는 개인의 사회 이동 횟수가 증가하게 된다. 국내의 이동은 물론이고 국가 간의 이동도 증가하게 된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주말부부는 계속 증가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양육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젊은 부부, 그 중에서도 젊은 아버지들이 양육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 이들을 정신적으로 후원하고 또, 자신감을 갖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 줄 부모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 때이다.

넷째, 성역할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많은 여성들이 어머니, 아내 역할 이외에 자신의 생활 영역을 요구하기 시작하자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가 자녀양육의 문제였다.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고 싶은 젊은 여성들은 자녀 양육으로 인해 야기되는 죄의식과 갈등을 피하고 싶어 했으며 독신주의와 결혼은 하되 자식을 낳지 않는 경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또,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진 2000년대의 우리나라에서도 양육을 부부 공동의 책임으로 느끼고 주지하는 일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 젊은 남성들에게 이를 위한 부모교육의 기회가 없다. 어린이들의 학업성취는 아버지들의 참여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1970년대 이후 Lamb 등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참여는 필수적인 것으로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원영(1995)이 주장한 사회의 입장에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인적 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사회균등, 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인적 자원의 개발과 사회균등의 측면에서 보면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인간이며 인적 자원의 지적, 인성적 기반이 유아기에 형성되므로 유아에게 절대적 영향을 주는 부모교육의 강조는 당연한 것이다. 또,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교육에의 투자는 어릴 때 할수록 효과가 크다. 따라서 질적 수준이 높은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아기 교육투자를 할 필요가 있으며 유아를 가장 자율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교사가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교육이 중요한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여러 측면에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부모 교육은 부모뿐만 아니라 교사와 교육기관에서도 그 필요성을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교사 측면에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해보면 교사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의 개별적 기질과 특성에 따른 실제적인 교육목표와 방법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가정과의 일관성 있는 교육을 가져올 수 있다. 차미영·이미애(2000)는 교사와 부모의 지속적인 협력 및 상호작용은 교사에게 유아의 개별적인 상황과 요구 등을 파악하도록 돕기 때문에 유아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조미영(2008)의 연구에서도 교사들은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기관과 가정이 함께 연계되어 상호작용할 때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부모교육을 통해 교사가 잘 알지 못하는 유아를 지도하면서 갖게 되는 좌절감을 덜 느끼게 되고 유아의 개별성에 적합한 혁신적인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모로부터 적절한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부모와 교사는 동반자적인 자세로 협력할 때 서로에게 자신감이라는 정서적 욕구 충족에 기여하게 된다. 부모들은 부모교육을 통해 교

사의 업무와 유아, 기관의 교육활동 및 활동 진행과정에 대해 이해가 증가되고 가정과 의사소통이 증진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장지원, 2005; 배지희, 2008).

교육기관의 측면에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김희진(2002)의 연구에서도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자녀와 주변의 부모, 가정, 교육기관, 지역사회, 국가를 포함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부모교육을 통하여 부모들은 즐거움을 느끼고 유아가 의미 있는 일상 속에서 지식을 획득하게 함을 알게 되었으며 유아교육기관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최광희, 2003). 부모교육이 부모들에게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일깨우고 유아의 전인적 발달에 적합한 부모의 역할을 인식하고 교육기관의 역할과 협력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도모하여 기관과 가정의 일관성 있는 교육을 이루는 토대로 작용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종합하여 볼 때 부모교육은 유아에게는 전인적 성장을 돕고 부모에게는 부모역할에 대한 정보와 기술의 습득으로 자신감을 향상시켰으며 교사는 유아의 개별성에 따른 가정과 일관된 교육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시 말해 부모교육은 유아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의 바람직한 역할 수행을 도와 자녀양육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는 유아에게 적합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부모 지원을 받고 도움을 준다. 부모와 유치원은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서로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한다.

3) 부모교육의 유형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부모교육의 유형은 자녀의 연령, 대상자,

장소 및 교육의 목표와 내용, 부모의 참여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원영(1995)은 부모교육의 유형을 자녀의 연령을 중심으로 볼 때 영아를 위한 부모교육, 취학 전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부모교육으로 나뉘며 이는 각각의 발달 시기에 따른 독특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적절한 부모의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대상자에 따른 분류에서는 부모교육이 다양화되고 그 대상자가 증가함에 있어 부모교육이 구별된다. 여기에는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부모교육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부모교육, 예비부모를 위한 부모교육으로 나뉠 수 있다.

부모교육의 실시장소에 따라서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정 중심 부모교육,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기관 부모교육 및 지역사회 중심 부모교육으로 나뉜다.

마지막으로 부모교육의 궁극적 목표에 따라서는 부모-자녀의 인간관계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 교육과 인지능력-교육기능 활성화를 위한 교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유안진·김연진(1997)은 부모교육의 유형을 부모의 참여 비중에 따라서 구분하였는데 부모교육에서 부모의 최소한의 역할에서부터 프로그램을 완전하게 통제하는 역할까지 역할 수준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부모회, 참관, 통신문, 가정통신, 면담, 가정방문 등처럼 교사나 부모교육 전문가가 주도가 되고 부모는 정보와 지식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최소한으로 참여하는 부모참여 형태와 직접적인 교육활동에 교사의 결정에 따라 부모가 보조교사나 자원봉사자로서 참여하는 부모참여 형태, 교구제작이나 학급 내의 일상적인 과정을 지원하여 보조교사로 참여하는 형태, 부모의 권한을 최대한 인정하여 유아교육기관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가장 진보

적인 부모참여 형태로 구분하였다.

김희진(2006)은 부모 교육을 통한 부모 참여를 간접 경험에 의한 참여를 통한 협력, 직접 경험에 의한 참여를 통한 협력, 학습에의 참여를 통한 협력, 의사소통의 참여를 통한 협력, 자원과 재능 제공에 의한 참여를 통한 협력,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통한 협력으로 제시하였다. 간접 참여를 통한 협력으로는 단순관찰, 안내의 의한 관찰을 들었고 직접 경험을 통한 참여의 협력으로는 돌보거나 가르치기를 위한 보조교사의 역할이나 주교사로 참여를 제시하였다. 학습에의 참여를 통한 협력으로는 강연회와 같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소극적인 참여와 워크숍, 토론, 역할 놀이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들었다. 의사소통을 통한 참여의 협력으로는 통신문 형식의 일방적 의사소통과 전화, 면담, 홈페이지 등 쌍방향적 의사소통을 제시하였다.

신옥순(2005)은 유아교육기관과 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모교육의 형태를 강연회, 토론회, 워크숍, 역할극, 인형극, 비디오 감상회, 독서 좌담회 등의 부모회와 개인면담, 가정방문, 가정통신, 수업참관, 보조교사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문영보·최복기(2009)는 행사참여, 의사소통 참여, 부모회 참여, 자원봉사 참여, 운영 참여, 시설활용의 여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배지희(2002, 2008)은 미국 일리노주에 위치한 유아교육기관과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기관의 부모교육에 대한 연구에서 부모교육의 유형을 부모교육 및 워크숍,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아와 함께 하는 부모참여 활동, 가정과 연계 활동을 통한 부모참여, 의사결정자로서의 부모참여로 제시하였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직접 대면과 간접대면으로 나누었으며 유아와 함께 하는 부모참여 활동은 부모참여 수업과 부모의 자원봉사활동으로 나누기도 하였다.

조미영(2008)의 연구에 의하면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부모교

육의 형태는 면담, 가정통신문, 참관 및 참여수업, 전화 대화를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회, 가정방문, 강연회, 좌담 및 토론회, 워크샵, 운영 결정의 참여, 수업보조 자원봉사자, 기타 자원봉사자, 교구 제작 및 대여,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많이 실시되지 않는 활동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유치원 홈페이지를 활용한 부모교육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많은 유치원에서 홈페이지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부족한 편이다. 홈페이지에 대해 제경숙(2005)은 최근에 홈페이지를 활용한 부모교육이 활성화 되고 있고 특히 맞벌이 부모들은 시간적인 이유로 원내 활동 참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맞벌이 부모의 증가와 더불어 유치원에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할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배지희(2008)는 홈페이지 운영으로 인하여 교사들은 많은 시간 할애로 업무 가중의 문제가 발생하고 부모의 유치원에 대한 불편, 불만의 계기로 문제가 확산되는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부모교육으로 홈페이지가 교육적 활용 가치를 가지고 있으나 활용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부모교육으로 홈페이지를 활용할 때에는 단점을 개선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부모교육의 유형은 학자마다 다양한 분류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가족의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각각의 유치원에 적합한 부모교육의 유형을 선택하여 부모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천적 부모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유형

부모교육은 부모로 하여금 자녀의 양육 및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부모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에

따라 ‘부모 역할의 향상’과 ‘부모 교육 기능의 활성화’로 부모교육의 프로그램을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역할 향상을 강조하는 프로그램

부모의 역할 향상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은 20세기에 들어서 발달된 부모-자녀관계의 향상을 위한 모든 이론을 토대로 한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으로는 드라이커스(Dreikurs)의 부모교육에 기초를 둔 부모교육 연구회(Parent Study Group), 기노트(Ginott)의 인본주의적 부모교육 이론에 기초한 부모상담 모임(Guidance Group for Parent), 고든(Gorden)의 부모효율성 훈련(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 PET), 효율적 부모역할을 위한 체계적인 훈련(Systematic Training for Effective Parent ; STEP) 및 행동수정 원리를 적용한 프로그램, Adler, Dreikurs 그리고 Rogers의 이론을 근거로 1983년에 Popkin에 의해 개발된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 프로그램(Active Parenting Now), Ginott의 이론에 근거하여 Faber와 Mazlish(1980)에 의해 개발된 자녀가 경청하도록 이야기하는 프로그램(How to talk so kids will listen), 최초의 교사로서의 부모 프로그램(Parents as First Teachers), 총체적 부모교육프로그램 등이 있다.

먼저, 부모교육 연구회(Parent Study Group)는 드라이커스(Dreikurs)의 부모교육이론에 근거하여 민주적 양육방식 이론을 바탕으로 자녀를 격려하고 존중하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중시하여 책임감 있는 자녀를 길러내는 것을 강조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다. 두 번째로 부모상담 모임(Guidance Group for Parent)은 기노트(Ginott)의 인본주의적 부모교육 이론에 기초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부모-자녀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자녀에게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술을 훈련하여 양육방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다. 세 번째로 부모효율성 훈련(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 PET), 효율적 부모역할을 위한 체계적인 훈련(Systematic Training for Effective Parent ; STEP) 및 행동수정 원리를 적용한 프로그램은 고든(Gorden)의 부모-자녀 간의 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과 기술을 부모에게 교육시킴으로써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부모-자녀 관계가 효율적인 의사소통기술을 훈련시키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다. 네 번째로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 프로그램(Active Parenting Now)은 Adler의 개인 심리학 이론에 근거를 두고 Drekurs의 민주적 자녀양육이론과 Gordon의 부모효율성훈련이론 그리고 Rogers의 이론을 근거로 1983년에 Popkin에 의해 개발된 만 5세에서 12세 자녀를 위한 부모코칭 프로그램이다. 그 밖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Ginott의 이론에 근거하여 Faber와 Mazlish(1980)에 의해 개발된 자녀가 경청하도록 이야기하는 프로그램(How to talk so kids will listen), 최초의 교사로서의 부모 프로그램(Parents as First Teachers), 총체적 부모교육프로그램 등이 있다.

(2) 부모의 교육기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부모의 교육기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에는 교육기관 중심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가정 중심 부모교육 프로그램, 지역사회 중심 부모교육 프로그램, 가정탁아 프로그램이 있다.

첫 번째로 부모 중심 부모교육 프로그램에는 부모교육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으로 집단모임, 부모면담, 관찰 및 참여가 있다. 먼저 집단모임은 유아교육기관에서 부모교육의 일환으로 부모들을 위한 여러 종류의 모임을 갖고 있는데 이 모임은 집단의 크기별로 대집단 모임, 소집단 모임으로 나뉘며 활동의 내용에 따라 워크샵과 같은 소집단 활동, 극화 및 역할놀이가 있다. 부모면담

은 부모와 교사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만나 유아의 행동 및 생활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여 유아를 함께 지도하는 방법이다. 부모면담은 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이 있다. 관찰 및 참여도 부모 교육의 한 유형으로 학급활동에 부모가 직접 참여하여 관찰하고 교육을 담당해 보는 활동이다. 부모의 학급 참여는 부모에게 교육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의미도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유아들의 발달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도서실 운영 및 놀이감 대여, 서면 통신 등이 있다.

두 번째로 가정 중심 부모교육 프로그램인 가정방문 프로그램은 유아교육기관의 설립 없이 가정방문만으로도 유아를 교육할 수 있다는 경제적 이점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아를 가정에서 떼어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부 전문가의 이론적 의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의 역할과 프로그램의 형태에 따라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가정방문자가 직접 유아를 가르치는 것으로 쉐이퍼(Schaefer)의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또, 가정방문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엄마와 유아 앞에서 시범을 보이고 다음 방문까지 부모가 활동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레벤스타인(Levenstein)의 프로그램과 피버디 대학의 프로그램(DARCEE Program)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정방문 이외에 유아가 일주일에 한두 번 학습센터에 오도록 하는 것으로 플로리다 프로그램(Florida Program)이 전형적인 예이다.

세 번째로 지역사회 중심 부모교육프로그램으로는 대중매체를 이용한 프로그램, 놀이감 도서관 프로그램, 가정탁아 프로그램이 있다. 대중매체를 이용한 프로그램은 TV, 팸플릿, 서적, 신문, 라디오, 인터넷과 같은 대중매체를 사용하여 유아교육을 홍보하거나 계몽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놀이감 도서관 프로그램은 님니히트(Nimnicht et al., 1972) 등이 중심이 된 부모-유아 놀이감

도서관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류지후(1983) 등을 중심으로 더프(Duff)의 놀이감 대여 프로그램과 넘니히트의 부모-유아 놀이감 도서관 프로그램을 절충하여 놀이감 도서관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정탁아 프로그램은 한국여성개발원에서 1985년부터 실시한 가정 탁아제에서와 같이 탁아모를 양성하여 탁아모 자신의 집에서 유아들을 돌보아 주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5) 부모코칭

(1) 부모 코칭의 개념 및 필요성

코칭(Coaching)의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목적이나 방향으로 남을 이끌거나 지도하여 가르침(새국어 사전, 2008)을 뜻한다. 코치의 어원은 헝가리의 도시 코치에서 개발된 네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에서 유래한다. 전 유럽으로 퍼진 이 마차는 코치라는 명칭으로 불렸다고 한다. 1880년경 코칭이 스포츠에 적용되어 운동선수를 지도하는 사람을 코치라고 부르게 되었다. 현재의 코칭은 1980년대 초 레너드로부터 시작되었다. 1980년대 후반 미국의 기업들이 코칭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전문적인 비즈니스 코칭이 탄생 되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코칭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이다. 오늘날에 코칭은 핵심은 인재 양성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각광 받고 있으며 학교나 비영리재단에서도 인재를 양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코칭이 기업의 영역을 넘어 모든 인간관계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장이 필요한 개인이라면 코칭은 누구에게나 효과적일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재의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서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도록 지원하고 그것이 변화되기까지 일대일로 밀착하여 도와주기 때문이다.

코칭에 대한 학계의 통일된 정의는 없지만 경영학 차원에서 Stowell(1986)가 처음으로 정의하였다. 그에 의하면 코칭은 리더가 토의나 대화로 개입이나 중재를 하는 구체적인 기능이나 행동을 포함하는 과정이다(전도근, 2006).

코칭의 정의를 바탕으로 부모코칭의 개념을 살펴보면 부모코칭이란 자녀로 하여금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행복한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지지하는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다(한국부모코칭센터, 2005). 지도자가 토의나 대화로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태도가 변화할 수 있도록 부모역할 훈련을 통해 부모의 역량을 개발하고 긍정적인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다(송정애, 정해은, 김미경 2008).

부모코칭은 학습이론을 바탕으로 인지적 부조화, 구성주의, 통제이론, 경험 학습에 따른 부모코칭이 효과를 각 이론의 핵심이론과 코칭의 핵심전제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도미향, 채경선, 2006).

첫째, 인지적 부조화(Cognitive Dissonance) 관점에서 인간은 태도와 신념, 의견에서 일관성을 추구하는데 태도와 행동에 일과성이 없을 때에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지적 부조화에 따른 코칭의 핵심전제는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의 역할과 양육방법에 있어서 부모의 태도와 행동의 일관성이 부족할 때 코칭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코칭의 과정은 자녀의 개인적인 목표에 집중하고 목표 달성에 달성할 수 있도록 부모의 신념과 태도, 행동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둘째, 구성주의(Constructivism)의 핵심은 학습자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의미 있는 요소들을 통해 지식을 구성해 간다. 따라서 구성주의에 따른 코칭의 핵심전제는 부모 스스로가 자신의 양육목표와 비전을 중심으로 세부사항을 조직화하도록 돕는 것이다. 부모가 설정한 목표를 지속적으로 일깨우는 방향으로 대화를 전개해 나가면서 코치는 부모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코칭을 진행

해야 한다. 전체 코칭은 부모 스스로 해답을 찾아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 중심으로 조직되어야 한다(김미옥, 2011).

셋째, 통제이론(Control Theory)의 핵심은 행동은 외부자극이 아닌 주어진 시점에서 무엇을 가장 원하는가에 의해 촉발된다. 따라서 통제이론에 따른 코칭의 핵심전제는 부모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부모코칭 과정에서 코치와 부모가 기간과 빈도는 물론 코칭의 형식까지 협의하고 결정할 때 코칭의 효과가 극대화된다(김미옥, 2011). 따라서 부모코칭은 쌍방향적으로 소통되는 적극적인 과정이다.

넷째, 경험학습(Experiential Learning)은 학습자의 경험을 학습에 통합하고 그들의 경험을 의식적으로 학습에 적용을 시도하는 학습과정이다. 학습자들을 자발적으로 참여자로 유도하고 학습자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신체적, 감성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존재로서 표출할 수 있는 감각을 총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경험학습은 학습자가 가진 모든 물리적 혹은 심리적 에너지를 자신이 의도하는 학습대상에 집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경험학습이론은 개인 몰입도, 자기 주도권, 자기 평가와 학습자에 대한 파급효과 등의 특성이 있다. 따라서 경험학습이론에 따른 코칭의 핵심전제는 부모의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부모는 스스로 목표를 수립하고 코칭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코칭의 환경은 안전하면서도 도전적이어야 하며 그 과정은 통찰력과 자기평가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도미향, 채경선, 2006).

부모코칭은 부모의 반성적 사고, 반성적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부모역할에 대해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자기 주도적 참여를 지원하는 과정이다. 부모가 자신의 부모역할에 대해 반성적 사고 없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적 방법에만 의존하여 지원하는 것은 부모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이 되지 못한다. 이처럼 부모역할을 지원하는 부모코칭은 코치와 부모들이 쌍방향적 소통

을 통해 개개인의 요구와 특성에 적합한 내용을 선정하여 현재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부모의 신념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코칭의 개념과 함께 유치원에서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코칭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영유아기 발달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존재로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모역할지원 부모코칭이 필요하다. 특히 영유아기는 부모가 자녀의 건강, 언어, 인지, 정서, 표현발달 등 모든 발달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그 효과 또한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보고되었다(이은화, 1997).

둘째, 바람직한 부모역할에 대하여 서로 다른 많은 정보가 존재하므로 부모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를 찾아 활용하는 것을 돕는 부모코칭이 필요하다. 영유아기는 자녀와 부모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하기에 적절한 시기이며 이 시의 부모와 자녀의 원만한 상호작용은 자녀의 발달을 돕기 때문에 영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 역할의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김경미, 2009).

셋째,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적절한 모델이 적기 때문에 부모역할지원 부모코칭이 필요하다. 현대사회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면에서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지므로 과거 부모 세대의 가치관을 모델로 삼아 부모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현대사회의 가족구조의 변화도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전통적인 확대 가족의 지원으로부터 부모를 격리시킨 핵가족, 이혼과 별거에 의하여 분리된 가정, 청소년이 부모가 되는 가정, 한 부모 가정의 수가 증가하면서 각각의 환경에 적절한 부모역할지원 부모코칭을 필요로 한다.

넷째, 부모 자신이 인간으로서 자기 성취를 이루고 가족, 친지 그리고 사회

로부터 효율적인 지지를 받기위해서 부모역할지원 부모코칭이 필요하다. 부모는 부모로서 성장할 기회를 얻는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직면하고 있는 스트레스와 다양한 도전을 이겨나가기 위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인정해 주고 강조해 주는 부모역할지원 부모코칭이 필요하다.

다섯째, 가정과 유치원의 연계성을 확립하여 일관성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 부모역할지원 부모코칭이 필요하다. 현대사회에서는 자녀들이 유치원에서 교육받는 시간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과 밀접한 소통과 연계로 일관성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자녀로 하여금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행복한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지지하는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인 부모코칭으로 자녀의 성장에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특성에 맞는 부모역할을 알고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는 부모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2) 부모코칭의 단계

부모코칭을 실행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으므로 많지 않고 아직 연구단계로 체계화된 연구 모델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하나의 예로 이소희, 도미향(2008)이 개발한 부모코칭 단계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부모코칭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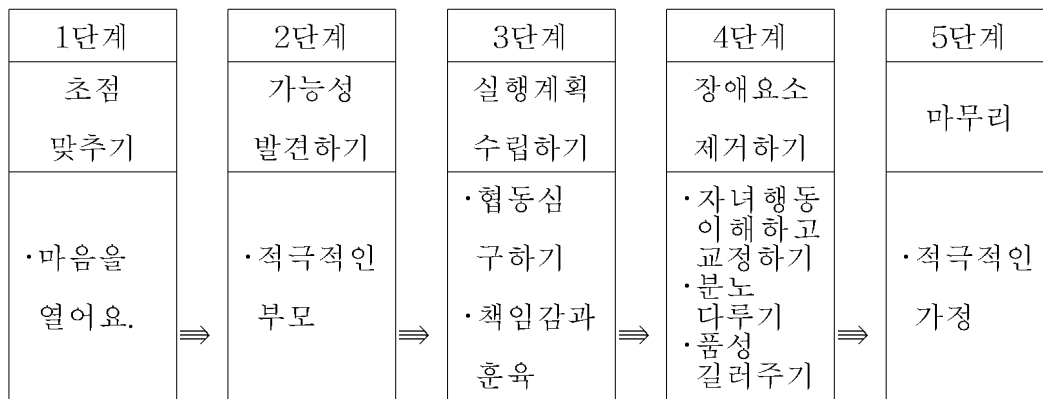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단계는 초점을 맞추기로 부모와 코치간의 신뢰감을 형성하고 부모역할에 대한 경험을 충분히 나누며 프로그램의 목표와 코칭 주제에 따라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단계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단계로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고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존중의 개념을 이해하고 선택권주기, 보살피는 자로서의 자신 돌보기에 대한 현재 실태를 파악하고 부모코칭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실행계획 수립과 실행단계로 문제점보다는 기대하는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계획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검토하여 계획한 내용을 실행하는 단계이다. 즉, 문제점이 가지는 매력에 대해 이해하고 문제의 소유가 누구인지를 파악하여 해결방법을 결정하고 경청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협동심을 구하는 자세를 형성하고 부모 자신의 의사를 자녀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정중한 요청인 나-전달법, 단호한 지시 과정을 익힌다.

4단계는 장애요소제거 단계로 필요한 자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검토하고 실천해야할 부분을 명확히 하는 단계

이다. 문제 상황에서 자녀 행동의 이유와 목적을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을 회상해 봄으로써 부모 자신의 분노 원인과 상황을 긍정적으로 표출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5단계는 마무리로 전체 부모코칭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지금까지 실천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앞으로 실천의지와 누락된 목표는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가지며 프로그램의 효과를 다시 평가할 날짜를 정한다.

제시된 부모코칭의 모델은 부모-자녀관계의 틀을 제공하고 현재의 부모의 태도를 파악하고 기대하는 목표까지의 방향성과 실천내용을 제시하면서 명확한 과정 단계를 통해 부모-자녀간의 욕구, 관심, 현재의 감정 상태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는데 효과적이다(송정애외, 2008). 그리고 부모코칭의 모든 과정은 대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코칭에 있어서 대화가 전부라고 할 수 있다. 대화 없는 코칭은 있을 수 없고 부모코칭 프로그램으로 인한 부모-자녀관계 개선의 효과 도출의 정도 또한 대화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부모-자녀간의 대화는 매우 중요하다. 부모-자녀간의 간격을 좁히는 대화의 코칭기술로는 맥락적 경청(Contextual Listening), 발견적 질문(Discovery Questioning), 메시징(Messaging), 인정과 축하(Acknowledge & Celebrating)이 있다. 대화의 코칭기술은 부모코칭단계에서 부모-자녀간의 대화를 더욱 가치 있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도미향, 2008).

이상을 종합해 보면 부모코칭 프로그램은 연구소와 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학, 학회 등에서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발전의 초기 단계 수준으로 부모코칭의 체계화를 위한 이론적 근거 마련과 다양한 측면의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부모코칭은 부모교육의 한 방법으로 부모가 스스로가 자신의 양육목표와 비

전을 중심으로 세부사항을 조직화하도록 돕고 양육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코치와 부모간의 쌍방향적 소통으로 해결해 가는 적극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코칭을 구성주의 관점에서 보고 부모가 자신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부모역할의 역량을 길러 자녀와의 어려움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코치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도록 지원하였다.

(3) 부모 코칭의 최근 동향

비즈니스 영역에서 출발한 부모코칭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코칭학 과정의 일부로 대학원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시작하였다. 국내에서 코칭의 도입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주로 미국과 일본에서 코칭을 경험한 기업경영과 교회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이었다. 이들에 의해 각자가 소속하고 있는 조직 내·외에서 코칭교육과 실제 코칭을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과정 속에서 부모코칭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이소희, 서우경, 2008).

우리나라의 부모코칭은 여러 코칭 기업에서 부모코칭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부모코칭을 선도하였는데 그 실천 동향을 이소희, 서우경(2008)의 연구에서 살펴보면 연구소와 기업차원에서의 부모코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부모코칭, 대학차원에서의 부모코칭, 학회 차원에서의 부모코칭, 인접영역 차원에서의 부모코칭, 전문가와 산하협동에 의한 부모코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부모코칭에 대한 최근의 동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소와 기업차원에서의 부모코칭은 2004년 우리나라 최초로 영리단체와 부모코칭 연구소가 출범한 이후 대부분의 코칭기업에서의 부모코칭의 위치는 비즈니스코칭과 커리어코칭 다음 순위에서 제공되고 있다.

둘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부모코칭은 2005년 우리나라 최초

로 여성가족부에서 한국코치협회의 협조를 받아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공 라이프 코칭의 장을 열고 이 속에 부모코칭 서비스를 포함시켰다. 이후 점점 지방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결혼 이민자 가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새터민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가족코칭 및 부모코칭을 실시하고 준전문가 양성을 시도한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경북여성정책개발원과 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를 들 수 있다. 이후, 일반 부모들의 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돕기 위해 예방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특히 보육정책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부모코칭이 시도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인천광역시 보육정보센터 및 천안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들 수 있다.

셋째, 대학차원에서의 부모코칭은 연구 및 교육과 실천의 2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 및 교육차원에서는 2006년 우리나라 최초로 숙명여대 부모코칭의 학문적 체계화를 위한 교육이 시도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복지 전공의 석사과정영역에서 부모-자녀 리더쉽 개발과 코칭 및 NLP이론과 코칭기법이 개설되어 운영 중인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의 코칭아카데미 과정에서 부모코칭이 코칭서비스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실천차원에서는 대학과 연계를 맺고 있는 상담소, 보육정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어린이집, 유치원을 들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남서울대학교와 백석대학교를 들 수 있다.

넷째, 학회 차원에서의 부모코칭은 2006년 우리나라 최초로 부모코칭 관련 자격과정이 개설·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가족복지학회에서 가족코치사 양성을 시작하였으며 이 과정 속에 부모코칭과 부부코칭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2007년 한국부모교육학회에서는 부모에 초점을 맞춘 부모코치사 양성을 시작하였는데 그 목표는 부모코치전문가 및 부모를 코치로 육성하는데

두고 있다. 이 두 학회에서는 양성된 가족코치와 부모코치 전문가는 전국 각 곳에서 부모코치 교육자 및 코치로 활동하게 됨으로써 부모코칭의 활성화에 건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다섯째, 인접영역 차원에서의 부모코칭은 2006년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아동코칭센터가 설립되어 부모코칭 및 교사코칭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후 관련된 기관들이 설립되어 아동코칭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아동코칭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부모와 교사 및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한 연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여섯째, 전문가와 산학협동에 의한 부모코칭은 코칭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론 및 기법을 활용하고 적용하는 바, 이러한 차원에서 산학협동으로 국내 최초의 부모코칭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학회에 보고되었다. 그 예로 이소희와 윤운성이 공동 개발하고 한국부모코칭센터와 한국에니어그램 교육연구소가 주관을 맡은 에니어그램 부모코칭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이소희, 2007).

이상을 종합해 보면 부모코칭은 연구소와 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학, 학회 등에서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발전의 초기 단계 수준으로 부모코칭의 체계화를 위한 이론적 근거 마련과 다양한 측면의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4) 부모코칭의 체계

부모코칭은 부모가 자녀로 하여금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행복한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지지하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부모코칭센터, 2005). 부모코칭은 부모가 자녀의 감정과 생각에 귀 기울이며 자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자녀가 느끼는 어려움을 부모가 경청과 질문으로 자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부모코칭

은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가족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지하는 기술로 활용되며 갈등 및 위기의 상황의 가족이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방어기술로 활용된다. 또한 발생된 가족과 자녀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보완기술로 활용되어 새로운 가족복지실천기술로서 예방 및 치료복지에 기여한다(도미향, 2008). 즉 코칭은 현재의 삶에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성장주도의 상호작용을 추구하는 지지의 개념이다(이소희, 2006). 코칭의 철학은 기본적으로 인본주의 심리학에 기반을 두고 크게 세 가지로 정의된다. 첫째, 인간은 무한한 잠재적 성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최고의 성취를 이룰 수 있다. 둘째, 인간은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를 경험하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다. 셋째, 훌륭한 코칭의 코칭을 받으면 잠재적 성장력과 문제 해결력을 더욱 신장시킬 수 있다. 이러한 코칭 철학을 기반으로 성공적인 코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코칭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코칭의 환경은 신뢰와 관계, 말 그리고 의도를 꼽는다(한국성과향상센터, 2002). 부모코칭 환경의 기본은 신뢰를 바탕으로 자녀와의 관계를 동등한 파트너 관계로 유지하면서 대화과정에서 비난이나 편견이 아닌 중립적인 언어, 객관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국내외에서 부모코칭은 독자적인 코칭영역을 가지고 있다. 비즈니스영역에서 출발한 부모코칭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코칭학 과정의 일부로 대학원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시작하였다. 기업형태의 부모코칭 기업이 설립 운영되며 부모코칭 전문가도 배출되고 있다(이소희, 서우경, 2007). 이러한 코칭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회사에 따라 고유의 모델을 사용한다. 코칭의 대화모델은 코칭이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로서 부모와 자녀 대화의 구조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대화의 목적과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한 방향 정렬을 하는데 효과적이며 명확한 단계적 과정을 보여주므로 간단하고 즉각적으로 적용하고 성과를 탐색해 볼 수 있다. 현재 CCU모델, NLPia

ANCHOR모델, GROW모델, COACH모델 등 여러 가지 코칭 모델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모델은 각 단계에 따라 여러 코칭기술들이 사용된다. 먼저, 감성을 촉진하는 기술은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다. 자녀가 표현한 것 이상의 의도, 감정, 맥락까지도 듣는 코칭 기술인 경청이다. 경청은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비판이나 판단 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이해해야 될 모든 것을 파악하기 위해 말이나 단어 이상의 맥락을 듣는 것이다. 두 번째로 사고를 촉진하는 기술은 자녀의 내부에 있는 해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질문하는 것이다. 질문은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에 대해 고찰하고 해결방법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 문제해결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이다.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한 질문을 통해 자녀가 제시한 해답에 근거하여 충분히 지지하고 격려하므로 자녀가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을 촉진하는 기술은 자녀의 행동에 대해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반응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실행력을 가지게 하는 메시징과 인정을 들 수 있다. 메시징은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적절한 시기에 간결하고 중립적인 언어로 바꾸어 말하는 것이며 인정은 칭찬을 포함하는 더 큰 의미로서 자녀의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이 세운 목표를 향해 행동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하는 기술을 말한다.

(5) 부모코칭의 내용과 방법

영유아들을 교육하는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부모역할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모역할지원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모든 부모들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부모들의 상황과 요구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어 오고 있다(이숙영, 이윤주, 정혜선, 2002; Cowan, Powell & Cowan, 1998;

Hanson & Lynch, 1995). 또한 유아교육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다수의 부모역할지원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 진행자의 자유재량권이나 프로그램 진행방법에서 융통성이 없고 목표 설정과 내용선정, 그리고 실시와 평가의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대상인 부모들을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참여율과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이원영, 배소연, 2000; 정문자, 어주경, 김혜금, 1992; Workman & Gage, 1997).

Howe와 그의 동료들(2001)은 부모역할지원이 강조하는 영유아 발달 측면을 기초하여 사회, 정서적 발달을 중시하는 부모역할지원, 신체발달을 중시하는 부모역할지원, 인지발달을 중시하는 부모역할지원, 종합적인 발달을 중시하는 부모역할지원 등으로 분류하였다. 부모의 참여 정도에 따라 부모역할지원의 방법을 분류한 이영자(2007), Schwartz(2002)는 부모의 참여 수준에 따라 가장 소극적인 형태에서부터 부모가 완전히 프로그램을 결정, 운영, 통제할 수 있는 부모참여 형태에 이르기까지 세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첫째, 최소한의 소극적인 참여 형태로 부모회, 수업참관, 면담, 가정방문 등이 있다. 둘째, 부모를 학급에 참여하여 교사 보조나 자원자로 봉사하는 것이다. 셋째, 부모가 의사결정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부모가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조직,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를 말한다. 또한 이원영, 이태영, 강정원(2008)은 강연회, 소규모 토론회, 워크숍, 자원봉사, 수업참관, 가족생사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상과 같이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부모역할지원 방법을 고려하여 부모코칭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코칭의 방법은 코치와 부모가 짝이 되어 일대일로 코칭하는 방법과 한 명의 코치와 여러 명의 부모가 짝이 되는 집단부모코칭 방법이 있다.

집단코칭방법은 소집단의 부모들과 정지적인 만남을 통해 진행되는 것으로

부모교육의 일환으로 유치원 현장에서의 접근이 유용하다.

집단부모코칭의 장점은 첫째, 다수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모코칭에 참여한 부모들이 함께 코칭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면에서 유용하다. 둘째,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친숙하고 구조화된 환경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부모코칭에 참여한 부모들이 느끼는 어려움에는 유사성이 있으므로 동료 학부모의 양육경험을 통해 서로를 코칭하면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도미향, 채경선(2006)이 정리한 부모코칭에서 나타난 부모-자녀관계 코칭의 다양한 기술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화모델의 접근이다. 대화모델이 필요한 이유는 자녀와의 틀을 제공하고 현재 초점에서 목표까지 과정전체를 예측할 수 있다. 또, 대화의 목적과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대화모델의 명확한 단계적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간단하고 즉각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부모가 자녀의 욕구, 관심, 현재의 감정상태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질 수 있는데 효과적이다. 따라서 코칭모델을 통하여 자녀와의 대화를 더욱 가치 있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아동의 특성을 발견하기 위한 부모-자녀관계의 코칭접근이다. 자녀는 각기 다른 모양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독특한 가능성과 모양을 발견하는 것을 중요한 코치의 역할이다. 이렇게 자녀의 독특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는 코칭 자료 중의 하나가 PLACE이다. PLACE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성인 혹은 자녀들의 존재 이유를 알게 하며 검사를 통해 개개인의 목표와 비전을 발견하게 하는 도구이다(정진우, 2005) 그러나 기독교뿐만 아니라 일반 부모와 자녀에게 적용해 볼 수 있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독특한 특성과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이 도구를 만들

었다(Jay Mcswain, 2002).

PLACE란 Personality, Learning, Gift, Abilities, Connect, Passion, Experiences의 처음 나오는 알파벳을 따서 지은 이름으로 다섯 영역에서 자녀의 모양을 찾는 것이다. 자녀의 성격유형 그리고 타고난 선물, 재능의 인식, 열정분야 혹은 대상, 삶의 경험 등의 각 조각들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점검해보고 파악해 보는 것이다.

셋째, 자녀의 성공을 위한 부모-자녀관계의 코칭 접근이다. 자녀들이 성공적이고 가치 있는 인간이 되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자녀들은 각 발달단계를 거치며 이뤄내야 하는 발달과업들이 있다.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지지적인 부모-자녀관계 코칭을 통하여 주요한 기술들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자녀의 성공을 위한 기술로 미셀보바에 의해 소개된 부모-자녀관계 코칭으로는 인격성공을 위한 코칭, 감성성공을 위한 코칭, 사회적 성공을 위한 코칭, 자기 동기화를 위한 코칭, 도덕적 성공을 위한 코칭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부모코칭에 대한 내용과 방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코칭은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부모역할을 증진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부모 자신이 부모역할의 과거 경험에 대한 반성과 코치와 다른 학부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부모가 자신의 삶을 변화할 수 있도록 하며 부모의 능력과 흥미 및 요구에 맞는 내용과 부모 자신의 양육경험과 관련된 내용, 생활 속에서 직면한 양육의 문제와 실생활에 관련된 내용을 선정한다.

둘째, 부모코칭은 코치와 부모가 수평적인 관계로 부모 자신의 양육과 행동에 대한 자기 성찰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부모는 스스로 자신의 부모역할 경험을 반성하고 분석할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가 코칭

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할 기회를 통해 스스로를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갖게 한다. 또한 새롭게 적용한 부모역할에 대한 과정과 결과를 코치와 다른 부모들에게 소개하고 피드백을 제공받는다.

3. 선행연구

부모코칭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른 영역의 연구들에 비해 매우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부모코칭 프로그램연구의 확충과 실천에서의 도모를 위한 연구, 부모-자녀 관계 코칭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접근할 것인지와 부모로서의 코치 역할 정립과 부모-자녀 관계 코칭의 실천적 접근 방법을 탐색하는 연구, 부모코칭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성을 알아보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선행연구들 중 부모코칭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탐색적 연구와 부모-자녀관계의 코칭기법 적용을 위한 기초연구를 선행연구로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교육에서의 코칭접근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탐색적 연구는 이소희, 서우경(2008)이 전형적인 부모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코칭접근의 효과성을 알고 부모코칭의 연구와 실천적 확산을 위한 연구로 진행하였다. 위 연구는 2004년에서 2007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국내의 부모코칭 관련 연구 및 실천동향 자료와 1987년에서 2007년 상반기까지 발표된 학술지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이론적, 실천적 두 차원의 효과성 제고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이론적 차원에서는 첫째, 일반 부모는 물론 다양한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코칭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그 효과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이러한 프로그램은 자녀 발달단계와 발달영역별 발달특성에 따

른 욕구와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또한 연계·통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는 양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는데 질적 연구를 통해 인간의 성장과 성공에 대한 내면적 욕구들이 내적 대화들로 밀도 있게 표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넷째, 코칭 효과성 검증에서 관련된 다양한 심리 및 발달 척도들이 사용되고 적합도가 높은 척도가 개발·실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 다음의 실천적 차원에서는 첫째, 전문 부모코치를 양성하고 부모코치 자격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둘째, 부모코칭 전문 기업과 센터는 물론 일반 코칭기업에서의 부모코칭파트와 대학 및 연구소 등과의 산하협력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셋째,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자녀코칭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여기에 각 단위 교육기관과 센터, 복지관 상담소 등이 그 가교 역할을 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부모-자녀 관계 코칭기법 적용을 위한 기초연구는 도미향, 채경선(2006)이 기존의 코칭관련 서적 등을 통해 부모-자녀관계 코칭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접근할 것인지와 부모로서의 코치 역할 정립과 부모-자녀관계 코칭의 실천적 접근방법 등을 탐색해보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과거의 부모역할은 보호자, 양육자, 훈육자로 충분했지만 부모-자녀관계 코칭에서의 부모역할은 견자, 연계자, 도전자, 동기부여자로서 구체화되고 확대되었다고 이야기한다. 또, 부모-자녀관계 코칭의 궁극적인 변화는 자녀가 타인에 의해 움직이는 의존형의 자녀에서 벗어나 스스로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자녀로 성장케 하며 이러한 부모-자녀 관계 속에서 부모코칭은 자녀만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도 성장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부모코칭은 단순히 기술이나 행위를 자녀에게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가치와 신념으로 관계를 맺음으로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므로

부모가 자녀를 지지하는 깊이는 부모의 잠재력과 가능성의 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위 연구는 부모-자녀관계 코칭의 실천적 접근으로 여러 측면의 다양한 기술을 통한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먼저, 대화모델을 통해 부모-자녀관계 코칭을 제안하였고 둘째는 아동특성 발견을 위한 부모-자녀관계 코칭접근으로 PLACE를 제안하였다. PLACE는 Personality(성격), Learning Gift(은사), Abilites(재능), Connect Passion(열정), Experiences(경험) 5가지 조각들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점검하고 파악함으로써 자녀가 가진 독특한 모습을 발견하고 스스로 인식하는 것을 돕는 활동이다. 셋째는 자녀들이 성공적이고 가치 있는 인간이 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발달단계에 따른 발달과업에 초점을 맞추어 부모-자녀관계 코칭 기술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코칭을 제안하였다. 긍정적 자존감과 감정 계발의 인격성공을 위한 코칭,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능력의 감성성공을 위한 코칭, 관계 형성의 사회적 성공을 위한 코칭, 목표설정능력과 인내력의 자기 동기화를 위한 코칭, 배려능력의 도덕적 성공을 위한 코칭을 부모-자녀관계 코칭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아직은 검증된 부모코칭에 대한 적절한 프로그램이 없고 인프라 기반이 약하므로 부모코칭 프로그램은 전문가들의 활발한 연구교류를 통해 부모코칭 프로그램의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관한 기초연구를 진척시켜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역할을 교육기관이 할 필요성과 바람직한 부모-자녀관계의 형성을 위해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원활하도록 돕는 코칭기법들을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치원에서의 부모코칭 프로그램의 실천적 접근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구자가 유치원에서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코칭의 적용과정은 어떠한지,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부모들의 변화는 어떠한지를 파악하고자 이루어졌다.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연구자와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을 나누고 이 과정에서 부모들이 자신의 양육방법을 반성하고 체계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의 행동과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면접할 수 있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1. 연구 참여자

1) S유치원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에서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코칭의 실천적 접근이므로 연구자가 소속된 서울시에 위치한 S유치원을 선정하였다.

S유치원은 서울시에 위치한 사립 유치원으로 1973년에 개원한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진 유치원이다. S유치원은 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갖춘 어린이다운 어린이로, 남과 함께 하는 어린이로, 스스로 행복할 줄 아는 어린이로 육성하고자 건강하고, 아름답고, 슬기롭게라는 원훈과 나 자신을 소중히, 타인을 가치롭게, 공동체를 귀하게 라는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다(S유치원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2012).

S유치원의 학급은 총 3학급으로 만 3세 1학급, 만 4세 1학급, 만 5세 1학급

으로 인가 정원은 80명이다. 그리고 오후에는 혼합연령의 종일반 2학급이 운영되고 있다. 원장, 부장교사를 비롯하여 일반학급의 각 1명의 정교사와 종일반 교사 2명이 배치되어 있어 6명의 교사와 3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S유치원의 물리적 환경은 단층의 본관과 2층의 신관 그리고 유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관에는 만 3세 학급의 교실과 만 5세 학급의 교실, 교무실, 조리실, 화장실, 세탁실이 배치되어 있다. 신관에는 만 4세 학급의 교실, 원장실, 도서관, 자료실이 있으며 본관과 신관 사이에 있는 유원장에는 유치원 교문 앞의 모래놀이장과 세면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본관 입구 오른쪽에는 텃밭과 실외영역놀이와 탈 것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

S유치원에는 등·하원을 위한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한 대의 25인승 버스가 3차레로 운행되고 있다. 오전 등원과 오후 하원, 종일반 하원 통학차량이 각각 2코스로 운영되고 있다.

S유치원에서 부모코칭을 실시하기 위한 장소로는 유아들이 명상활동을 전개하는 명상실과 만 5세 학급의 활동실을 활용하였다.

2) S유치원 학부모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연구자가 소속된 S유치원의 학부모 중에서 부모코칭의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 12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방법은 S유치원의 전체 유아 80명의 가정에 가정통신문을 통해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코칭에 대한 안내 후 참여 신청 조사지를 배부하였다.

신청조사지를 통해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코칭 연구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양부모가 함께 참여하며 6회의 실행연구를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는 가정으로 안내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6가정의 부모 총 12명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가

정은 연령별로 2가정씩 총 아버지 6명, 어머니 6명으로 총 12명이 참여하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인원	유아명(性) (유아연령)	父·母 (학력)	연령	참 여 동 기	코칭 받고 싶은 내용
1	A(男) (만 3세)	父 (대학원졸)	37	아들에게 믿음직한 멘토가 되고 싶어서	·부자간의 소통방법 ·행복한 아이가 될 수 있는 육아 태도 ·아이에게 피해야 할 아버지의 태도
2		母 (대학원졸)	36	부모 됨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싶어서	·자녀와의 원만한 상호작용 방법 ·육아를 즐기는 법 ·바른 아이 좋은 부모 되는 법
3		父 (대졸)	40	행복한 부모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자녀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부모의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4	B(女) (만 3세)	母 (대졸)	36	자녀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방법을 알고 싶어서	·부모와 유아의 상호 작용방법 ·문제행동 시 지도방법 ·행복한 부모로 가는 방법

5	C(男) (만 4세)	父 (대학원졸)	39	아내의 강압적인 권유와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서	·현재 아이의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개선해야 할 방법 ·이해와 사랑, 훈육과 규율사이의 균형 잡는 법 ·두 얼굴의 아빠가 되지 않는 법
6		母 (대학원졸)	36	우리 아이의 유치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 서로 지지하고 아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육아방법
7	D(男) (만 4세)	父 (대졸)	35	아이에게 잘하는 아빠가 되고 싶어서	바람직한 아버지 역할
8		母 (대졸)	33	자녀에게 좋은 멘토가 되기 위해서	눈높이를 맞추는 방법
9	E(男) (만 5세)	父 (대학원졸)	42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는 비법을 배우고 싶어서	좋은 부모가 되는 법
10		母 (대학원졸)	37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좋은 부모가 되는 법
11	F(女) (만 5세)	父 (대학원졸)	39	아내에게 이끌려서	뜻있게 배우고 싶다.
12		母 (대졸)	37	남편, 참여 학부모와 자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용기, 인성, 자존감에 대해서 알고 싶다.

본 연구 참여자는 부모코칭의 참여를 희망하는 여섯 가정의 부모 1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윤리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연구의 모든 이름은 모두 가명을 사용하여 익명성을 보장하였으며 면담을 통해 밝힌 참여자의 구체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만 3세 A유아의 부모

만 3세의 남아인 A유아 아버지는 37세의 대학원 졸업자로 휴대폰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을 개발하는 엔지니어 업무를 직업으로 하고 있으며 부모코칭의 참여 동기와 배우고 싶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자식에 대한 교육에 관심이 없지는 않지만 교육은 처음입니다. 자식과 소통하고 싶은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아들의 믿음직한 멘토가 되어 아들을 더 잘 이해하고 싶습니다. 또 부모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부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방법과 자기 주관이 있고 행복한 아이가 될 수 있는 육아태도를 알고 싶고 아이에게 피해야 하는 아버지의 태도에 대해 배우고 싶습니다.

A유아 어머니는 36세의 대학원 졸업자로 전업주부이며 부모코칭 프로그램의 참여 동기와 배우고 싶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저도 자식을 낳기는 낳는데 아무도 부모 됨을 가르쳐준 적이 없더라고요 그냥 부모가 되는 줄 알았는데 기르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고 울기도 많이 울면서 부모 자격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책은 아무리 봐도 모르겠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도 60분 부모나 두드려볼까 했었는데... 어디에서도 이런 교육을 찾지를 못했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래서 저는 남편과 적극적으로 부모코칭에 참여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동아리를 통해 부모와 자식 간의 상호작용기술과 육아를 즐기는 방법, 또, 바른 아이와 좋은 부모가 되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연구 참여자 A유아 부모는 아들에게 믿음직스러운 멘토가 되고 싶은 마음이지만 아들이 성장하면서 점차 자기주장이 강해 소통의 어려움을 느꼈다. 아

들과의 원활한 소통에 도움을 받을 만한 양육서와 시청물을 꾸준히 탐색하였으나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유치원에서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코칭을 통해 아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래서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코칭 연구기간 동안에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였으며 가장 일찍 오는 열정을 보여준 부모였다.

(2) 만 3세 B유아의 부모

만 3세의 여아인 B유아 아버지는 40세 대졸자로 인터넷 결제 대행 서비스 업체에서 전산개발 업무를 직업으로 하고 있으며 부모코칭의 참여 동기와 배우고 싶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자녀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지 어려운 문제인거 같더라고요. 행복아이·지혜로운 부모 부모코칭 제목처럼 아이들이 행복해 지려면 부모로서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자녀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지 도움을 받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내에게 떠밀려 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부모코칭을 통해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부모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싶습니다.

B유아 어머니는 36세 대졸자 전업주부로 부모코칭의 참여 동기와 배우고 싶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저희 아이는 어릴 적에는 말도 잘 듣고 엄마가 하는 대로 따라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자기 주장이 강해져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제가 이해하기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이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모습을 통해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을 아빠와 함께 배우고 싶습니다.

연구 참여자 B유아 부모는 자녀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바탕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과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해 알고 실천하면서 부모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싶은 마음으로 부모코칭에 참여하게 되었다.

(3) 만 4세 C유아의 부모

만 4세의 남아인 C유아 아버지는 39세의 대학원 졸업자로 현재 연구 교수로 재직 중에 있으며 부모코칭의 참여 동기와 배우고 싶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참여 동기는 아내가 강하게 권유하여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기도 합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아빠의 모습을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꾸는 방법 배워 아이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싶기도 합니다. 아이의 유치원 생활을 잘 들어 주는 아빠로, 아이와 나 자신에 대해 보다 이해하게 되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 부모코칭을 통해 아이와 신뢰하는 관계,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 현재의 문제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진단받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배우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이해와 사랑, 훈육과 규율 사이의 균형 잡는 법, 보호와 간섭, 잔소리의 원칙, 두 얼굴의 아빠가 되지 않기 위한 방법, 아이를 이해하는 방법, 아이가 아빠를 이해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C유아 어머니는 36세의 대학원 졸업자로 영어학원에서 초등학생을 파트 타임으로 지도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부모코칭의 참여 동기와 배우고 싶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저는 작년에 코칭 동아리를 2기 정도 참여했습니다. 저는 이 모임이 너무 좋으니까 TV나 책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일방적인 지식전달이고 그 지식을 통해 제가 능력껏 우리 아이에게 적용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그 내용들이 우리 아이의 예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코칭동아리는 우리 아이를 잘 아시는 선생님과 친구 부모님과 함께 우리 아이의 유치원에서 공부

를 한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쌍방향 프로그램이잖아요. 아이가 문제 행동을 보이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나 ‘60분 부모’에 나가보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얼굴이 팔리니 나갈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런 수준의 코칭을 받는 것이 저는 굉장한 행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이렇게 키워라 라는 이야기보다도 우리 아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논하고 상담하면서 배워갈 수 있다는 점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고자 합니다.

연구 참여자 C유아 부모 중 아버지의 경우 아내의 강력한 권유로 참석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 아버지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개선하고 싶고 아이에게 두 얼굴의 아버지가 아닌 일관된 자세를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서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코칭에 참여하게 되었다. 어머니의 경우에는 유치원에서 진행하는 연구이므로 신뢰도 가지만 아이의 문제 행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되었다. 또 TV 프로그램 ‘60분 부모’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도 우리 아이에게 적합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한다고 참여 동기를 밝혔다.

(4) 만 4세 D유아의 부모

만 4세의 남아인 D유아 아버지는 35세의 대학 졸업자로 현재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모코칭의 참여 동기와 배우고 싶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지난 해 아버지 코칭에 참여했었는데 더 배우고 싶고 부족한 점이 많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잘 못하는 아빠이므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아빠가 되고 싶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D유아 어머니는 33세의 대학 졸업자로 현재 전업주부로 부모코칭의 참여 동기와 배우고 싶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처음 유치원에 왔을 때에는 자녀를 대하는 저의 태도에 대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과 교회를 통해 양육의 지혜를 나누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이와의 관계 개선과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자세형성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연구 참여자 D유아 부모의 경우에는 지난 해 아버지 코칭에 대한 좋은 기억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양육의 어려움을 나누고 아이와의 관계를 개선되기를 희망하였다. D유아 부모의 경우에는 자신의 어릴 적 경험으로 감정조절이 어려워 자녀의 문제 행동에 대해 특히, 자녀의 요구와 부모의 요구가 맞지 않아 문제가 생길 때, 남매끼리 싸울 때 소리 지르는 것을 참지 못해 자주 체벌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부모로서의 양육의 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5) 만 5세 E유아의 부모

만 5세의 남아인 E유아 아버지는 42세의 대학원 졸업자로 회사원이며 부모코칭의 참여 동기와 배우고 싶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교육은 기관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주도적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눈치가 보이는 연구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저를 방임이었으나 나는 우리 아이에게 지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기 위해 우리 부모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자녀를 위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E유아 어머니는 37세의 대학원 졸업자로 전업주부이며 부모코칭의 참여 동기와 배우고 싶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작년에도 참여했었는데 올해도 기대가 되며 작년 아버지 코칭에 시간이 안 되어 아버지 동아리를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좋은 부모가 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연구 참여자 E유아 부모는 지난해 아버지 코칭 참여를 하지 못해 매우 아쉬웠고 유아기 교육의 중요성과 경제성을 알고 부모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코칭에 참여하게 되었다.

(6) 만 5세 F유아의 부모

만 5세의 여아인 F유아 아버지는 39세의 대학원 졸업자로 현재 회사원으로 부모코칭의 참여 동기와 배우고 싶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이런 프로그램이 처음이고 생소하고 아직은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와이프 손에 이끌려 왔으나 잘 참여하여 뜻있는 것을 배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F유아 어머니는 37세의 대학 졸업자로 현재 전업주부이며 부모코칭의 참여 동기와 배우고 싶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저는 작년에도 참여를 해봤는데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부가 함께 참여하게 되니 더욱 좋습니다. 사실 엄마들은 여기저기서 정보를 많이 듣지만 아빠들은 정보가 미흡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빠에게 우리 아이들에 대한 설명을 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좋은 기회를 통해 좋은 공부라 되었으면 합니다.

연구 참여자 F유아 부모는 그 동안 유치원에서 운영한 부모코칭을 참여하면서 남편이 함께 하면 참 좋겠다고 하였다. 부모코칭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지식들을 바탕으로 가정에서 개선을 하고자 할 때 이를 남편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여 남편이 함께 참여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또한 남편은 양육에 대한 관심과 정보가 부족하여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코칭에 참여하게 되었다.

3) 연구자

본 연구자는 S유치원의 원장으로 「지혜로운 부모·행복한 아이들」이라는 슬로건 아래 부모코칭을 지난 3년간 매해 4기로 총 12기수를 운영하였다. 1기수마다 6~8회의 부모코칭이 운영되었으므로 진행횟수는 총 80여회이다. 2009년에 운영된 부모코칭은 어머니를 대상으로 평일 오후에 진행되었으며 2011년 역시 꾸준히 진행되던 부모코칭 참여 어머니들의 요청에 의해 아버지 코칭이 3기 부모코칭으로 토요일에 운영되었다.

연구자는 유치원 현장에서 유치원장으로 많은 부모들을 만난다. 유치원 원장으로 만나는 대부분의 부모들을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므로 부모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으로 부모코칭을 꾸준히 실천해 오게 되었다. 부모코칭은 기존의 부모교육과는 달리 동아리 형식으로 10명이내의 참여자로 운영하였으며 코칭주제는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기, 품위 있는 부자로 키우기, 더불어 사는 아이로 키우기,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키우기, 요들배우기, 플라멩고 배우기 등 다양한 주제로 운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참여 부모들이 정해진 코칭 주제에 접근에 대한 효과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아 이에 대한 반성과 평가를 꾸준히 진행해 온 결과 부모들이 가지는 역할에 대

한 태도와 자녀와의 지도방법 등에 대한 개선이 동반되지 않아 부모들이 자녀와의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모들이 자신의 역할을 바르게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코칭 적용과정을 탐색하는 연구’를 계획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이 서로를 의지하고 부모 역할의 지혜로움을 발견하는 운영방안으로 부모들의 목소리에 최대한 귀를 기울이고 공감해 줄 수 있는 ‘부모코칭’을 탐구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코칭 적용과정을 주체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하게 되었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유치원에서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코칭 적용과정에 대한 탐색으로 부모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녀에게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무엇이며 부모의 어려움을 돕는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부모코칭의 운영을 계획하는 연구준비단계,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코칭을 적용하는 연구실행단계, 부모코칭 적용을 통한 과정과 부모의 변화양상을 분석하는 연구평가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연구준비단계 기간은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이며 내용은 연구주제와 관련된 부모코칭관련 학술지, 연구논문, 학위 논문 등의 문헌고찰, 선행연구 분석, 설문지를 통해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코칭의 구성 및 연구 참여자 선정으로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코칭의 연구 절차를 수립하였다.

연구실행단계 기간은 2012년 5월부터 7월까지 진행 되었으며 그 내용은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코칭의 적용과정 6회의 실행으로 진행되었다.

연구평가단계 기간은 2012년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그 내용은 부모코칭의 적용과정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부모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 일정 및 실행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일정 및 실행 절차

연구절차	기간	실행절차
<연구계획 및 준비>		
연구준비단계	1단계	2012. 1. ~ 2. ·연구주제 관련 선행연구 분석 ·연구 절차 수립
	2단계	2012. 2. ~ 4. ·문제인식 및 해결방안 모색 ·부모코칭 설문지를 통한 연구 참여자 선정 ·부모코칭관련 문헌고찰을 통해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코칭 적용과정의 구성
연구실행단계	<해결방안 실행>	
	3단계	2012. 5. ~ 7. ·부모코칭의 적용 및 평가
연구평가단계	<적용에 대한 분석 및 평가>	
	4단계	2012. 6. ~ 7. ·적용평가 : 참여 학부모의 평가분석 (학부모 면담, 평가지, 부모 저널) ·연구자 저널분석 ·연구 자료 분석
5단계	2012. 7. ~ 12.	<논문작성> ·적용 평가와 자료 분석을 통한 글쓰기

1) 연구준비단계

본 연구준비단계는 연구자가 부모코칭 관련 선행 연구를 분석하고 연구자의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S유치원에서 실행한 부모코칭을 위한 동아리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부모가 동시에 참여하는 부모코칭의 필요성으로 연구절차를 수립하였다.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코칭을 실시하기 위하여 S유치원 학부모들의 부모코칭에 대한 설문지를 통해 부모코칭의 현황과 악과 부모의 요구조사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부모코칭 실행을 위한 설문조사지는 배재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조사용 설문지(오영희, 1994) 36문항과 한국 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의 부모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에 대한 실태조사지(소지영, 1999)에서 24문항,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의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설문지(설길재, 2003) 9문항과 본 연구자가 작성한 문항을 포함하여 부모코칭 프로그램의 실행에 대한 설문지를 재구성되었다. 부모코칭 실행을 위한 설문지는 총 160부가 배부되고 이 중 109부가 회수되었으며 결과 및 해석은 아래와 같다.

(1) 부모코칭의 필요성

표 3에 따르면 응답자 전체 109명 중 부모코칭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으로 ‘필요하다’가 69명, ‘보통이다’가 31명, ‘필요 없다’가 2명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코칭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5.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 부모코칭의 필요성

N=109

번호	내 용	n(%)
1	필요하다.	69명(75.21%)
2	보통이다.	31명(33.79%)
3	필요 없다.	2명(2.18%)
4	무응답	7명(7.63%)

(2) 부모코칭이 필요한 이유

표 4에 따르면 부모코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는 ‘올바른 아동관을 가지고 자녀교육을 하려면 부모들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가 56명,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가 36명, ‘유치원에서의 교육과 가정에서의 교육이 일치해야하기 때문이다’가 24명, ‘유치원에서의 하는 일들을 부모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가 18명, ‘다양한 지식을 제공 받고 부모들의 교육을 높여야할 필요가 있다’가 7명, 무응답이 0명 순이며 부모코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중복답변은 32명으로 나타났다. 부모코칭이 필요한 이유로 올바른 아동관을 갖고자 하는 응답이 39.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 부모코칭이 필요한 이유 N=109

번호	내 용	n(%)
1	올바른 아동관을 가지고 자녀교육을 하려면 부모들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56명(39.71%)
2	다양한 지식을 제공 받고 부모들의 교육을 높여야할 필요가 있다.	7명(4.96%)
3	유치원에서의 하는 일들을 부모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18명(12.76%)
4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36명(25.53%)

5	유치원에서의 교육과 가정에서의 교육이 일치해야하기 때문이다.	24명(17.02%)
6	무응답	0명(0%)
7	중복응답	32명(22.69%)

(3) 유아기 자녀에 대해 궁금한 점

표 5에 따르면 유아기 자녀에 대해 궁금한 점에 대한 응답으로는 ‘생활태도’가 35명, ‘성격문제’가 21명, ‘친구문제’가 18명, ‘좋지 않은 버릇’이 16명, ‘지적능력 계발의 문제’가 10명, ‘형제간의 질투심’이 8명, ‘자녀의 질문’이 7명, ‘칭찬과 비판’이 5명, ‘성교육’과 ‘예능 계발문제’가 각각 3명, ‘기타’가 1명 순이며 중복답변이 11명으로 나타났다. 유아기 자녀에 대한 궁금한 점으로는 생활태도의 응답이 29.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 유아기 자녀에 대해 궁금한 점

N=109

번호	내 용	n(%)
1	친구를 사귀는 문제	18명(15%)
2	성격문제	21명(17.5%)
3	생활태도	35명(29.16%)
4	좋지 않은 태도	16명(13.33%)
5	성교육	3명(2.5%)
6	지적능력 개발문제	10명(8.33%)
7	예능 개발 문제	3명(2.5%)
8	형제간의 질투심	8명(6.66%)
9	칭찬과 비판	5명(4.16%)
10	기타	1명(0.83%)
11	중복응답	11명(9.16%)

(4) 유아기 자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방법

표 6에 따르면 유아기 자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다른 부모들에게 물어보거나 의논을 한다’가 49명, ‘전문서적이나 잡지를 본다’가 35명, ‘유치원 선생님 등과 같은 전문가에게 상담한다’가 19명, ‘기타’가 11명, ‘그냥 내버려 둔다’가 2명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기 자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다른 부모에게 물어보거나 의논을 한다’가 42.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므로 또래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유아기 자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방법 N=109

번호	내용	n(%)
1	전문서적이나 잡지를 본다.	35명(30.17%)
2	다른 부모들에게 물어보거나 의논을 한다.	49명(42.24%)
3	그냥 내버려 둔다.	2명(1.72%)
4	유치원 선생님 등과 같은 전문가에게 상담한다.	19명(16.37%)
5	기타	11명(9.48%)
6	중복응답	7명(6.03%)

(5) 자녀 교육에 대한 가정과 유치원의 관계성에 대한 의식

표 7에 따르면 자녀 교육에 대한 가정과 유치원의 관계성에 대한 의식으로는 ‘가정과 유치원은 교육에 대해 상호관계를 대등하게 가져야 한다’가 78명으로 71.55%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가정이 자녀 교육의 중심이 되고 유치원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가 21명, ‘유치원이 유아 교육의 중심이 되고 가정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9명, 무응답이 1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자녀 교육에 대한 가정과 유치원의 관계성에 대한 인식 N=109

번호	내 용	n(%)
1	가정이 자녀 교육의 중심이 되고 유치원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21명(19.26%)
2	유치원이 유아 교육의 중심이 되고 가정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9명(8.25%)
3	가정과 유치원은 교육에 대해 상호관계를 대등하게 가져야 한다.	78명(71.55%)
4	유치원이 교육을 일임해야 한다.	0명(0%)
5	무응답	1명(0.91%)

(6) 부모코칭 활동 희망 요일

표 8에 따르면 부모코칭의 운영 희망 요일은 토요일이 69명 6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요일이 10명, 수요일일 9명, 금요일이 8명, 목요일일 5명, 월요일과 화요일이 각각 3명, 무응답이 2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부모코칭 활동 희망 요일

N=109

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무응답
n(%)	3명 2.75%	3명 2.75%	9명 8.25%	5명 4.58%	8명 7.33%	69명 63.3%	10명 9.17%	2명 1.83%

(7) 부모코칭 활동 희망 시간

표 9에 따르면 부모코칭 활동 희망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가 61명 55.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오후 4시부터 6시가 25명, 저녁 6시에서 8시가 14명, 기타가 7명, 무응답이 2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부모코칭 활동 희망시간

N=109

시간	10:00~12:00	16:00~18:00	18:00~20:00	기타	무응답
n(%)	61명 55.96%	25명 22.93%	14명 12.84%	7명 6.42%	2명 1.83%

부모코칭을 위한 설문지 분석에 따라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부모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부모코칭의 내용으로는 자녀에 대한 바람직한 양육관, 자녀와의 소통기술, 유아기 자녀에게 지도해야 할 내용 등을 궁금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행일은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코칭의 실행은 2012년 4월부터 7월 중 토요일 오전으로 총 6회를 진행하게 되었다.

2) 연구 실행 단계

본 연구는 부모코칭을 운영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매 회기마다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매 회기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적용하면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 해석, 평가의 과정을 반복하였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연구의 과정을 반복하여 적용함으로써 부모의 역할을 개선하고 부모역할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Mills(2005)의 변증법적 나선형 연구 모형을 바탕으로 부모코칭의 적용방안 연구는 그림 2와 같다.

연구 참여자의 인식 조사 및 분석



연구 참여자의 인식 분석에 따른 문제 해결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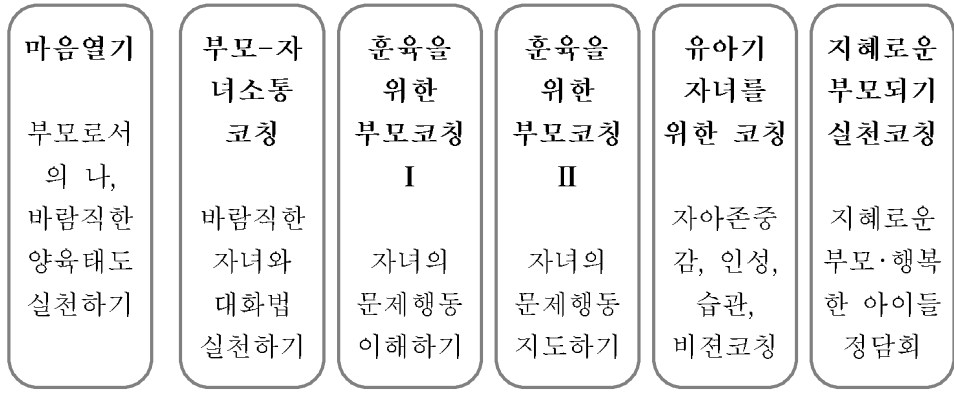
- 바람직한 부모 역할 이해의 양육태도 알기
- 자녀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바람직한 대화법 알기
- 훈육을 위한 자녀와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알기
- 유아기 자녀에게 반드시 필요한 훈육내용 알기
- 지혜로운 부모 되기 실천 코칭



부모코칭 적용을 위한 문헌조사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코칭 적용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코칭의 적용과정 평가

<그림 2>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코칭 적용과정

연구자는 본인이 속한 S유치원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코칭에 대한 적용을 2012년 5월부터 시작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코칭의 참여 동기와 배우고자 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6회의 실행과 평가의 반복과정을 통해 수정하면서 실시되었다.

부모코칭의 구성은 도입, 전개, 마무리와 가정활동으로 운영되었으며 도입활동으로는 주제에 따른 한 줄 토의와 경험나누기가 진행되었다. ‘한 줄 토의’는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주제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고 주제와 관련된 학부모들의 생각을 한 마디로 요약하여 의견을 나누는 활동이며 ‘경험나누기’는 주제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며 다른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주제에 대한 바람직한 방법을 스스로 느껴보는 활동이다.

전개활동으로는 지식나누기와 역할극, 정보나누기, 스스로 평가의 활동이 전개되었다. ‘지식나누기’는 주제에 대한 일반적인 또는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여 부모로 하여금 인식의 기반을 확대시키는 활동이며 ‘역할극’ 활동은 자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자녀의 역할을 극놀이로 수행해봄으로써 자녀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의 양육태도의 변화를 도모하는 활동이다. ‘정보나누기’는 연구 참여자들이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지식과 추가적인 정보를 필요로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 지역사회 센터, 도서관, 인터넷 사이트, 도서 등을 소개하는 활동이다. ‘스스로 평가’는 연구 참여자들이 주제에 대하여 이미 인식하고 있는 사전지식이나 경험, 사고나 행동의 패턴을 스스로 평가해봄으로써 주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활동이다. 스스로 평가는 연구 참여자들이 주제에 대하여 이미 인식하고 있는 사전 지식이나 경험, 사고나 행동의 패턴을 스스로 평가해봄으로써 주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활동이다.

마무리활동으로는 격려나누기와 평가지 작성이 운영되었다. ‘격려나누기’는 주제와 관련된 동영상 감상을 하면서 지혜로운 부모 역할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다독이는 활동이며 ‘평가지 작성’은 부모코칭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지면으로 작성해 보는 활동이다. 평가지 작성에서 나타난 연구 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모코칭의 개선자료로 활용하였다.

가정활동으로는 행복한 아이를 위한 실천, 부모저널 활동이 진행되었다. ‘행복한 아이를 위한 실천’은 부모코칭의 내용을 실제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운영해 보는 활동이며 ‘부모저널’은 행복한 아이를 위한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보고 부모로서의 자신을 보살피는 내용과 배우자에게 보내는 격려를 기술해보기도 하였다.

부모코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부모코칭 프로그램의 내용

주차	내 용
도입	·소개하기 : 연구 참여자의 본인 소개 및 참여 동기 ·한 줄 토의 : 부모란?
1차: 마 음	·평가 : 나의 양육 태도 ·지식나누기 : 양육태도의 종류
열 기	·격려나누기 : 동영상 감상 「늙은 아버지와 아들」
가정활동	·행복한 아이를 위한 실천 : 행복한 가정활동 ·부모저널 : 보살핌을 제공하는 부모로서의 자신을 보살피기

주차	내 용	
2차: 부 모 자 녀 소 통 코 칭	도입	·경험 나누기 : 행복한 가정활동 ·유익한 정보 : 자녀가 듣고 싶은 말
	전개	·평가 : 아이와 대화할 준비도 ·지식나누기 : 자녀와의 바람직한 대화법
	마무리	·격려나누기 : 동영상 감상 「어느 아버지의 글」
	가정활동	·행복한 아이를 위한 실천 : 의사소통의 걸림돌 ·부모저널 : 배우자에게 보내는 격려
3차: 훈 육 을 위 한 부 모 코 칭 I	도입	·경험나누기 : 의사소통의 걸림돌
	전개	·지식나누기 : 적극적인 의사소통 5단계 ·역할극 : 이럴 때 이렇게
	마무리	·격려나누기 : 동영상 감상 「부모의 자리」 ·평가 : 프로그램 평가
	가정활동	·행복한 아이를 위한 실천 : 적극적인 의사소통의 5단계
4차: 훈 육 을 위 한 부 모 코 칭 II	도입	·경험나누기 : 적극적인 의사소통의 5단계
	전개	·지식나누기 : 자녀에게 선택권 주기
	마무리	·격려나누기 : 동영상 감상 「자녀를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끌어라.」
	가정활동	·행복한 아이를 위한 실천 : 자녀에게 선택권 주기

주차	내 용	
5차: 유아기 자녀를 위한 코칭	도입	·경험나누기 : 자녀에게 선택권 주기
	전개	·Work Book : 좋은 부모의 조건 ·정보나누기 : 동영상 감상 「자아존중감」 ·지식나누기 : 유아기 자녀에게 지도해야 할 내용
	마무리	·격려나누기 : 동영상 감상 「자녀는 부모에 따라 변한다.」
	가정활동	·부모저널 : 미래일기
6차: 지혜로운 부모 되기 실천 코칭	도입	·경험나누기 : 미래 일기 소개하기 ·Work Book : 지혜로운 부모되기 실천 서약서
	전개	·지혜로운 부모·행복한 아이들 부모코칭 정담회 축하공연, 지혜로운 부모되기 실천 서약서 낭독, 가족셔츠 만들기, 축하 파르페 만들기, 연구 참여자의 기타연주 공연
	마무리	·평가: 부모코칭 평가 ·기념사진촬영 ·감사의 인사

3) 연구 평가 단계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코칭의 연구기간 동안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부모코칭 적용과 관련한 저널을 연구 참여자들이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이 5차례가 이루어졌으며 2회의 평가

지를 작성하였다. 이를 통해 형식적, 비형식적 반응을 수집하였다. 적용계획을 위한 설문지와 면담, 연구실행에 대한 부모들의 반응 연구 참여자의 저널, 연구자의 실행자료, 사진 및 비디오 촬영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각 적용과정의 변화에 대해 정리하였다. 연구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지도교수와 연구 참여자의 검증 후 글을 작성하였다.

글쓰기 시점은 강현석(2007)의 연구에서 나타난 인칭 개념을 적용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연구자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기술된 것으로 보이나, 연구자가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는 과정을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글쓰기에서의 정치적, 윤리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최대한 사실적으로 기술하였다.

4. 자료 수집

연구기간 동안 수집된 자료는 부모코칭 연구를 위한 조사지, 현장노트, 참여 관찰, 심층면담, 사진 및 동영상, 연구 참여자의 저널, 평가지이다.

1) 부모코칭을 위한 조사지

부모코칭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가정에서 느끼는 부모역할의 어려움을 돕는 연구를 계획하기 위해 부모코칭을 위한 조사지를 통해 이를 분석하였다. 조사지의 응답 결과를 토대로 연구 참여자에게 적합한 적용방안을 마련하였다.

2) 현장노트

현장노트는 부모코칭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간과 공간으로 포함된 상황과 면담, 대화, 행동의 기술, 연구자의 느낌, 질문, 할 일 등을 기록한 노트이다. 현장노트는 다른 자료들을 분석할 때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총괄적인 노트라고 할 수 있다(김경미, 2009). 현장노트는 부모코칭이 진행되기 전에 부모코칭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으로 1/4, 부모코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내용으로 2/4, 연구자의 의문이나 느낌, 변경내용 등을 1/4로 칸을 나누어 적어 놓았다. 본 현장노트는 연구과정 중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적어 놓았기 때문에 이후 글쓰기와 분석을 할 때 도움이 되었다.

3) 참여관찰

참여 관찰은 조직의 문화와 특정집단의 생활상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자연 그대로 일어나는 상황과 활동을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이다(이용숙, 2005).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부모코칭을 진행하였으므로 연구자가 속한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완전한 참여 형태로 관찰하였다. 부모코칭은 연구 참여자들이 가정에서 느끼는 부모역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면서 계속적으로 관찰하였고 연구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도하고 관찰한 내용을 현장노트에 기록하거나 동영상 촬영으로 기록하였다.

4) 심층면담

심층면담은 질적연구의 대표적인 연구방법 중의 하나로 ‘연구 참여자로부터 정보나 의견이나 신념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언어적 의사교환, 목적을 가진 대화’를 뜻한다. 대화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우리의 지각과 해석을 획득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기본적인 인간 상호작용의 방식이라는 점을 인정했을 때 대화가 전제되는 면담은 제보자들의 관점과 생활세계, 그들의 의식, 주관성, 감정 등을 이해하기 위한 자연스럽고 목적적인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김영철, 2006).

본 연구 1차 활동에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참여의 동기와 부모코칭을 통해 얻고 싶은 효과에 대해 면담을 하였고 이후에는 가정에서 겪는 부모역할의 어려움에 대해 면담을 하면서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질문하고 개선 방향을 안내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은 부모코칭이 진행되는 매회 연구 참여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표 11> 심층면담의 방법 및 내용

면담	면담 방법	면담 내용
1차 면담 (2012.05.12.토)		·연구에 대한 이해와 연구 참여 동기
2차 면담 (2012.05.26.토)		·일상생활 속에서 자녀양육의 어려운 점
3차 면담 (2012.6.09.토)	반 구조화된 형식의 심층면담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경험
4차 면담 (2012.06.23.토)		·적극적인 의사소통 5단계 실천 경험
5차 면담 (2012.07.07.토)		·자녀에게 선택권 주기 실천 경험 ·유아기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

5)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사진과 동영상 촬영은 언어적 기술과 진술이 제공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한 보다 근접하고 확실한 장면 증거, 정보를 제공해 준다. 현장에서 오감을 사용한 즉각적인 관찰이 갖는 제한점을 사진과 비디오 녹화로 보완하여 지나가 버린 자연사건과 현상을 기록하여 연구자가 다시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다(이용숙,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도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중요한 자료수집방법으로 활용하였다. 부모코칭을 진행하면서 가정에서 겪는 부모역할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한 역할극 활동과 어려움을 개선하는 방법을 실천하고 이를 소개하는 활동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부모코칭의 활동 참여와 그 효과를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자료는 연구 실행에 따른 내용을 분석하여 총체적인 맥락에서 활동 양상과 해결방안으로서의 전략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재해석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이 반응과 참여 과정을 확인하면서 다음 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활용하는 좋은 자료가 되었다.

6) 저널

저널쓰기는 유아 교사들이 자신의 실천행위에 대해 개인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록하는 다양한 형태의 글쓰기를 의미하며 타인과의 담론을 통해 교수·학습에 대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박은혜, 2002).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부모코칭을 실행하면서 저널쓰기를 하였다. 저널은 부모코칭이 진행되는 6회 동안 꾸준히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쓴 저널은 부모코칭 1차가 시작되기 전에 부모코칭의 참여 동기, 배우고 싶은 내용, 부모관에 대해 기록하였고 1차를 마치고 나서는 행복한 가정활동의 사례를 기록하였다. 2차와 3차 부모코칭을 마치고는 가정에서 부모역할의 어려움을 기록하고 적극적인 의사소통의 실천 방법을 기록하였다. 4차 부모코칭을 마치고 자녀에게 선택권을 준 실천사례를 기록하였다. 5차 부모코칭을 마치고 연구 참여자 가정의 미래일기를 작성해 보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매 회 진행된 저널쓰기를 통해 지혜로운 부모 역할과 어려움을 개선하는 방법을 실천하면서 반성적 사고를 하고 해결책을 고안하는 좋은 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저널쓰기는 연구 참여자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가정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7) 부모코칭 평가

부모코칭의 실행 후 연구 참여자들은 2회의 평가지를 작성하였다. 평가지 작성 시기는 부모코칭이 진행된 중반 3회와 마지막 부모코칭 6회를 마치고 진행되었다. 첫 번째 부모코칭의 평가를 통해 부모코칭의 구성에 대한 의견과 실천에 대한 어려움 등을 분석하게 되었으며 두 번째 부모코칭의 평가를 통해 본 실행연구의 운영과 내용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의견을 분석하는 자료가 되었다.

본 실행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표 12와 같다.

<표 12> 수집한 자료

자료목록	수집기간	수집한 자료
조사지	2012. 2. ~ 4.	부모코칭 연구를 위한 조사지 총 160부 배부, 109부 회수

자료목록	수집기간	수집한 자료
참여 관찰		총 6회의 부모코칭 참여 관찰
심층 면담	2012. 5. ~ 7.	부모코칭을 통한 공개 심층면담 5회
저널		연구 참여자가 쓴 저널 12부
문서수집	2012. 2. ~ 9.	부모코칭의 계획안 및 평가, 현장 노트, 연구 참여자에게 배부된 인쇄물, 부모코칭 중에 사용된 동영상 및 도서 등

5.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연구기간동안 수집된 조사지, 참여 관찰, 심층면담, 부모코칭의 녹화 동영상과 전사본, 프로그램의 관련문서, 연구 참여자의 저널, 부모코칭 계획안, 평가지, 현장 노트 등을 가지고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유치원에서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코칭의 적용방안을 위해 부모코칭 연구를 위한 조사지, 참여 관찰, 심층면담, 연구 참여자의 저널 등의 자료를 통해 적합한 실행방안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연구자는 부모코칭에서 인식하게 되는 적용방안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들을 정리하기 위해 저널을 작성하였으며 이 저널의 반성적 사고를 통하여 적용방안의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부모저널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적어주는 코멘트를 실행 자료와 함께 기록하고 정리하였으며 코멘트의 내용 중 반영이 가능한 부분

은 다음 실행에 반영하거나 수정 후 반영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연구자는 연구가 실행되는 동안 자료 수집과 평가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실행방안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발견되면 다음 실행을 수정하여 실행하였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료를 부호화하고 분석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부모코칭의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연구 참여자들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변화 과정은 녹화자료를 전사한 것, 심층면담,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저널, 사진자료, 평가지 등을 의미상 같은 자료끼리 부호화한 후 유목화하여 범주를 만들었다. 연구 참여자의 저널이나 형식적, 비형식적 반응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실행과정에서 의미 있게 나타난 연구 참여자의 변화와 반응 등을 표시하고 메모하면서 연구문제와 관련된 내용의 공통되는 부분들을 유목화하고 분류한 후 부호화 범주를 표기하고 코딩하였다. 그리고 작성된 범주에 따라 적합한 사례를 추출하고 분류된 결과들을 해석하고 정리하였다.

6. 자료의 신뢰성 확보 및 윤리적 고려

1) 자료의 신뢰성 확보

질적 연구의 타당도 작업이란 사실의 발견이나 궁극적인 대답을 추구하기보다 중요한 요소들을 좀 더 풍부한 해석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다(Wolcott, 199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에서의 신뢰성 확보방안을 위하여 삼각 측정법, 연구 참여자에 의한 연구 결과의 평가, 심층적 기술, 다른 동료 연구자들과의 논평, 자기반성 과정으로 진행하여 질적 연구에서 가질 수 있는 우

연성이나 편협한 주관성을 배제하도록 하였다(Merriam, 1998).

(1) 삼각측정법

본 연구는 유치원에서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코칭을 실행하면서 부모들이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탐구하고 그 역할을 실천하는 경험을 의미있게 기술하고 분석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해석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면담, 사진촬영, 동영상 녹화, 문서수집, 저널 등의 다양한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2) 심층적 기술

심층적 기술은 설명할 대상에 대하여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독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말한다(Denzin,1997). 따라서 본 연구자는 세밀한 묘사를 위해 가능한 현장노트에 자세한 내용을 남기고자 노력하였으며 구체적인 묘사를 위해 동영상 자료로 부모코칭 프로그램의 맥락적 정보와 상황 등을 보다 자세히 기술하려고 노력하였다.

(3) 지도교수 및 동료 연구자들의 논평

연구자의 지도교수와 동료 연구자의 조언과 비평, 대화, 새로운 견해를 제시 받음으로써 연구자의 편견을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4) 자기 반성적 과정

자기반성의 과정이란 부모코칭의 실행과정에서 연구자가 함께 참여하면서 일어나는 사실과 느껴지는 감정 등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연구자 자신의 견해가 객관화 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자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편견이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연구 참여자들의 의미를 주

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자 하였다.

2) 윤리적 고려

윤리적인 결정은 연구의 어떤 한 단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과정 전체에 걸쳐 일어난다. 여기서 윤리가 구상단계의 한 부분으로 논의되는 것은 연구의 맨 처음 단계부터 최종보고까지 윤리적인 질문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김미경, 2009). 연구의 시작 단계부터 연구자는 모든 연구 참여자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먼저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 전 과정을 설명한 뒤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연구 참여자들로 선정하였다. 또, 연구 참여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참여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연구 참여자와 관련된 자료는 기밀 유지됨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과정 중 면담이나 대화 내용, 녹취 및 동영상 자료도 익명성이 보장됨과 연구가 끝난 후 자료는 모두 파기될 것임을 설명한 후 녹음 전에 연구 참여자들에게 동의를 얻었다. 또한 참여자들이 연구에 참여하면서 보여 준 저널이나 자료에 참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실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면서 참여자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갔다.

IV. 결과 및 해석

본 연구는 부모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을 알아보고 유치원에서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코칭을 적용과정을 마련한 후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았다.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유치원에서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코칭의 적용과정

본 연구는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들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코칭 적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연구자는 부모코칭을 5월부터 7월까지 6회에 걸쳐 실행하였다. 매 회기 활동은 도입-전개-마무리 과정을 거쳐서 실시되었다. 부모코칭의 진행은 마음열기, 부모-자녀의 소통 코칭, 훈육을 위한 코칭 I, 훈육을 위한 코칭 II, 유아기 자녀를 위한 코칭, 지혜로운 부모되기 실천코칭의 순서로 6회 활동을 실시하였다.

<표 13> 부모코칭의 실행

회차	주제	내용
1차	마음열기	·자기소개와 참여 동기 및 자신의 양육태도 파악하기 ·2차 실행 방안 모색
2차	부모-자녀 와의 소통코칭	·일상생활 속에서 자녀와의 어려웠던 경험을 나누고 자녀와의 바람직한 대화법 알기 · 3차 실행 방안 모색

3차	훈육을 위한 부모 코칭 I · 자녀의 문제 행동을 성공적으로 훈육하는 방법을 알기 · 4차 실행 방안 모색
4차	훈육을 위한 부모 코칭 II · 자녀의 문제 행동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기 · 5차 실행 방안 모색
5차	유아기 자녀를 위한 코칭 · 유아기에 지도해야 할 내용을 알기 · 6차 실행 방안 모색
6차	지혜로운 부모 되기 실천 코칭 · 지혜로운 부모되기 실천 서약서 · 지혜로운 부모·행복한 아이들 부모코칭 정담회

1) 마음열기

부모코칭을 지난 3년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준비하는데 부담감이 높았다. 연구 참여자로 부모가 함께 참여한다는 점과 코칭의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의 어려움을 도와야 한다는 점에 대한 고민이 컸다. 이러한 고민들을 안고 부모 코칭의 순서와 절차를 구성하였다. 부모코칭은 그 순서도 중요하지만 연구 참여자가 느끼는 어려움을 돕도록 적절하게 적용방안을 구성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부모코칭을 준비하기 위해 가장 먼저 그 동안 실천했던 부모코칭의 평가와 자료를 검토하였다. 지난 3년간의 부모코칭의 자료를 검토하면서 참으로 많은 내용을 운영하였는데 그 효과는 얼마나 있었을까라는 자문을 하면서 부모코칭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부모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기 시작하였다. 부모를 동시에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을 찾기는 쉽지 않았지만 부모코칭에 대

한 단계 및 실행에 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적합한 적용절차를 마련하였다. 부모코칭의 적용절차에 따라 먼저 유치원 전체 가정에 부모코칭 실행연구에 대한 예비조사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부모코칭이 필요한 이유 및 유아기 자녀에게 궁금한 점, 실행희망요일과 시간을 선택하여 부모코칭에 대한 참여 신청지를 배부하였다. 참여 신청지를 배부할 때에는 참여기준으로 반드시 양부모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것과 6회의 실행연구를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는 가정만 참여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연령별로 두 가정씩 즉 만 3세 두 가정, 만 4세 두 가정, 만 5세 두 가정으로 아버지 6명, 어머니 6명 총 12명의 연구 참여자가 선정되었다. 부모코칭의 주제는 1차 부모코칭에 참여한 부모들의 참여 동기와 배우고 싶은 내용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부모코칭을 통해 배우고 싶은 내용은 부자간의 소통, 자녀와의 원만한 상호작용, 문제 행동의 지도, 용기, 인성,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부모의 역할, 행복한 부모로 가는 법,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 서로 지지하고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는 육아방법, 좋은 부모가 되는 법 등을 이야기하였다. 연구 참여자 부모들이 배우고 싶은 내용을 중심으로 부모코칭의 주제를 마음열기, 부모-자녀의 소통 코칭, 훈육을 위한 코칭 I, 훈육을 위한 코칭 II, 유아기 자녀를 위한 코칭, 지혜로운 부모되기 실천코칭으로 선정하였다.

2012년 5월 12일 토요일 1차 부모코칭이 있는 날이다. 연구 참여자들이 처음 진행하는 활동에 대한 어색함을 해소하기 위해 유치원을 들머리는 입구에 있는 바깥놀이터에서부터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약속된 시간 10시 이전에 모두 도착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자녀들은 유치원에서 별도로 계획한 활동에 참여하였다. 부모코칭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활동실에 들어선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이름표를 찾아 달고 아직은 어색한 기운

으로 인사를 나누고 간식도 나누었다. 간식은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먹고 더 먹을 수 있도록 출입구 옆으로 준비하였으며 준비된 간식은 먹고 싶은 만큼 자리로 가져와 먹도록 하였다. 간식을 나누고 난 후 연구 참여자들에게 참여에 대한 고마움의 인사와 앞으로 운영될 부모코칭의 방법에 대해 소개하였다. 부모코칭의 실행방법에 대한 소개 후 연구 참여자들의 참여 동기 및 부모상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연구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부모에 대한 생각을 5자로 지어 말하고 그에 따른 부연설명으로 부모에 대한 생각을 표현해 보았다. 연구 참여자들의 부모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부모는 **‘알을 깨고 나온 사람’**인 것 같아요. 알에서 나오기 전에는 나 혼자서 알아서 살아가면 되는데 아이가 생기면서부터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저를 포기하고 제 인생은 없고 아이를 위한 사람으로 알을 깨고 나오는 것 같아요.

(만 3세 A유아 어머니, 2012. 5. 12)

사실 아이가 어릴 때에는 생각이 달랐지만 아이가 커 가면서 아이와의 소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들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인식이 좀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는 **‘인생의 등대’** 같아요. 등대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저는 항상 밝혀주고 어디인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의미의 부모이고 싶어요.

(만 3세 B유아 아버지, 2012. 5. 12)

‘선택받은 이’라고 생각해요. 처음 아이를 낳고 돌까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계획된 임신이 아니어서 갑자기 닥친 변화가 힘들었어요. 아이가 뜻대로 되지 않아 힘들고 엄청 힘들고 왜 왜 이 아이가 왜 지금 왔을까? 고민하다가 어느 정도 지나보니, 아이를 통해 제가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 아이가 나에게 온 것이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유치원이니까 모두 아이가 있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를 낳아서 부모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부여받지만 축복을 받은 선택 받은 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 4세 C유아 어머니, 2012. 5. 12)

‘아이들의 건전지’이다. 자식들이 성장하면서 멈추지 않도록 에너지가 되어 주어야 할 것 같아요.

(만 5세 F유아 아버지, 2012. 5. 12)

연구 참여자들의 부모상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 보면 부모는 자식에게 희생하면서 아이들의 인생에 좋은 모델로서 비전을 제시하는 존재라고 인식하였다. 또, 일상생활에서 겪는 부모역할의 어려움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고 부모로서 갖게 되는 특별함에 감사하다는 의견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부모에 대한 생각을 나누면서 부모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는데 연구 참여자들이 이야기한 부모에 대한 생각은 대부분은 이상적인 부모상이었다. 연구 참여자 부모들이 이야기한 부모역할과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역할의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연구 참여자의 양육태도체크리스트를 진행해 보았다. 양육태도검사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양육태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자기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부모양육태도검사(PAT)는 나사렛 대학교 임호찬 박사가 표준화 단계를 거쳐 개발한 부모양육태도검사(PAT)를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양육태도검사 결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격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하고 바람직한 부모역할에 대해 궁금해 하였다. 다양한 양육태도 중 가장 바람직한 양육태도는 무엇이며 자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에 대한 지식을 나누며 연구 참여자들은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더불어 연구 참여자들은 실제적인 접근을 하기 시작하였다. 일상생활 속의 문제 상황 시 바람직한 양육태도에 따른 상호작용은 어떠한지 궁금해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 속에서 발생했던 문제 상황들과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소개하였다. 연

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일상생활 속의 경험한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밥을 먹을 때 엄마, 아빠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우리 아이는 “조용히 밥 먹자.”라고 이야기 하며 우리 부부의 대화를 방해합니다. 아이의 반응이 예의바르지 못하다는 생각에 아이에게 말하는 태도를 지도하면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지 않습니다. 나중에 아이의 표정을 살펴보면 적절한 의사소통이 아니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애할지 몰라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자꾸 같은 방식으로 아이를 대하고 아이와 함께 식사하는 것이 힘듭니다.

(만 3세 A유아 아버지)

저녁에 양치질 하는 것을 자꾸 미룹니다. 양치질을 하자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양치질을 미루다가 욕실에 들어가면 물장난을 하거나 양치질을 대충 대충하며 시간만 보냅니다. 그러면 아이의 잠자리 시간이 늦어지고 나도 피곤한데 쉴 시간이 없어서 자꾸 짜증이 나고 아이를 억압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 3세 B유아 아버지)

우리 아이는 놀이동산에 가면 집에 오려고 하지 않아요. 늦은 시간이 되고 피곤에 잠이 와도 집에 가려고 하지 않아 항상 억지로 아이를 울리며 데려 오게 되요.

(만 3세 B유아 어머니)

연구 참여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한 어려움은 식사예절,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기본생활습관지도 등이었다. 하지만 문제 상황에 대해 경험을 들어보면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의견을 수용하기보다는 부모로서 자녀를 바르게 지도해야한다는 마음으로 자녀의 행동을 문제행동으로 인식하고 지도하려는 태도에서 자녀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 자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의 마음 읽기에 대한 실패로 자녀와의 대화가 일방적인 소통으로 야단치기, 무시하기, 외면하기, 지도

하는 등의 부적절한 대화법을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차 실험연구의 마무리 활동으로 오늘의 참여 소감을 이야기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소감은 ‘부모가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의견, ‘부모됨에 대한 어려움과 책임감을 함께 공감하는 자리여서 좋았다’라는 의견, ‘역시 부모의 길을 어렵다’는 소감을 이야기하였다.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은 참으로 고달픈 일이다. 특히 현대사회의 구조에서는 더욱 그러한 것 같다. 부모됨을 배울 기회가 부족하고, 조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습득할 기회도 부족하다. 또 맞벌이 가정이거나 한 부모가정이라면 시간상, 경제상 등의 여건으로 바람직하게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더 어렵다. 부모들이 자신의 역할의 중요성을 알고 인내를 가지고 지혜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동영상을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제공한 동영상은 「늙은 아버지와 아들」이었다. 본 동영상은 아버지가 어려서 내게 했던 일들이 나이 든 아버지에게 내가 해주어야 하는 일들로 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회상 속에서 아버지가 나에게 보여 주었던 기다림과는 다르게 나는 아버지의 반복되는 행동에 짜증과 불편한 행동을 하고 있음을 반성하면서 부모의 역할에서 인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랑의 표현인지를 느끼게 해주는 자료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동영상을 감상하고 슬픈 표정으로 한 동안 말이 없었다. 아마도 자신의 부모들에 대한 미안함을 느끼는 듯하였다. 동영상을 감상하고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도 소중한 자녀로 대우받고 자랐음을 회상하면서 부모에게 감사하다는 의견과 자녀들이 끊임없이 질문하는 행동에 대해 매우 귀찮고 답변이 어렵기도 했다며 부적절하게 반응한 자신의 태도에 대해 반성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로서 자신이 갖추어야 할 덕목 중에 인내와 기다림도 사랑의 표현임을 인식하게 되고 서로를 격려하는 기회가 되었다. 부모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 외에도 여러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어 하루 일과를 보내고 나면 그 에너지가 소진되어 정작 해야 할 일에는 최선을 다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을 돌볼 여유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시간이 부족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부모들은 자신을 보살피고 소중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끔씩은 자녀를 떠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체계적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다. 1차 부모코칭의 가정활동으로 제공되는 부모저널은 「보살핌을 제공하는 부모로서의 자신을 보살피기」로 부모가 자신을 보살피기 위한 내용을 5가지로 분류하였다. 먼저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을 하거나 뜨거운 물로 목욕하기, 좋은 음식 먹기, 충분한 수면 취하기 등을 할 수 있다. 취미생활로는 가정생활외의 활동으로 부모들이 자신이 관심과 흥미가 있는 활동으로 무엇인가 배우거나 나누는 봉사활동 등을 할 수 있다. 마음관리로 명상, 산책, 음악 듣기, 책 읽기, 야외에서 시간 보내기, 주변정리는 매일의 할 일을 목록화하여 시간 관리를 하며 집 안을 잘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애정생활은 결혼과 동시에 끝난 것이 아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나누고 가끔은 둘만의 데이트를 즐기며 부부가 서로의 애정을 나누고 확인하는 기회를 통해 에너지 넘치는 활기찬 일상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로서 자신을 보살피기 위한 건강관리, 취미생활, 마음관리, 주변정리, 애정활동의 5가지 영역을 계획하고 실천하여 기록해보는 활동을 앞으로 꾸준히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또 하나의 가정활동인 행복한 아이를 위한 실천으로는 가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부모들과의 추억을 회상하고 자녀들과 「행복한 가정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여 다음 2차 실험연구에서 발표하도록 안내하였다. 1차 부모코칭은 마음열기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도입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자신 소개와 참여 동기, 배우고 싶은 점을 소개하였고 한 줄 토의로 부모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전개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양육태도 체크리스트를 통해 양육태도의 유형에 대

해 알아보고 동영상 「늙은 아버지와 아들」을 감상하고 토의하였다. 마무리에서는 가정활동으로 부모저널 「보살핌을 제공하는 부모로서 자신을 보살피기」와 행복한 아이를 위한 실천 「행복한 가정활동」을 안내하였다.

2) 부모-자녀와의 소통코칭

2012년 5월 26일 토요일 2차 부모코칭이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2주 동안의 생활과 행복한 아이를 위한 실천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지난 1차 실행연구 때와는 다르게 어색함이 조금은 사라진 것 같았다. 연구 참여자들끼리 서로 안부 인사도 나누고 시작 전 수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느꼈다. 2주 만에 이렇게 친해질 수 있을까 싶었는데 1차 실행연구 후 어머님들끼리 모임을 갖게 되어 더 친밀해졌다고 하였다. 부모코칭 2차 활동은 연구 참여자들이 1차 활동과 연계된 행복한 아이를 위한 실천 「행복한 가정활동」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행복한 가정활동은 연구 참여자 자신이 부모와 함께 재미있었던 일을 회상하고 자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계획하고 실천하면서 나타난 효과와 관련사진, 소감 등을 기록해 오는 활동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행복한 가정활동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버지와 놀이동산에 처음 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어려서 아버지는 일본에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가족이 함께 했던 기억으로 행복했습니다. 우리 아이와는 그래서 다양한 사촌들과 친하게 해주고 싶어서 우리 가족과 조부모, 아이의 작은 가족들과 PIC에 놀러갔습니다. 역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행복했고 우리 아이가 다양한 어른들과 함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만 3세 A유아 아버지)

아버지와 장기를 두었던 기억이 납니다. 비록 아버지를 이기지는 못 했지만 아버지와 마주 앉아 같은 일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짧은 시간이라고 그 시간동안 아이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부모가 관심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와 마트에서 쇼핑을 하였습니다. 진열된 수많은 상품들 중에 아이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동물과 물고기, 예쁜 신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만 3세 B유아 아버지)

어려서 부모님이 업어줄 때 사랑을 느낀 것 같아요. 저는 아이와 국회도서관에서 숨바꼭질을 했는데 아이가 무척 즐거워했습니다. 놀이를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이 형성되고 자연 속에서 놀이로 좋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만 4세 D유아 아버지)

어릴 적 부모님과 좋은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 주고 싶어요. 아이와 비 오는 날에 우산 집을 만들어 그 안에서 맘껏 놀이도 하고 종이인형을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아이가 주문하는 종이 인형 드레스를 그려주고 아이가 색도 칠하고 오려서 놀기도 했어요. 아이는 그 드레스를 무척 좋아해요. 자신이 만든 것이라며 뿌듯해 합니다.

(만 5세 F유아 어머니)

행복한 아이를 위한 실천 「행복한 가정활동」은 연구 참여자들이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고 아이에게 있어서 놀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 연구 참여자들의 각 가정에서 실천한 내용들을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놀이 방법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지난 1차 활동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부모로서 자녀를 바르게 지도해야 한다는 마음과 자녀의 행동을 문제행동으로 인식하고 지도하려는 태도 때문에 자녀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와의 바람직한 대화방

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 참여자의 자녀들은 부모님들께 어떤 말을 듣기 좋아하는지와 듣기 싫어하는지를 학급 담임교사들의 도움으로 알아보았다. 연구 참여자의 자녀들은 부모님들께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은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엄마가 선물사준다고 했을 때 기분이 좋아요. (만 3세 A유아)

우리 엄마랑 아빠가 예쁘다고 말해줄 때가 좋아요. (만 3세 B유아)

사랑한다고 말할 때가 좋아요. (만 4세 C유아)

스티커 모으면 선물사준다고 말씀하실 때 기분이 좋아요. (만 5세 E유아)

사랑한다고 말해 줄 때가 기분이 좋아요. (만 5세 F유아)

연구 참여자의 자녀들은 부모님들께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쁜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땀땀가지고 온다고 말할 때가 싫어요. (만 3세 A유아)

물을 쏟았는데 엄마가 많이 야단쳤어요. (만 4세 B유아)

엄마가 소리 지르며 나의 이름을 부를 때 기분이 나빠요. (만 4세 C유아)

엄마가 화를 낼 때 기분이 나빠요. (만 4세 D유아)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녀들은 긍정적인 표현과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며 즐거움을 주는 대화의 방법을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자녀들이 부정적인 감정이 동반되는 상호작용에서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이와 같은 대화의 방법을 배우게 되며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부모로부터 배운 방법을 사용하게 되므로 대화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비의도적인 교육과정’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자녀와 어떤 소통의 기술을 사용하는지 객관적인 점검의 기회로 「아이와 대화할 준비도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아이와 대화할 준비도 테스트는 일반적 부모역할 지원 프로그램에서 발췌한 아이와 대화할 준비도 테스트를 활용하였다. 10개의 항목을 읽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를 하여 체크의 합계로 부모의 대화 태도를 알아보는 테스트이다. 체크의 항목이 0개~3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방통행로를 달리는 대화로 자녀와 서로 대화하기보다는 부모가 지시하거나 명령, 제안하는 대화를 주로 하는 유형으로 부모의 권위를 대화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이에게 자주 화내지는 않는지, 아이에게 늘 교훈적으로 가르치려고만 하지는 않는지 스스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부모에게 말할 기회를 갖지 못하므로 점점 감정을 억제하게 된다. 무엇이든 부모가 판단하고, 결정하여 아이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함께 생각을 공유하는 방법을 부모가 스스로 배워야 한다. 체크의 합계가 4개~7개인 경우에는 도로상황이 좋지 않은 대화로 부모는 아이와 대화하려고 많이 시도하기는 하지만 방법이 미숙함에 따라 자주 실패하고 있는 경우이다. 아이의 행동보다는 감정을 들어주고, 판단 내리기 보다는 먼저 이해해 주는 입장을 취해야 대화가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다. 다양한 방법과 상황 속에서 대화의 기회를 시도해 보고 때로 시행착오를 거치며 점차 대화의 기술이 발달할 수 있다. 체크의 합계가 8개~10개인 경우는 양방의 소

통이 원활한 대화로 자녀의 입장을 수용하고 들어주며, 부모 자신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아이에게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이다. 부모 자신이 좋은 대화의 기술을 자녀에게 모범을 보임으로써 자녀가 건전한 마음으로 자랄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유능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아이와 대화할 준비도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대화기술을 반성하고 자녀와의 소통을 위해서 자신의 대화기술의 변화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의사소통의 걸림돌 전략을 해소하면 자녀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해야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궁금해 하였다. 또 지금까지 익숙한 의사소통의 걸림돌 전략을 해소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졌다.

2차 부모코칭을 진행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소통의 중요성과 대화의 방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로 동영상 「어느 아버지의 글」을 감상하였다. 본 동영상의 내용은 한 부모 가정으로 아버지가 혼자 아들을 양육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이 대화의 부족으로 나타나 자녀를 오해하고 야단치다가 진실을 알게 되는 이야기이다. 동영상을 감상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로 눈물을 흘렸다. 감상을 마치고 동영상의 갈등상황에 대해 토의를 해 보았다. 갈등상황은 퇴근 후 아빠를 드리기 위해 컵라면을 이불 속에 넣어 둔 아들의 행동에 대해 연구 참여자라면 어떠한 방법으로 대화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동영상 속의 아버지처럼 행동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래서 바람직한 대화법으로 변경해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발견된 라면에 대해 자녀에게 물으면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의해야 할 행동을 자녀가 알 수 있도록 질문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들의 마음과 행동을 오해했던 경험들을 이야기 나누면서 자녀의

마음을 이해해주며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격려 받는 기회가 되었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동영상 감상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 나누며 한부모 가정은 얼마나 힘들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다. 2차 부모코칭의 부모저널로 「배우자에게 보내는 격려」를 작성하는 활동과 행복한 아이를 위한 실천으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녀와 소통이 어려웠던 경험을 기록해보는 「의사소통의 걸림돌」활동을 안내하였다.

2차 부모코칭은 자녀와의 소통코칭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도입에서는 1차 부모코칭의 행복한 아이를 위한 실천 「행복한 가정활동」의 경험을 나누고 연구 참여자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듣고 좋은 말과 싫은 말을 소개하였다. 전개에서는 아이와 대화할 준비도 테스트를 통해 자녀와의 바람직한 대화방법을 알아보고 동영상 「늙은 아버지와 아들」을 감상하면서 토의하였다. 마무리에서는 부모저널 「배우자에게 보내는 격려」와 행복한 아이를 위한 실천 「의사소통의 걸림돌」을 안내하였다.

3) 훈육을 위한 부모코칭 I

2012년 6월 9일 토요일 3차 부모코칭이 진행되었다. 지난 부모코칭에서 행복한 아이를 위한 실천으로 제공된 의사소통의 걸림돌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지 연구 참여자의 2가정은 약속시간보다 30분 일찍 유치원으로 방문하여 의사소통의 걸림돌 해소방안과 관련된 질문을 하였다. 연구자는 가정에서 발생한 문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자고 제안하면서 3차 부모코칭을 시작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자녀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경험은 다음과 같다.

우리 아이는 식사할 때마다 엄마, 아빠가 사용하는 젓가락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때 저는 아이가 밥을 빨리 먹고 유치원에 가야하기 때문에 아이의 의견을 무시하고 충고합니다. 너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어린이용을 사용해야 한다고. . . .

(만 3세 A유아 아버지)

아침에 아이가 아빠에게 양말을 신겨 달라고 해서 저는 혼자 신을 수 있는데 왜 도와달라고 하며 좀 빈정거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혼자 안 신으면 엄마, 아빠는 먼저 가버린다고 했어요.

(만 3세 B유아 어머니)

연구 참여자들이 소개한 가정에서의 의사소통의 걸림돌은 명령하기, 회유하기, 심문하기, 관심 돌리기, 심리분석하기, 비판하기, 빈정대기, 도덕적 판단하기, 해결사 노릇하기 등의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활용한 의사소통의 걸림돌 전략에 따른 부모들의 의도와 자녀에게 실제로 전달되는 메시지는 무엇일지 예측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만 4세 C유아 아버지의 사례를 보면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이가 친구들의 이야기를 늘어놓을 때 부모 자신이 피곤하기도 하고 아이의 친구들도 몰라서 듣기 싫은 마음이 들어 건성건성 대답하면서 화제를 돌렸다고 한다. 이 상황에서 연구 참여자가 사용한 의사소통의 걸림돌인 ‘관심 돌리기 기법’으로 자녀가 인식한 부모의 메시지는 ‘네 이야기에 관심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아’라고 전달되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부모의 행동에 아이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듯 연구 참여자의 다양한 의사소통의 걸림돌에 대한 경험을 통해 부모가 사용한 의사소통의 걸림돌은 무엇인지 알고 의사소통의 걸림돌로 자녀에게 전달되는 부모의 메시지와 자녀의 반응을 이해하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가 왜 부모인 자신의 의견을 수용하기 어려웠는지, 고집을 피우는지, 반항하는지 등의 이유를 이해하면서 자신의 대화방법에 대해 반성하고 그 동안 연구 참여자들이 자녀와

의 의사소통에 얼마나 많은 걸림돌 전략을 사용했는지를 공감하게 되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그 동안 사용하고 익숙했던 전략들이 자녀와의 소통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였다. 이러한 연구 참여자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연구자는 적극적인 의사소통의 5단계를 안내하고 적극적인 의사소통의 기술을 실천해 보는 기회로 역할극을 진행해 보았다. 역할극 활동은 연구 참여자 12명을 3모듬으로 나눈 후 각각의 모듬에게 각기 다른 문제 상황을 제시하였다. 각각의 모듬은 먼저 문제 상황에 대한 자녀의 문제 행동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의사소통의 기술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토의하였다. 문제 상황의 해결에 대한 토의 결과를 역할극으로 시연하였다.

역할극은 모두 3회로 나누어 이루어졌으며 제시된 문제 상황은 첫째, 잠자리에 들 시간에 더 놀겠다고 고집하는 상황, 둘째 텔레비전을 더 보겠다고 떼쓰는 상황, 셋째 놀이터에서 즐겁게 놀이하는 아이에게 갑자기 집에 가자고 하는 상황이었다. 역할극의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잠자리에 들 시간에 더 놀겠다고 고집하는 상황에서 연구 참여자 중 2인이 아이의 역할을 담당하고 2인이 아빠와 엄마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아이의 역할을 담당한 연구 참여자들은 아이의 더 놀고 싶은 마음을 강력하게 고집하고 부모의 역할을 담당한 연구 참여자들은 효과적인 훈육의 기술과 적극적인 의사소통의 방법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동생 : 우리 소꿉놀이 하자. 달콤하다.

누나 : 이건 브로콜린이잖아. 달콤하지 않아.

엄마 : 애들아 너희들 무엇이 이렇게 재미있니?

동생 : 엄마, 브로콜린은 달콤하지?

누나 : 엄마, 브로콜린은 달콤하지 않지? 엄마 먹어봐

엄마 : 우와, 맛있다. 맛있는 것을 먹었으니, 이제 양치질 하고 자야 돼.

누나 : 에이..... 더 놀고 싶으데....

엄마: 아니야, 그러면 아빠처럼 이가 시킴해져.

누나 : 나 좀 더 놀고 싶는데 그치?

동생 : 그래 나도 더 놀고 싶어

엄마 : 그래? 뭐하고 더 놀고 싶는데?

누나 : 동생이랑 소꿉놀이 더하고 나서 양치하고 싶는데

엄마 : 그럼 손가락으로 몇 분만큼 놀고 싶은지 이야기해봐.

누나 : 너무 어려운데...

엄마 : (손가락을 3개 펴며) 이 만큼?

누나 : 에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엄마 : (손가락을 5개 펴며) 이 만큼?

누나 : 상우야, 어떻게 할까?

동생 : 싫어.

누나 : 상우가 너무 적대.

엄마 : 그럼 얼마만큼?

동생 : 싫어.

엄마 : 싫으면 무엇을 하고 싶는데

동생 : 나 이거 놀이 더 할꺼야. 소꿉놀이 할거야.

엄마 : 언제까지?

동생 : 계속할꺼야.

엄마 : 그럼 계속하고 누나부터 양치할까?

누나 : 귀찮아요. 양치하면 이 아파요.

엄마 : 시나리오상 우리 여기서 양치하기로 했잖아. (하하하)

누나 : (손가락을 5개 펴 보이며) 상우야 그럼 우리 이만큼만 놀고 양치할까?

동생 : 알았어.

누나 : 그런데 양치 안 하고 자고 싶는데

엄마 : 그럼 아빠처럼 된다고 했지. 맛있는 브로컬리도 먹었으니 치카도 해야지

동생 : 누나 그럼 우리 그냥 치카하자.

엄마 : 그럼 아빠랑 책 한 권 읽고 치카하도록 하자.

아빠 : 어떤 책을 읽을까?

동생 : 난 공룡책

누나 : 난 공주책

동생 : 또 공룡책

아빠 : 보지말까?

동생 : 볼꺼야. 다 볼꺼야.

아빠 : 우리 한 개씩만 보고 치카하자. 한 사람에 한 권씩만 보자.

동생 : 그럼 내꺼 먼저.

누나 : 아니야. 내꺼 먼저.

아빠 : 누나 것 먼저 보자.

동생 : 안돼. 싫어

누나 : 내꺼 먼저야.

동생 : 으앙~~~~~

누나 : 내가 먼저야. 아빠가 내 것 먼저 본다고 했잖아.

엄마 : 그럼 가위, 바위, 보로 정하자.

아빠 : 가위, 바위, 보 먼저 할래? 치카 먼저 할래?

엄마 : 그럼 너는 아빠랑 보고, 너는 엄마랑 보자.

누나 : 엄마, 신텔레라 볼꺼야.

가족들은 함께 그림책을 읽고 양치를 하러 갑니다.

역할극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각각 자신이 맡은 역할에 충실하였다. 특히, 아이의 역할을 맡은 연구 참여자들은 아이들이 왜 때를 쓰는지 공감하고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역할극을 진행하면서 아이

의 역할을 맡은 연구 참여자들이 지나치게 때를 쓰자, 엄마 역할을 맡은 연구 참여자가 ‘시나리오상 우리 여기서 양치하기로 했잖아’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한바탕 웃음소리가 퍼지기도 하였다. 역할극의 내용을 살펴보면 적극적인 의사소통의 5단계에 따라 부모의 역할을 맡은 연구 참여자들은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자신의 자세를 낮추고 눈을 마주하였다. 적극적인 의사소통 1단계인 적극적으로 경청하기를 실천하고자 자녀들의 놀이에 자연스럽게 개입하면서 자녀들과 대화를 시도하는 부모의 자세가 나타났다. 적극적인 의사소통 2단계 감정에 귀 기울이기로 부모들은 자녀들이 더 놀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나타났다. 적극적인 의사소통 3단계 감정과 내용을 연결하기로 부모는 이를 닦아야 하는 이유를 소개하였다. 적극적인 의사소통 4단계 대안 찾고 그 결과 평가하기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놀이 시간과 그림책 선정, 함께 읽을 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자녀들의 연령에 맞는 제한점을 제공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자녀들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며 자연스럽게 문제 상황을 극복하였다. 물론 역할극 중간에 보고 싶은 그림책의 수를 정하는 방법에 있어 아빠의 대화기법이 의사소통의 걸림돌전략인 명령하기를 사용하기는 했으나 자녀와의 상호작용 맥락 속에서 부모가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으로 볼 수 있다. 적극적인 의사소통 5단계 추후지도하기는 역할극인 관계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는 적극적인 의사소통의 5단계의 실천으로 문제 상황의 원활한 극복과 함께 자녀의 행동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문제 상황에 따른 역할극은 3차례를 진행하였으며 각각의 역할극이 끝날 때마다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적극적인 의사소통의 전략이 잘 사용된 점과 그렇지 않은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토의를 나누면서 효과적인 훈육방법에 대해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역할극을 참여하고 문제점을 찾아가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안개 속을 걷고 있는 것처럼 어렵고 답답하기만 자녀와

의 소통이 안개너머로 그 형태를 발견하고 있는 것 같았다. 역할극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우리 모두 참 많이 웃었다. 역할극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박장대소하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하면서 그 웃음만으로도 그 동안의 부모 역할에 대한 힘겨움의 일부를 해소하고 있는 느낌이었다. 적극적인 의사소통 5단계에 대한 역할극을 하면서 연구 참여자 부모들은 의사소통의 걸림돌 전략 대신 자녀들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하거나 선택하게 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났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제공하는 제안이나 선택이 자녀들의 연령이나 발달에 맞지 않은 상황이 나타나기도 한다.

부모코칭을 진행하면서 연구 참여자 부모들은 자녀를 잘 키우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실천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고 고민하였다. 「부모의 자리」 동영상은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모든 부모의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다. 동영상에서는 부모가 아이를 기르는 것은 정신을 기르는 스승과 같으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인생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부모가 보여주는 인생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철학이 바탕이 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모가 선택한 삶의 철학은 자녀를 한 사람으로 만드는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동영상을 감상하면서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이 바로 서야하고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위한 철학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3차 부모코칭의 마무리활동으로 행복한 아이를 위한 실천 「적극적인 의사소통 5단계」를 안내하였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상황을 적극적인 의사소통 5단계에 따라 실천해 보고 그에 따른 소감을 기록해 보는 활동이다.

3차 부모코칭은 훈육을 위한 코칭 I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도입에서는 행복한 아이를 위한 실천 「의사소통의 걸림돌」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적극적인 의

사소통의 5단계를 실천하는 역할극 「이럴 땐 이렇게」를 시연해 보았다. 동영상 「부모의 자리」를 감상하였다. 마무리에서는 가정활동으로 행복한 아이를 위한 실천 「적극적인 의사소통 5단계」를 안내하였다.

4) 훈육을 위한 부모코칭II

2012년 6월 23일 토요일 4차 부모코칭이 있는 날이다. 부모코칭은 유치원에서 실행연구가 있는 날에만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참여 후 관련활동을 2주간 꾸준히 실천하고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연구 참여자 스스로 자신의 부모역할을 개선하고 향상시켜 나가는 활동이다. 4차 부모코칭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단 한 명의 연구 참여자의 결석 없이 진행하였다. 우리나라의 속담과 같은 사자성어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다. 어떤 일이든지 습관이 들기까지는 꾸준히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삼일을 지키기 어려운 법인데 우리 연구 참여자들은 토요일 오전에 유치원을 방문하는 모습도 활기차다. 4차 부모코칭을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였다.

4차 부모코칭의 도입활동으로 그 동안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바람직한 양육태도와 대화기술을 통해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걸림돌 전략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의사소통의 5단계에 따른 실천을 공유하는 날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가정에서 실천한 적극적인 의사소통의 사례 중 만 3세 A유아 아버지와 B유아 아버지는 실행연구 1회에서 소개한 문제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서 이를 실천해 보았다. 연구 참여자들이 실행연구 1회에서 이야기한 문제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밥을 먹을 때 엄마, 아빠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우리 아이는 “조용히 밥 먹자.”라고 이야기 하며 우리 부부의 대화를 방해합니다. 아이의 반응이 예의바르지 못하다는 생각에 아이에게 말

하는 태도를 지도하면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지 않습니다. 나중에 아이의 표정을 살펴보면 적절한 의사소통이 아니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애할지 몰라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자꾸 같은 방식으로 아이를 대하고 아이와 함께 식사하는 것이 힘듭니다.

(만 3세 A유아 아버지)

저녁에 양치질 하는 것을 자꾸 미룹니다. 양치질을 하자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양치질을 미루다가 욕실에 들어가면 물장난을 하거나 양치질을 대충 대충하며 시간만 보냅니다. 그러면 아이의 잠자리 시간이 늦어지고 나도 피곤한데 쉴 시간이 없어서 자꾸 짜증이 나고 아이를 억압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 3세 B유아 아버지)

위와 같은 문제 상황의 반복으로 만 3세 A유아 아버지는 처음에 명령조의 말을 고쳐주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밥을 열심히 먹으라고 했다. 이후 반복되는 상황에서 아이의 표정을 살펴보니,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다음과 같이 실천해 보았다.

처음에는 명령조의 아이 말을 고쳐주려고 밥을 열심히 먹으라고 했지요. 이후 반복되면서 아이의 표정을 통해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물어 보았어요. 그러자 아이는 밥 먹을 때 얘기하지 말라고 부모가 얘기 했는데 부모가 얘기하는 것이 틀렸다고 얘기하지만 무언가 불편한 마음 상태인 것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아이와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부모와 같이 대화하고 싶은 욕구와 밥을 먹기 싫은 마음이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밥 먹기 싫어서 부모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 보다 대화를 짧게 하면서 밥 먹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겠어요. 아이가 궁금해 하는 것을 위주로 대화를 나누니 아이와 식사하는 시간이 즐거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식사시간에 우리에게 명령조의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만 3세 A유아 아버지)

연구 참여자 만 3세 A유아 아버지의 실천사례 적극적인 의사소통 5단계는 다음 표 14와 같다.

<표 14> 만 3세 A유아 아버지의 실천사례 적극적인 의사소통 5단계

문제상황	밥 먹을 때 엄마, 아빠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조용히 먹자.’라는 말을 합니다.
문제에 대한 반응	처음에는 명령조의 아이 말을 고쳐주려고 밥을 열심히 먹으라고 했지요. 이후 반복되면서 아이의 표정을 통해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극적인 의사소통 5단계	1단계 [적극적인 경청하기] 왜 그렇게 명령하듯이 얘기했는지 물어보았어요.
	2단계 [감정에 귀 기울이기] 밥 먹을 때 얘기하지 말라고 부모가 얘기 했는데 부모가 얘기하는 것이 틀렸다고 얘기하지만 무언가 불편한 마음 상태인 것으로 보였어요.
	3단계 [감정과 내용을 연결시키기] 부모와 같이 대화하고 싶은 욕구와 밥을 먹기 싫은 마음이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4단계 [대안 찾고 그 결과 평가하기] 밥 먹기 싫어서 부모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 보다 대화를 짧게 하면서 밥 먹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겠어요.
	5단계 [추후지도하기] 아이가 궁금해 하는 것을 위주로 대화를 나누니 아이와 식사하는 시간이 즐거워진 것 같아요.
자녀의 반응	명령조의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연구 참여자 만 3세 B유아 아버지 역시 퇴근 후 저녁식사를 마치고 자녀의 양치질을 담당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자녀의 양치질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쓸 시간이 없다는 생각에 짜증이 반복되는 문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실천해 보았

다.

대화를 통해 자녀가 수돗물을 최대한 적게 틀어서 가는 물줄기로 물을 받고 칫솔을 씻는 것 재미있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혼자 하는 게 재미있니? 이제 혼자서 하려고 하니 기특하구나. 하지만 아직은 네가 혼자 하기에는 입 안 구석구석을 닦기 어렵고 충치벌레가 생길지 몰라. 또, 수돗물줄기가 가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먼저 하고 아빠가 구석구석을 닦아주면 어떨까?”아빠가 닦아 줄 때마다 아이는 입 안 깊숙이는 이렇게 닦으라고 계속 요청했어요. 강요성이 없어서 아이가 순순히 수용해주는 것 같아요.

(만 3세 B유아 아버지)

연구 참여자 만 3세 B유아 아버지의 실천사례 적극적인 의사소통 5단계는 다음 표 15와 같다.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실천사례를 들으면서 1차 실행연구 때와는 매우 다르게 향상된 양육태도와 대화의 기술에 놀라 박수를 쳐 주며 격려해 주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문제 상황에서 감정에 치우치기가 쉬운데 적극적인 의사소통의 5단계에 따라 아이와 상호작용을 해보니,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녀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쁨을 얻게 되었다. 또, 연구 참여자들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할 자신감이 생겨 기쁘고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4차 부모코칭은 훈육을 위한 코칭 두 번째 시간으로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의사소통의 걸림돌 전략을 해소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모습이 나타났다. 하지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는 선택권이 자녀의 발달이나 수준에 적합하지 않아 자녀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상황과 한계점 설정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자녀들의 연령과 수준에 따른 한계점의

예를 소개하며 한계점을 설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표 15> 만 3세 B유아 아버지의 실천사례 적극적인 의사소통 5단계

문제상황	자녀가 칫솔질을 대충 대충하는 반면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문제에 대한 반응	“아빠가 도와줄까?”
적극적인 의사소통 5단계	[적극적인 경청하기] 1단계 대화를 통해 자녀가 수돗물을 최대한 적게 틀어서 가는 물줄기로 물을 받고 칫솔을 씻는 것 재미있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감정에 귀 기울이기] 2단계 “혼자 하는 게 재미있니? 이제 혼자서도 하려고 하니 기특하구나.”
	[감정과 내용을 연결시키기] 3단계 “아직은 네가 혼자 하기에는 입 안 구석구석을 닦기 어렵고 충치벌레가 생길지 몰라. 또, 수돗물줄기가 가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대안 찾고 그 결과 평가하기] 4단계 “네가 스스로 먼저 하고 아빠가 구석구석을 닦아주면 어떨까?”
	[추후지도하기] 5단계 아빠가 닦아 줄 때마다 아이는 입 안 깊숙이는 이렇게 닦으라고 계속 요청했어요.
자녀의 반응	강요성이 없어서 아이가 순순히 수용해주는 것 같아요.

부모의 자녀양육 목표는 누구나 자녀의 행복일 것이다. 자녀의 행복을 위해 자녀를 교육하고 훈육한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교육하고 훈육하는 방법이 진정으로 자녀의 행복을 위한 것인지 고민해 보기 위해 「자녀를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끌어라.」 동영상을 감상하였

다. 동영상의 내용은 자녀의 관심과 흥미가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고 자녀가 스스로 몰입하는 환경과 지원으로 자녀가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연구 참여자들과 동영상을 감상하면서 자녀들의 행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유아기 자녀에게 좋은 부모의 역할은 무엇인지, 유아기 자녀에게는 제공해야 할 교육은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였다.

마무리 활동으로 행복한 아이를 위한 실천 「자녀에게 선택권 주기」를 안내하였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자녀들과 문제 상황을 보면 선택의 문제가 많다. 선택의 상황에서 부모는 부모가 원하는 방향을 강요하게 되고 자녀는 자녀가 원하는 방향을 고집하다보면 문제 상황이 되고 만다. 문제 상황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자녀에게 선택권을 나누어 주면서 자녀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연습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들이 의사소통의 걸림돌을 해소되면서 자녀에게 선택권 주기를 실천하였다. 하지만 부모들은 자녀에게 제공하는 선택의 한계를 설정하는 태도가 미흡하므로 이를 연습할 필요가 있다. 자녀들은 다양한 선택의 경험을 통해 바른 의사결정의 힘을 갖추게 되고 나아가 책임감과 주도성이 향상될 것이다. 4차 부모코칭은 훈육을 위한 코칭Ⅱ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도입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가정에서 실천한 「적극적인 의사소통 5단계」의 경험을 나누었다. 전개에서는 「자녀에게 선택권주기」에 대한 지식을 나누고 동영상 「자녀를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끌어라.」 감상하였다. 마무리 활동에서는 가정활동으로 행복한 아이를 위한 실천 「자녀에게 선택권주기」을 안내하였다.

5) 유아기 자녀를 위한 코칭

2012년 6월 23일 토요일. 5차 부모코칭이 있는 날이다. 어느덧 부모코칭 프

로그래미 막 바지로 다가가고 있다. 그 동안 실행한 부모코칭을 회상해보니, 뿌듯한 마음 반, 걱정되는 마음반이다. 부모가 함께 하는 부모코칭은 처음이지만 지금까지 단 한명도 결석하지 않고 이끌어 온 점에 대한 기쁨과 연구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실제적인 접근방안이 되었는지 걱정이 된다. 하지만 꾸준히 참석해준 연구 참여자들이 유익한 연구의 방향 잡이가 되어 주리라 믿으며 부모코칭을 시작하였다.

5차 부모코칭의 도입은 4차 부모코칭 행복한 아이를 위한 실천으로 안내되었던 「자녀에게 선택권주기」에 대한 경험을 소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그 동안 실천한 자녀에게 선택권주기의 상황과 그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실천한 자녀에게 선택권 주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 표 16과 같다.

<표 16> 행복한 아이를 위한 실천 「자녀에게 선택권주기」

연구참여자	선택권	선택권의 효과
만 3세 B아버지	거실에서 아빠와 놀이할 놀이감을 선택하게 함.	놀이 후 놀이감을 스스로 정리하는 모습이 관찰됨.
만 4세 C아버지	TV보는 시간을 정해 놓았으나 정해진 시간에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아 이를 어떻게 할지 선택하게 함.	아이는 정해진 시간에 TV를 끄는 것을 선택하였으나 나의 강압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됨.
만 5세 E아버지	도서관에서 읽을 책을 선택하게 함.	스스로 선택하여 책읽기에 빠짐.
만 5세 F어머니	두 아이가 함께 목욕을 하는 경우 그 순서를 선택하게 함.	두 아이가 서로 상의하는 습관이 생김.

행복한 아이를 위한 실천으로 진행된 「자녀에게 선택권주기」의 선택상황은 놀이감의 선택이나 놀이 시간, 먹거리와 읽고 싶은 책의 선택처럼 양자택일의 단순선택에서부터 우선순위에 따른 선택, 나들이 장소의 선택, 등원의상 고르기, 식사장소 선택과 같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하는 복합선택까지 연령에 따라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실천하였다. 자녀에게 선택권을 주고난 후의 연구 참여자들의 소감은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습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과 ‘선택권을 주니 아이와 실랑이 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한결 여유가 생겼다’, ‘평소에는 무의식중에 강요함으로써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 같다’, ‘스스로 선택한 것을 아이가 해 나가는 것을 볼 때 강요보다는 훨씬 더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더불어 다른 가정의 다양한 선택과 상호작용 기술을 공유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선택의 다양성을 알게 되었다. 5차 부모코칭을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기 위해 유치원 바깥 놀이터에서 연구 참여자와 자녀들이 만났다. 아이들은 이미 바깥 놀이터에 나와 모래놀이를 하고 있었다.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들의 놀이를 관찰하며 지금 어떤 놀이를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놀이를 하고 집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전에는 연구 참여자들이 부모코칭을 마치고 나면 자녀들의 손을 이끌고 나가던 모습과는 달리 아이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연구 참여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관찰하게 되었다.

5차 부모코칭의 주제는 유아기 자녀를 위한 코칭으로 유아기 자녀에게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이며 유아기 자녀에게 제공해야 할 가르침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유아기 자녀를 바르게 훈육하는 좋은 부모의 조건은 무엇일까? 누구나에게 어릴 적 경험이 있고 그 때에 우리는 모두 자녀들이었다. 자녀들

의 시각에서 바라 본 좋은 부모가 바로 진정한 좋은 부모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연구 참여자들에게 어릴 적 경험 중 부모들에게 받은 영향과 현재 자신의 성격과 어린 시절 부모님의 훈육과의 연계성을 추측해보며 추억을 소개하도록 제안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나의 부모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부모님과 계곡에서 캠핑하다 비가 많이 내리서고생한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무척 즐거웠던 추억으로 기억해요. 아빠가 비가 불어나는 계곡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며 우리들을 살피시는 모습에서 안정감과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존재로 믿음이 생겼어요.

(만 3세 A유아 어머니)

초등학교 시절 아빠와 노래를 부르며 이야기 했던 일과 엄마랑 비 오는 날에 부침개를 만들어 먹던 일이 생각나요. 부모님과 대화의 상호작용이 즐겁다는 것과 부모님과 무엇을 같이하고 만들면서 소속감을 느끼며 자존감이 높아진 것 같아요.

(만 3세 B유아 어머니)

어머니가 자신의 즐거웠던 경험 등의 자신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해주셨어요. 특히, 영화이야기를 실감나고 재미있게 들려 주셨는데 몇몇 영화는 어머니와 같이 TV로 다시 보기도 했지만 못 본 영화도 추억 속에 아름답게 남아 있어요. 어머니의 이야기로 저는 어머니와 더 친밀해졌고 취향을 공유하게 되어서 좋았어요. 현재 제가 영화를 즐기는 이유 중 상당 부분이 어머니 덕인 것 같아요. 지금도 영화나 책을 읽고 제 나름대로 분석하거나 풀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만 4세 C유아 어머니)

저는 오빠가 한 명 있어요. 어릴 적부터 우리 집은 오빠가 왕이었어요. 오빠가 문제를 일으켜도 야단은 제가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빠에게 많이 맞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인지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 저도 모르게 아이들을 때리게 되요. 때리고 나면 한편으로는 미안하지만 제가 맞은 경험에 비추면 내가 아이들을 때리는 것을 약과다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체벌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만 4세 D유아 어머니)

우리 어릴 때에는 다 그러지 않았나요? 저희 아버지는 매우 엄해서 주로 체벌을 담당하셨고 어머니는 위로를 담당하셨지요. 하지만 저는 부부가 같은 양육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 5세 E아버지)

「나의 부모 이야기」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에 대한 따뜻한 추억들을 주로 회상하였다. 함께 나들이 갔던 경험, 취미생활을 함께 나누었던 경험, 함께 놀아주었던 경험 등이 있었다. 하지만 체벌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부모에게 맞아 본 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는 자신이 자녀에게 체벌하는 태도의 형성이 어릴 적 맞아 본 경험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때로는 자신의 자녀를 심하게 체벌하고 나면 미안한 마음도 들지만 자신의 어릴 적 맞았던 것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어릴 적 부모와의 경험이 자신의 성격과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게 되었다.

좋은 부모의 조건을 고민하면서 좋은 부모는 자녀가 좋은 부모라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들이 좋아하는 부모의 모습은 무엇일지 이야기 나누어 보았다. 연구 참여자이 추측해보는 자녀들이 좋아하는 부모의 모습은 다음 표 17과 같다.

<표 17> 자녀들이 좋아하는 부모의 모습

연구 참여자	자녀가 좋아하는 부모의 모습
만 3세 A유아 아버지	일찍 퇴근해서 놀아주는 아버지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부모
만 3세 A유아 어머니	재우지 않고 계속 놀게 지원해 주는 부모 선물을 많이 사주는 부모
만 3세 B유아 아버지	자주 놀아주고 상호작용해 주는 모습

만 3세 B유아 어머니 부모님과 항상 같이 활동하는 것

만 4세 C유아 아버지 자상하고 즉각 반응하며 아이 중심적인 부모, 더 많은 시간으로 놀아주는 부모, 공감, 경청, 신뢰

만 4세 C유아 어머니 따뜻하고 늘 자기를 봐주는 자기 욕구에 민감한 엄마

만 4세 D유아 어머니 함께 놀아주는 것, 긴장한 것, 화내지 않는 것

만 5세 E유아 아버지 인생의 스승, 놀이 친구

연구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의 모습은 잘 놀아주고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모일 것으로 추측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놀이의 중요성과 놀이가 자녀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미 알고 있었다. 또한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다양한 상황으로 이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음을 반성하면서 부모코칭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토요일만이라도 자녀와 맘껏 놀아주겠다고 다짐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 번째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좋은 부모의 조건을 만들어 보았다. 연구 참여자들의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 3가지는 다음 표 18과 같다.

<표 18>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

연구 참여자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 3가지
만 3세 A유아 아버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아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아이, 가족을 사랑하는 아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만 3세 A유아 어머니	여행의 즐거움, 고기보다 고기 잡는 법, 소소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

만 3세 B유아 아버지 즐거운 추억, 인생에서 의지될 형제, 남을 사랑하는 마음

만 3세 B유아 어머니 뒤로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하는 생각, 도움을 받기보다 도움을 주는 아이의 마음가짐, 주변에서 사랑받는 태도

만 4세 C유아 아버지 신앙, 건강한 정신, 긍정적 습관

만 4세 C유아 어머니 신앙, 부모와의 즐거운 시간, 유연한 사고

만 4세 D유아 어머니 신앙, 비전, 올바른 가치 분별력

만 5세 E유아 아버지 신앙, 처세학(삶의 지혜), 유머

연구 참여자들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으로는 물질적인 것보다 따뜻한 정서와 관련된 신뢰, 사랑 그리고 행복한 추억들과 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덕목들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살아오면서 자신에게는 부족했지만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무형의 것들을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희망하였다. 자녀가 좋아하는 부모의 모습과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을 고민해 보면서 좋은 부모란 어떤 부모일지 토의해보았다. 연구 참여자들이 이야기 한 좋은 부모의 조건은 다음과 표 19와 같다.

<표 19> 좋은 부모의 조건

연구 참여자	좋은 부모의 조건
만 3세 A아버지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한다.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고 응원한다. 가족간의 대화가 원활하도록 노력한다.

만 3세 A어머니	스스로 하게 도와주기, 더 많은 선택권을 주어 책임감 기르기 믿어주고 화내지 말고 부드럽게 말해주기
만 3세 B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스러운 눈빛을 유지할 수 있는 관심과 사랑, 자제력을 갖추는 것
만 3세 B어머니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읽어주는 부모
만 4세 C아버지	보다 따뜻하고 한결같은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모 보다 여유와 에너지가 있는 부모
만 4세 C어머니	행동으로 사랑과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부모
만 4세 D어머니	같이 시간 보내기, 자녀의 마음 이해하고 인정하기, 기다리 기, 바른 가치관 심어주기
만 5세 E아버지	스스로 인생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기, 엄하고 자애로움이 균 형있는 훈육, 다양한 체험을 제공

연구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좋은 부모의 조건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바르게 성장하도록 훈육하기, 바른 태도 형성 돕는 것으로 이야기하였다. 자녀를 사랑으로 마음으로는 화내지 말고 부드럽게 말하기, 사랑스러운 눈빛을 유지하면서 말하기, 자녀의 마음 알아주기, 믿어주기라고 이야기했으며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도록 훈육하기 위해서는 함께 시간을 나누며 삶의 모범을 보여주기, 기다리기, 다양한 체험제공하기, 자애와 엄격이 균형 있는 훈육하기라고 하였다. 바른 태도형성을 위해서는 인생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기, 스스로 하게 하기, 책임감 길러주기, 바른 가치관 심어 주기라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모두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이므로 유아기의 특징과 적기교육에 대한 안내가 필요해 보인다. 요즘은 많은 부모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선행학습의 부적합함을 알고 꺼려하지만 불안해하는 마음을 감추지는 않는다. 또한 유아기 발달 특징에 맞는 지도내용에 대해 무지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점차 만 3세로 유치원 입학 전에 한글을 익히고 오는 유아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또한 국가에서의 학비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각 가정에서는 유치원 하원 후 사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곳은 유치원뿐인 유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5차 부모코칭에서는 유아기 발달 특징에 따른 적기 교육에 대해 고민해 보고 기본생활습관, 인성 함양과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하였다. 먼저, 유아기 자녀를 위한 코칭으로 EBS 다큐프라임 아이의 사생활 「자아 존중감」 동영상을 감상하였다. 본 동영상은 아이들의 자아 존중감을 알아보는 실험으로 종이와 그리기 도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자화상을 그려보게 함으로써 현실자아에 대한 아이들의 만족도를 알아보았다. 두 번째 실험으로는 다양한 크기의 상자 중 한 개를 선택하여 상자의 내부를 꾸며보게 하였다. 이 실험은 상담치료를 중요시 하는 심리학자 칼 로저스가 한 개인 안에 있는 ‘현실 자아와 이상 자아’를 알아보기 위해 고안해 낸 것이다. 이 두 실험을 통해서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사람이고 자신을 긍정적인 존재로 여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두 실험에 참가한 아이들의 자존감 지수와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리더쉽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을 통해 자존감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또한 자존감의 형성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유아기 아이들을 대상으로 칠교판을 제시하고 엄마와 함께 실험에 참가하였다. 풀리지 않는 칠교놀이에 대한 엄마의 반응에 따른 자녀들의 감정은 어떠한지에 대한 실험으로 실험에 참가한 엄마의 반응으로는 칠교놀이를 마칠 수 있도록 돕는 엄마와 끝까지 자녀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격려하는 엄마로 나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의 역할이 아이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과 자존감이 자녀가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 리더쉽에 미치는 영향을 알게 되었다. 동영상을

감상하고 난 후 연구 참여자들은 그 동안 아이와의 상호작용을 회상하며 ‘저는 급한 성격이라 아이 대신 해주었던 것이 많았는데 후회돼요’ 라는 반응과 ‘가슴이 아파요. 제가 뭔가를 많이 잘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중요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깊게 느끼고 반성하는 시간이었다. 동영상 아이의 사생활 「자아 존중감」을 감상하고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은 아마도 연구 참여자들의 공통된 마음이었을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기반성의 시간을 가지면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로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면서 유아기의 특징과 유아기에 반드시 지도해야 할 내용으로 기본생활 습관의 중요성, 인성함양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기본생활습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와 그것을 바르게 형성 시켜주기 위해 부모가 먼저 좋은 모범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며 공감형 부모가 아이에게 자존감과 기본생활습관, 바른 인성함양에 돕는다는 것을 알리고 공감형 부모로서의 자세에 대해 안내하였다. 공감형 부모로서의 자세에는 자녀에게 눈을 마주치고 안아주며 대화하기, 아이가 원하는 일을 하게 하기, 간섭과 허용 사이에서 균형 잡기, 성공과 칭찬의 경험을 많이 주기로 나누어 안내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자녀에게 선택권주기, 의사소통의 걸림돌 해결하기 등과의 행복한 아이를 위한 실천 활동들이 공감형 부모 자세를 기르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느끼며 꾸준히 실천할 것을 약속하면서 동영상 ‘자녀는 부모에 따라 변한다’를 감상하였다. 동영상의 내용은 간디와 카루소, 케네디, 워렛버핏, 마틴 루터 킹, 버락 오바마, 빌 게이츠가 부모의 칭찬과 격려를 통해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동영상을 감상하고 아이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부모

는 가르치는 부모가 아니라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하게하고 이를 지켜보면서 칭찬과 격려로 자녀가 성장하는 것을 돕는 자세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를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는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으며 자녀의 성장방향을 알고 싶어 하였다. 김연아 선수처럼 어려서부터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에 몰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연구 참여자 자신의 자녀들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궁금해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다중지능에 대한 개념과 강점지능과 약점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결국 유아기 자녀에게 무엇이가를 선택하여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5차 부모코칭처럼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일을 찾아 갈 수 있도록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지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격려 나누기 시간을 마무리하였다.

5차 부모코칭 행복한 아이를 위한 실천으로는 가족들이 함께 미래일기를 작성해 보도록 안내하였다. 미래일기는 상상일기로 아이가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인지, 그 꿈을 이룬 나이는 몇 살쯤일지, 어느 나라에서 어떤 하루를 일기로 작성해 볼지 연구 참여자는 자녀들과 이야기 나누고 글과 그림으로 일기를 작성할 수 있도록 소개하였다.

5차 부모코칭은 훈육을 위한 코칭Ⅱ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도입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가정에서 실천한 「자녀에게 선택권 주기」 경험을 나누었다. 전개에서는 연구 참여자이 좋은 부모의 조건을 만들어 가기 위해 자녀들이 생각하는 좋은 부모,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 3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좋은 부모의 조건을 만들어 보았다. 또, 유아기 자녀에게 지도해야 할 내용에 대해 지식을 나누었다. 동영상 「자녀는 부모에 따라 변한다」를 감상하고 토의하였다. 마무리에서는 가정활동으로 행복한 아이를 위한 실천 「미래일기」를 안내

하였다.

6) 지혜로운 부모 되기 실천 코칭

2012년 7월 7일 토요일. 부모코칭의 마지막 날이다. 그 동안 성실하게 참여하고 실천해 준 연구 참여자들에게 감사하고 이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정담회를 구성해 보았다. 정담회는 지혜로운 부모·행복한 아이들이라는 슬로건 아래에 연구 참여자와 자녀, 그리고 연구유치원의 교사들이 전체 참여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정담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1부에서는 연구 참여자 부모들이 부모코칭 프로그램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2부에서는 연구 참여자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활동을 전개하였다. 먼저 1부로 진행된 부모코칭 프로그램은 행복한 아이를 위한 실천 「미래일기」를 소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작성한 미래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살에 경찰이 된 아들은 지역주변을 순찰하고 있어요. 오늘 처음으로 경찰이 된 날이라서 기분이 좋은 날이다. 일이 일찍 끝나면 경찰복을 갈아입고 엄마를 만나러 놀러가야겠다. 매일매일 일찍 퇴근해야겠다. 엄마가 보고 싶으니까. . .

(만 3세 A유아 어머니)

32살이 된 우리 아들은 비행기 조종사가 되어 캐나다에서 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행기쇼를 하고 있어요.

(만 4세 D유아 어머니)

우리 아이의 미래 일기는 29살 미술사가 된 나의 모습입니다. 미국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미술 쇼를 하고 있어요.

(만 5세 E유아 어머니)

연구 참여자들은 미래일기를 작성하면서 아이들의 꿈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일기 속에서 아이들은 무엇에 행복감을 느끼는지도 알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미래일기를 발표하면서 연구 참여자의 자녀들이 선택한 미래의 모습이 자녀에게 딱 맞는다는 의견, 재미있는 생각이라는 의견으로 공감하며 미래를 상상하고 아이들에 대한 기대와 꿈을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였다.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꼈다. 이러한 공감대를 가지고 부모코칭이 마지막 시간이지만 앞으로 자녀의 미래를 위해 부모로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약속 10가지를 연구 참여자 부부가 함께 의논하여 기록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행복한 부모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6차 부모코칭 1부를 마무리하고 2부로 지혜로운 부모·행복한 아이들 정담회를 진행하였다. 정담회 장소의 구성은 가족별로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6개의 원형 테이블과 의자를 준비했으며 테이블에는 흰색 탁보와 화사한 꽃이 담긴 꽃병을 마련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별 테이블에 앉자 연구 참여자들의 자녀들이 선생님의 손을 잡고 입장하였다. 그 동안 진행된 부모코칭 프로그램에 끝까지 성실하게 참여해준 감사한 마음의 표현으로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노래선물을 들려주었다. 자녀들의 합창곡은 ‘이 세상에 좋은 건’, ‘아빠, 힘내세요.’ ‘우리들의 마음속엔’이었다. 자녀들의 노래 소리를 들으며 연구 참여자들은 행복한 미소와 앞으로 부모역할에 대한 새로운 다짐을 하는 모습으로 느껴졌다. 자녀들의 노래선물을 마치고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계신 가족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다.

<그림 3> 연구 참여자 자녀들의 합창



다음은 부모코칭을 통해 자녀의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하고 행복한 인생을 돕기 위해 작성한 「행복한 부모 실천 서약서」 10가지를 자녀들에게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 참여자들이 자녀들에게 낭독한 행복한 부모실천 서약서는 다음과 같다.

1. 매일매일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다.
2. 스스로 하도록 보다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3. 화내지 않고 부드럽게 말하겠습니다.
4. 항상 믿어주고 응원하겠습니다.
5. 얼굴을 서로 바라보며 대화하겠습니다.
6. 아이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겠습니다.
7. 책을 많이 읽어 주겠습니다.
8. 가족이 함께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겠습니다.
9. 일찍 퇴근해서 아이와 자주 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 부모가 먼저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 3세 A유아 부모)

1. 너를 위해 늘 기도할게.
2. 너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고 감사할게.
3. 다양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건전한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할게.

4. 가족이 함께 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비워두도록 노력할게.
5. 네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
6. 네가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해줄게.
7. 너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할게.
8.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나누며 함께 선교하자.
9. 계획적인 생활, 규칙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
10. 인생의 멘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

(만 4세 C 유아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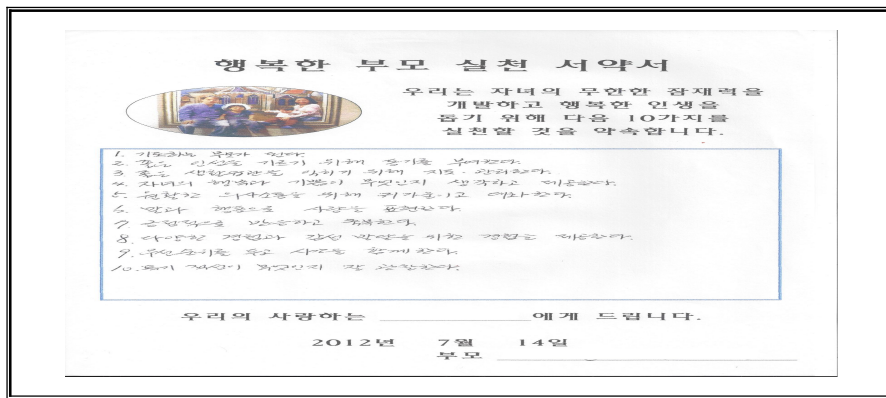
1. 기도하는 부모가 된다.
2. 좋은 인성을 기르기 위한 동기를 부여한다.
3. 좋은 생활습관을 익히기 위해 지도, 관리한다.
4. 자녀의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제공한다.
5.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귀 기울이고 대화한다.
6.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한다.
7.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축복한다.
8. 다양한 경험과 감성발달을 위한 경험을 제공한다.
9. 우선 순위를 두고 시간을 함께 한다.
10. 특기 적성이 무엇인지 잘 관찰한다.

(만 5세 E유아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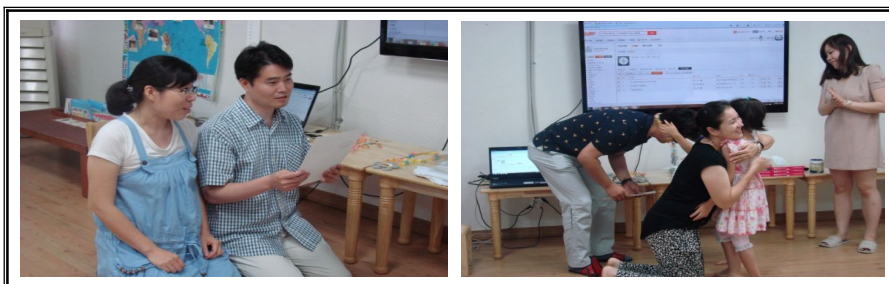
연구 참여자들은 앞으로 나와 자녀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낮추고 행복한 부모실천 서약서를 낭독하였다. 연구 참여자인 부모가 함께 자녀에게 낭독을 해주기도 하고 번갈아 낭독을 하기도 했다. 또 어떤 연구 참여자는 낭독을 진행하던 중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기도 하였다. 아마도 그 동안 부

부족하다고 생각되었던 부모 역할에 대한 미안함과 앞으로의 실천 서약을 다짐하면서 연구 참여자 자신이 부모로서 성장함을 느끼는 감동의 눈물로 이해되었다. 행복한 부모실천 서약서 낭독은 예상과는 달리 매우 엄숙한 분위기로 운영되었고 연구 참여자들은 행복한 부모실천 서약서를 철저하게 지킬 것 같은 각오를 하며 낭독하는 것 같았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자녀들은 부모의 낭독과 눈물에 낫설어 하기도 하고 어색해 하기도 하며 부모님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집중하였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실천 약속을 다 듣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직접 만든 목걸이를 부모님께 걸어주었다.

<그림 4> 연구 참여자가 작성한 「행복한 부모 실천 서약서」



<그림 5> 행복한 부모 실천 서약서 낭독



연구 참여자들이 자녀들과 함께 「가족사랑 티셔츠 만들기」와 「축하 파르페 만들기」 시간을 가졌다. Work Shop 활동을 전개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그동안 부모코칭에서 습득하게 된 적극적인 의사소통의 기술로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가족 티셔츠를 구성할 때에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셔츠로 구성했으면 좋겠는지 토의하고 자녀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조절해가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만 3세의 유아들은 토요일에 유치원에서 부모님과 하는 활동으로 마음이 들뜨고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였다. 해당 연구 참여자 부모는 이와 같은 현상에 긴장하고 놀라 자녀를 조절하려고 하였으나 생각보다 자녀가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자 포기해 버리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자녀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당 자녀의 담임교사가 상호작용하면서 자녀의 태도가 달라지자 연구 참여자들은 교사의 상호작용을 유심히 관찰하기도 하였다.

<그림 6> 가족사랑 티셔츠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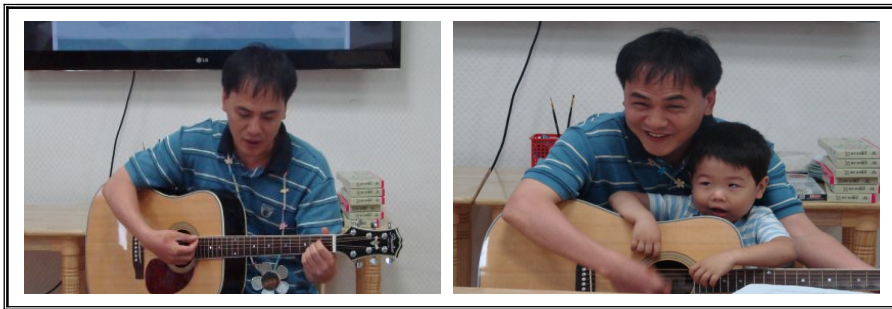


<그림 7> 축하 파르페 만들기



부모코칭을 진행하면서 부모로서의 자신 보살피기 중 취미생활로 기타연주를 하는 연구 참여자가 있었다. 그 동안 부모코칭을 함께 한 연구 참여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타를 연주해 주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함께 연주도 감상하고 노래도 부르며 또 한 장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는 시간이 되었다.

<그림 8> 연구 참여자의 기타 연주



두 달에 걸친 부모코칭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참여한 가족들 간의 기념촬영과 감사의 인사로 모든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

<그림 9> 연구 참여자 가족들과의 기념촬영



6차 부모코칭은 지혜로운 부모되기 실천코칭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6차 부모코칭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1부에서는 5차 부모코칭에서 안내된 행복한 아이를 위한 실천 「미래일기」를 소개하고 「행복한 부모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2부에서는 연구 참여자 자녀들의 합창, 행복한 부모실천 서약서 낭독, Work Shop 활동으로 가족사랑 티셔츠 꾸미기와 축하 파르페를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의 기타연주와 기념사진촬영으로 부모코칭이 모두 마무리 되었다.

2. 유치원에서 부모역할 돕는 부모코칭 적용과정에 따른 부모의 변화

유아기 자녀를 둔 연구 참여자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돕기 위해 연구자는 유치원에서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코칭의 적용방안을 마련하였다. 부모코칭의 적용은 부모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알고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부모의 감정과 태도를 공유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자신의 양육태도를 개선하는 인식과 태도가 변화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그 의미의 맥락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코칭 과정에서 나타난 상황적 맥락에 따른 연구 참여자들의 변화는 부부간의 양육태도의 변화와 양육관 일치로 인한 동반자적 자세 형성,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기술의 향상, 유치원을 자녀 양육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자세 형성인 것으로 볼 수 있었다.

1) 부모 간의 협력적 자세 형성

연구 참여자들은 주로 아버지가 직장을 다니고 어머니는 가정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30~40대의 직장인들이 겪는 일상과 마찬가지로 늦은 귀가와 회식으로 아버지는 가정의 일들을 어머니에게 일임하고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도 부족하였다. 바쁜 아버지를 대신하여 어머니들은 자녀 양육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접하려고 노력하고 변화해가지만 아버지의 경우는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장에 따른 대화와 상호작용이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어머니가 새로운 정보를 통해 자녀 양육의 태도 변화를 아버지에게 요청하지만 전달하는 어머니의 표현능력과 지식의 부족으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고도 하였다. 또 연구 참여자들은 때를 쓰고 고집을 피우거나 반항하는 자녀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양육태도와 그에 따른 체벌의 필요성 여부 등으로 부모간의 의견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이 부모코칭을 통해 부모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 반성하고 바람직한 부모역할은 무엇인지를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그에 적절한 반응을 나누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였다. 이러한 부모코칭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 자신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바람직한 양육 태도와 지혜로운 부모상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부부간의 격려와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감사해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경향이 높아짐을 발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양육관의 일치와 바람직한 부모상을 만들어 가면서 아버지가 양육에 적극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부부가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다.

(1) 양육 태도의 변화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들이 유아기이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다. 연구 참여자 자신들이 어릴 적 경험을 회상해 보면 자신은 지금의 아이들처럼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끝까지 고집하고 떼쓰는 모습이나 반항의 기억은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참여자들의 회상은 지금의 자녀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모코칭 프로그램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부모와의 경험을 회상하는 것을 돕고 연구 참여자 자신의 부모역할과 비교해 보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부모와의 경험을 회상해보면 따듯한 경험이 많이 회상되었는데 연구 참여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녀들에게 얼마나 행복한 경험을 나누었는가를 반성하고 행복한 아이를 위한 실천으로 행복한 가정활동을 실천하도록 지원하였다. 행복한 가정활동은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자녀와의 놀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놀이 속에서 아이를 관찰하면서 관심과 흥미를 발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부모코칭에서 자녀와의 놀이는 자녀와의 소통의 기회뿐만 아니라 성장의 큰 힘이 됨을 알고 자녀와 함께 놀이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변화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와 함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짧은 시간이라고 그 시간동안 아이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부모가 관심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와 마트에서 쇼핑을 하였습니다. 진열된 수많은 상품들 중에 아이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동물과 물고기, 예쁜 신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만 3세 B유아 아버지)

놀이를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이 형성되고 자연 속에서 놀이로 좋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만 4세 D유아 아버지)

어릴 적 부모님들과 좋은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 주고 싶어요. 아이와 비 오는 날에 우산 집을 만들어 그 안에서 맘껏 놀이도 하고 종이인형을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아이가 주문하는 종이 인형 드레스를 그려주고 아이가 색도 칠하고 오려서 놀기도 했어요. 아이는 그 드레스를 무척 좋아해요. 자신이 만든 것이라며 뿌듯해 합니다.

(만 5세 F유아 어머니)

위의 사례와 같이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놀아주는 기회를 계획하고 경험하는 행복한 가정활동을 6주간 꾸준히 실천하면서 자녀와 놀이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는 변화를 보였다.

두 번째로 연구 참여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되풀이되는 자녀와의 부정적인 행동과 표현(부모에게 명령하기, 고집피우기, 반항하기 등)에 대한 어려움을 부모코칭을 통하여 자녀의 부정적인 행동과 표현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이해하면서 자신의 양육태도(명령하기, 무시하기 등)를 점검하면서 자신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반성하고 자녀의 부정적인 행동과 표현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알게 하는 기회로 부모는 자신의 태도를 변화하려고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만 4세 C유아 어머니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늘 순종적이던 아이가 반항하는 모습에 놀랐지만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고 부모는 늘 같은 태도로 지시하고 명령했다. 하지만 아이의 반항은 계속 이어져서 일상이 불편하다고 토로하였다. 그러나 부모코칭을 통해 C유아 어머니는 자신의 양육태도를 바꾸어서 아이의 요구와 감정을 살피고 자녀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해주려고 노력하면서 아이의 반항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고 얼마 후부터 이유 없는 반항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이와의 반응에 늘 사용하던 지시와 명령을 했어요. 아이의

표정을 보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자신도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유치원에 입학한 후 얼마간 그 반항의 모습이 보이지 않다가 요즘 들어 다시 반항하기 시작했다. 일상생활에 대부분이 반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코칭 프로그램에서 배운 바람직한 양육 태도의 기술을 사용해봐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아이의 반항이 보이면 아이의 요구와 감정이 무엇인지 물어보기도 하고 아이의 감정과 요구를 이해한다고 말해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이의 요구를 되도록 수용하고 어려움이 있는 요구는 왜 받아들일 수 없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인가는 반항이 예상되던 일을 순순히 아이가 수용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만 4세 C유아 어머니)

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C유아 어머니의 명령과 지시에 아이도 반항의 태도를 유지하다가 자신의 감정과 요구를 수용하는 부모의 태도 변화에 따라 자녀도 자연스럽게 수용적인 아이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요구에 반응하는 태도가 나타남에 따라 부모와의 어려움이 점차 조절되고 완화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코칭에서 운영된 격려 나누기 동영상인 늙은 아버지와 아들, 어느 아버지의 글, 부모의 자리, 자녀를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끌어라 등을 감상하고 토의하면서 바람직한 부모상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타났다. 또 좋은 부모의 조건은 무엇인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실천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하여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부모의 조건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행복실천 서약서 10계명을 작성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작성한 행복실천 서약서는 지혜로운 부모·행복한 아이들 정담회 시간에 자녀들에게 큰 소리로 낭독하며 앞으로의 실천을 다짐하는 긍정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여졌다. 다음의 만 4세 D유아 어머니

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양육태도에 대한 실천의지를 알 수 있었다.

아이 앞에서 행복실천 서약서를 낭독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아이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 동안 부족한 엄마였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오늘 아이에게 약속한 10가지는 꼭 지키려고 노력할게요.

(만 4세 D유아 어머니)

(2) 부부간의 양육관 일치

부모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들은 배우자와 상이한 양육 태도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이 어릴 적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던 중 한 연구 참여자가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아버지는 엄하게 다스리시고 어머니는 따뜻하게...’ 라고 자신이 어릴 적 경험을 회상하였다. 연구 참여자 중 일부는 부모가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자녀의 부적절한 행동을 지도하는데 어머니는 아이가 느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과 자녀가 모르기 때문에 야단을 쳐서라도 가르쳐야 한다는 입장의 차이로 자녀를 양육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했다. 더불어 쉽게 수정되지 않는 아이의 행동을 부모들은 서로 배우자의 탓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자녀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부모들의 각기 다른 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부모의 동일한 양육태도의 형성은 아무리 부부라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부모코칭은 부모들이 동일한 양육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 동일한 양육태도를 형성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양육태도를 반성하고 부부간의 대화와 격려로 점차 일치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부모저널로 부모로서의 자신을 보살피는 활동을 제안하고 건

강생활, 취미생활, 마음관리, 주변정리, 애정생활을 실천하면서 양육을 한 걸음 떨어진 자리에서 투영해 보는 기회와 남편과의 애정생활로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배우자에게 보내는 격려활동을 통해 그 동안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다양한 감사와 수고를 표현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바탕이 되었다.

육아의 외로움이 안타까웠는데 부모코칭을 통해 육아에 관심 있는 다른 부모들과 어울리면 서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다녀 온 둘만의 여행에서는 우리 아이가 없었던 시절의 모습을 본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상황이 허락한다면 이런 시간을 자주 갖고 싶습니다.

(만 3세 A유아 아버지)

요즘은 당신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나라와 우리 삶에 대해 이야기 하며 서로 격려하고 대화하는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공감하며 느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결심이 되고 우리의 습관과 인성에 깊이 내재되도록 우리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삽시다. 우리 삶의 변화가 우리 C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우리 주변에도 향기로운 삶이 되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만 4세 C유아 아버지)

여보, 아이에 대해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 주고 노력해 주어서 고마워요. 이번 부모코칭에도 애써 시간을 내어 참여해 준 것, 나에게 배려로 그렇게 해준 것 알아요. 부모코칭이 끝났을 때 단순히 내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참석했었다는 차원에서 끝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더 단단하고 행복해지는 결실을 맺게 될 거라고 믿어요. 당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게 보이고 바뀌어 가는 걸 바라보며 행복합니다. 여보, 잘 하고 있어요. 고맙고 사랑해요!

(만 4세 C유아 어머니)

매 주 바쁘게 토요일 오전에 시간을 내어 부모코칭에 참여해 주어서 고마워.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아이들과 생활하는데 더 힘이 되고 그래. 아직은 아이들이 어려서 나도 신경 쓸 것도 많고 당신도 일하느라 바쁘고 힘들 거야. 우리 서로 힘내자~

(만 4세 D유아 어머니)

부모코칭에서 배운 내용을 잘 적용하시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저는 잘 안 되는데... 계속 더 잘해주세요. ^.^

(만 5세 E유아 어머니)

연구 참여자들이 부모코칭을 참여하기 전에는 부부간의 상호작용하는 방법과 이해하는 자세, 자녀를 이해하는 방법, 양육하는 방법이 서로 차이를 보였으나 부모코칭을 참여하면서 점차 서로의 어려움을 알고 이해를 넓혀가는 모습을 보였다. 어떤 의미에서는 한 가정의 부부로서 동일한 양육관을 일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부부가 서로 도와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부모가 함께 자녀 양육에 참여해야함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코칭에서 나타난 중요한 변화로 보인다. 앞으로 이러한 변화가 기반이 되어 부부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자녀의 양육에 대해 협력적인 자세를 가지고 양육하는 태도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모들의 변화는 부모코칭의 중요한 역할이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기술 향상

(1) 의사소통의 걸림돌 해소하기

연구 참여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녀와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의사소통의 걸림돌이 되는 전략으로 명령하기, 충고하기, 회유하기, 관심 돌리기, 심리분석하기, 비판하기, 도덕적 판단하기, 해결사 노릇하기

등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걸림돌 전략들은 자녀와의 소통을 방해하고 문제 상황을 만들었다. 부모코칭은 부모들에게 자녀와의 문제 상황에서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걸림돌 전략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인 의사소통의 5단계를 제안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난 자녀와의 문제 상황에서 그 동안 사용해 왔던 익숙한 의사소통의 걸림돌 전략 대신으로 적극적인 의사소통의 자세를 선택하면서 점차 자녀와의 소통이 원활하게 변해가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맥락을 다음의 연구 참여자 이야기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우리아이는 식사시간만 되면 우리 부부에게 ‘조용히 밥 먹어.’라는 이야기를 자주합니다. 처음에는 명령조의 아이 말을 고쳐주려고 밥을 열심히 먹으라고 했지요. 이후 반복되면서 아이의 표정을 통해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물어 보았어요. 그러자 아이는 밥 먹을 때 얘기하지 말라고 부모가 얘기 했는데 부모가 얘기하는 것이 틀렸다고 얘기하지만 무언가 불편한 마음 상태인 것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아이와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부모와 같이 대화하고 싶은 욕구와 밥을 먹기 싫은 마음이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밥 먹기 싫어서 부모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 보다 대화를 짧게 하면서 밥 먹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겠어요. 아이가 궁금해 하는 것을 위주로 대화를 나누니 아이와 식사하는 시간이 즐거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식사시간에 우리에게 명령조의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만 3세 A유아 아버지)

연구 참여자들이 선택한 적극적인 의사소통의 자세로 자녀들도 변화를 보였다. 늘 부모에게 명령조로 이야기하던 습관이 점차 해소되고 부모의 의견에 반항하기보다 수용하는 자세가 늘어났으며 예전처럼 문제 상황이 자주 발생하

지 않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다음은 부모-자녀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변화한 자녀들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이다.

나를 따라하던 명령조의 말씨가 사라졌어요.

(만 3세 A유아 아버지)

제가 명령하지 않고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니 아이도 나의 이야기에 수용적인 태도로 바뀌었어요.

(만 3세 B유아 아버지)

아이와 토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선택하다보니, 아이가 주도적이고 문제 상황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 것 같아요.

(만 5세 E유아 아버지)

부모코칭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와의 문제 상황을 적극적인 의사소통으로 해결하면서 의사소통의 걸림돌이 되는 전략들을 해소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 참여자들의 변화는 일상생활에서 자녀와의 갈등을 줄이는 기회가 되었고 자녀도 부모의 의견에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 일상이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의사소통의 걸림돌 전략을 점차 해소하면서 적극적인 의사소통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경청하기

자녀와의 의사소통 향상의 첫 걸음은 경청의 자세이다. 경청은 의사소통 과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뜻이며 귀와 눈으로 경청하고 직관과 사고로 경청하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의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것은 자녀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잘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무언의 메시지가 된다. 하지만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보다는 건성을 대답함으로써 부모가 관심이 없음을 알게 하여 자녀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유치원에 있었던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의 친구 이름도 모르고, 상황도 잘 몰라서 대충 맞장구 치고 건성건성 대답했어요. 아이를 위한 태도보다 귀찮은 마음에 아이의 관심을 돌리도록 이야기했어요. 제가 아이에게 '네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고 나는 관심도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만 것 같아요.

(만 4세 C유아 아버지)

연구 참여자들 역시 만 4세 C유아 아버지와 유사한 사례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경험은 부모-자녀 관계를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문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부모코칭에서 경청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와 적극적인 경청의 자세로 부모의 말을 줄이고 자녀가 말할 기회를 많이 주는 것과 잘 경청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눈을 마주치고 듣기, 가끔씩 몸짓과 언어로 피드백 해주기, 자녀의 말을 분명하게 이해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 관련된 질문하기, 아이의 이야기가 길면 요약해주는 5가지를 지원해줌으로써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의 일방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자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려는 반응으로 변화되어 갔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연구 참여자들의 부정적인 양육경험이 해소되고 완화되어지는 경향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다음의 만 3세 A유아 어머니의 이야기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리 신랑은 야근이 많은 편이라 귀가가 자주 늦어요 늦게 까지 일하고 들어오는 아빠를 보고 우리 아이는 반갑게 인사하기는 커녕 '아빠는 거짓말쟁이'라고 소리를 질러요. 처음에는 아이의 반응에 놀라기도 했고 아빠에게 명령조로 이야기하는 태도와 거짓말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려주

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아이를 야단쳤어요. 하지만 아이는 아빠의 늦은 귀가 때마다 반복적으로 ‘아빠는 거짓말쟁이’를 왜 쳤지요. 그래서 부모코칭 프로그램에서 배운 적극적인 의사소통의 5 단계를 활용해 보기로 했어요. 먼저 아이의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기 위해 아이가 말한 ‘아빠는 거짓말쟁이’라고 왜 했는지 물어보았어요. 아이는 아빠가 유치원에 데려다 주면서 오 늘은 일찍 와서 놀아준다고 이야기했는데 너무 늦게 와서 속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때서야 저는 아이가 아빠와 놀고 싶은데 늦은 귀가로 놀이할 수 없음을 속상해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빠와 아이가 서로의 마음을 말할 수 있도록 간식을 마련해서 서로 이야기하도록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날은 아빠와 이야기도 나누고 적은 시간이지만 놀이도 했어요.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해주니까 아이는 자신의 불편함 마음을 해소하는 것 같았어요.

위의 만 3세 A유아 어머니처럼 부모코칭에 참여한 부모들은 자녀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자세로 자녀와의 소통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자녀와의 소통이 양육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게 되고 부모 자신의 소통 기술을 바꾸어 주는 계기가 된 것으로 나타났 다.

(3) 감정 이해하기

자녀와의 일상생활에서의 부정적인 양육경험으로 인해 소통이 어려웠던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코칭으로 통해 점차 소통의 기술이 향상되고 있었다. 하지만 자녀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경청해주면서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자기감정을 인식하고 수용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가 어느 날 폭풍처럼 표출하는가하면 신체적인 통증과 스트레스로 질병을 얻기도 한다. 자녀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표현하도록 돕는 것은 타인의 감정도 이해하는 사회성 발달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조절하

는 기회와 연습도 제공하게 된다. 자녀의 감정을 알아내려면 자녀의 음조를 자세하게 경청하고 자녀가 느끼는 감정에 대한 단어를 마음속으로 찾아내어야 한다. 이러한 공감적 경청은 자녀가 느끼는 감정을 부모가 느끼면서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배려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렇게 공감적 경청은 자녀로 하여금 부모에게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게 하는 기술이 되기도 한다.

부모코칭은 연구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자녀들과 공감적 경청을 할 수 있도록 자녀와 대화할 준비도 테스트를 제안하고 자녀에게 선택권 주기 활동을 안내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자녀에게 선택권 주기 경험은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자녀의 발달에 적합한 제한 안에서 선택하게 하는 양육태도의 기술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제 상황에 대한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녀에게 적합한 제한을 통해 쉽게 자녀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녀는 주도적인 자세를 형성하게 되고 부모는 자녀와의 원활한 소통기술의 향상으로 문제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는 긍정적인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 다음은 자녀에게 선택권 주기를 통해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문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결한 연구 참여자의 만 3세 B유아 아버지의 이야기이다.

양치질을 할 때면 매 번 긴 시간이 소요되어 제가 억지로 대신 해주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때마다 아이는 불편한 표정으로 때를 쓰곤 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어서 아이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었어요. 그런데 아이에게 어떤 선택을 하게 해야 하는 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먼저 아이를 관찰하면서 왜 양치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알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양치질을 하는 동안 양치질을 하지 않고 세면대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아이에게 ‘네가 양치질을 할 때 물놀이 하는 것을 좋아하는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고 ‘맞아, 아빠 어릴 때 물놀이를 아주 좋아했지.’라고 이야기하며 아이의 감정을 수용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는 이전이 반응과 다른 나를 쳐다보며 함께 놀이하겠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놀이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지금은 양치질을 하고 자야할 시간이

니 양치질을 하는 것이 어떠겠냐고 이야기하고 혼자 양치질을 다 할 것인지와 네가 어려운 안쪽의 양치질은 아빠가 도와주고 나머지는 스스로 하는 것 중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아이는 더 이상 물장난을 하지 않고 어려운 쪽만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위의 연구 참여자가 이야기 한 것처럼 아이의 양치질 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가지고 아이의 양치질을 대신해주곤 하였으나 부모코칭을 통해 적극적인 의사소통의 기법을 활용하여 물놀이를 좋아하는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고 아빠의 경험을 자녀에게 소개하면서 자녀에게 깊은 공감을 얻어냄으로써 자녀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부모 역시 양육의 어려움을 조절하고 완화시켜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유치원을 자녀 양육의 동반기관으로 인식하는 자세 형성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코칭은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함께 나누면서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연구자가 이끌어 주는 코칭의 기술이 핵심요소이다. 부모코칭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이 부모로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다수의 부모가 겪는 어려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용기를 얻기 바랐으며 또한 그 어려움에 대한 해소방안을 양육서나 인터넷을 통해 얻는 것보다 실제적이고 연구 참여자 자신의 자녀에게 적합한 정보로 실천할 수 있도록 유치원이 돕고자 노력하였다. 자료의 분석 결과 부모코칭에서 유치원은 부모들의 어려움을 다양한 방법으로 나누는 장이며 부모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장임을 발견하게 되었다. 따라서 부모코칭을 통한 유치원의 의미는 나눔의 장, 부모와 함께 하는 장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부모코칭에서 유치원의 역할은 나름대로의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의미가 연결되

어 유치원을 부모와 함께 나누는 장으로 새롭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나눔의 장

부모코칭을 진행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연구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연구 참여자가 한 가정의 부부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토요일에 연구 참여자의 자녀를 돌보아 주는 문제와 편안한 느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유치원은 연구 참여자의 자녀들이 부모코칭이 있는 날에는 또 다른 교실에서 활동이 전개되도록 준비하였다.

유치원에서 운영되는 부모코칭에서 연구 참여자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데 편안하고 친밀한 분위기가 되도록 환경구성에서 유아들의 작품과 활동 내용을 전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코칭을 참여하러 오는 날에는 자녀들의 작품을 감상하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웃으며 더욱 친밀해진 모습을 보였다. 또, 연구 참여자들의 자리를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눈빛을 교환할 수 있는 ㄷ자 형태로 구성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유치원 교문을 들어서면서부터 음악이 들리도록 했다. 항상 다과를 준비하여 아침 식사가 원활하지 못한 연구 참여자를 위한 배려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코칭에 대한 편안함과 즐거움을 가져다주었다. 다음은 연구 참여자가 부모코칭을 위해 유치원에 방문할 때 항상 들려오는 음악이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오늘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를 하게 한다는 이야기이다.

토요일 아침, 남편과 아이를 준비시켜 오는 일도 참 분주한 일이에요. 오늘 아침에는 아이가 늦장을 부려서 좀 서두르다 보니, 문제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 동안 배움은 어디로

가고 아이를 다그치며 유치원에 도착했지요. 그래서 불편한 마음으로 유치원을 들어서는데 아이가 노래를 흥얼거리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인지 유원장에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더라고요. 노래를 부르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제 맘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동아리실로 들어오면서 오늘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만 4세 D유아 어머니)

위의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처럼 부모코칭을 시작하기 전에 들었던 음악들은 연구 참여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연구 참여자들끼리 자녀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유치원의 나눔의 역할은 연구 참여자들의 부부끼리 또는 참여 가족들끼리 교류하게 하였고 유치원 밖에서도 홈 스쿨을 함께 하는 등의 연구 참여자들 간의 나눔의 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되었다.

부모코칭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방안으로 지식과 경험 및 정보를 나누는 활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를 위해 유치원은 연구 참여자들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어려움을 종합하여 분류하고 실천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나누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은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쌍방향적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연구 참여자들끼리의 소통,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어려움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론적 지식을 실천방안으로 제공하면서 유치원이 갖추고 있는 물적·인적 자원을 모두 나누며 연구 참여자들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눔의 장을 마련하였다.

(2) 부모와 함께하는 장

부모코칭은 유치원에서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교육이다. 유치원은 연구 참여

자와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과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유치원 교육과정 중
에서 나타난 자녀의 발달 및 특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
가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나누기에 적합한 기관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어려움을 자녀와 유사한 또래를 가
진 부모나 인터넷, 양육서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를 통해 부모들의 어
려움이 해소되기보다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가정에서 겪는 부모들의 양육 어
려움을 반영하는 TV 프로그램으로 '60분 부모'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등
의 시청물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많은 부모들이 '60분 부모' 나 '우리 아이가 달
라졌어요'를 신청하기에는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모들이
도움을 받기에 어려움이 있다. 유치원은 유아기 자녀가 다니는 교육기관인 만
큼 가정과의 연계가 강조되는 기관이기도 하다.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이 부모
역할을 돕는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유치원과 가정이 연계가 강
조되는 유치원의 역할 중의 하나이다.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코칭을 마치고 난
후에도 연구 참여자의 가정들은 어려움이 발생되었을 때 유치원에 전화와 방
문을 통해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해소하려는 태도가 나타났다. 또한 연구 참여
자들과 교류하는 학부모들 중에서도 자녀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을
방문하는 모습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부모코칭
에서 유치원의 의미는 부모와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교육기관으로 인식이 새
롭게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유치원에서 부모코칭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을 알고 부모역할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부모코칭의 적용과정은 어떠한지를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를 통해 유치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모역할을 돕는 지원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나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유치원에서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코칭의 적용과정

본 연구를 통해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코칭의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맥락을 살펴본 결과는 부모코칭에서의 코칭기법의 효과, 부모의 실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부모코칭, 부모코칭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형성, 양육의 협력자로 부부가 이끄는 부모코칭으로 나타났다.

(1) 부모코칭에서의 코칭기법의 효과

부모코칭에서의 코칭은 상대방의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기법을 일반인들이 공유하기 쉬운 형태로 체계화된 이론으로 연구 참여자인 부모 자신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자녀와의 어려움을 스스로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 동안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정보를 대집단으로 전달하는 강의식이었다. 부모들은 이러한 일반적인 정보를 주는 부모교육에 익숙해져 소극적인 자

세로 부모코칭을 시작하였으나 자신을 소개하고 참여 동기 및 어려움에 대한 경험을 나누는 쌍방향적 운영방안으로 부모들은 자신의 어려움의 원인을 발견하고 스스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자세로 참여하였다. 부모코칭이 운영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연구자의 코칭 역할이 점차 줄어들게 되고 연구 참여자인 부모들이 서로를 코칭하는 모습, 부모역할의 어려운 문제를 다양한 태도로 해결하는 적극적인 참여 모습이 나타났다. 이러한 부모들의 변화는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의 역할을 볼 때 과거에는 보호자, 양육자, 훈육자로 충분했던 부모역할이 발견자, 연계자, 도전자, 동기부여자로서 부모역할이 구체화되고 확대되어졌다는 연구결과(도미향, 채경선, 2006)와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다.

(2) 부모의 실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부모코칭

김희진(2002)은 가족지원에 있어서 유아교육기관에서 다양한 부모교육활동을 실행하고 있었으나 부모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부모교육을 위한 계획과 지원체계도 미흡하다고 하였다. 부모코칭은 부모들의 요구도 조사를 통해 각각의 가정에서 부모들이 가지는 어려움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으로 해결을 돕고자 하였으므로 연구 참여자의 어려움 해소에 높은 만족도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부모코칭은 부모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가족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3) 부모코칭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형성

부모코칭을 통해 부모들은 연구자와의 교류, 연구 참여자인 부모들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부모코칭에서 부모들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하는 방안들을 모색하면서 교류하는 자세가 자연스럽게 형성하게 되었다.

또한 유치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은 일회적 행사로 이루어지거나 참여한 부모들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일어나지 않고 있으나 부모코칭은 연구를 마친 후에도 연구자, 연구 참여자인 부모들 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유치원에서 가정과의 연계가 일반적으로 유치원-가정으로 운영되는 차원을 벗어나 한 단계 향상된 가정-가정의 교류를 통해 유치원과 가정의 동반자적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 김희진(2002)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자녀와 주변의 부모, 가정, 교육기관, 지역사회, 국가를 포함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연구처럼 부모코칭은 부모들에게 유치원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4) 양육의 협력자로 부부가 이끄는 부모코칭

부모코칭은 부모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양부모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부부간의 양육태도가 일치되고 서로를 양육의 협력자로 인식하는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단순히 한 부모만의 참여보다 양부모의 참여가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유치원에서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코칭의 적용에서 나타난 부모들의 변화

본 연구에서 부모코칭을 적용하면서 나타난 부모들의 변화는 일상생활에서 부모역할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유치원을 자녀교육의 동반기관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먼저, 부모들이 자녀와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첫째, 부모들

이 선택한 부적절한 양육태도이다. 즉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유아기 경험에서 자신은 부모의 말을 잘 들었던 것으로 회상하며 자신의 부모들에게서 받은 양육태도를 실천해보지만 자신의 자녀들이 보여주는 고집 피우기, 반항하기, 거부하기 등의 다양한 태도를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이러한 결과에서 부모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알고 변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 자신의 양육태도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양육태도에 대한 지식을 나누며 이를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양육태도를 반성하고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실천해가면서 자녀들이 고집을 피우거나 반항하고 거부하는 태도가 변화하게 되었다. 부모들의 꾸준한 바람직한 양육태도 실천의 결과들은 자녀와의 부정적인 양육 경험이 점차적으로 조절되고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모들의 양육태도의 변화를 통한 긍정적인 양육경험의 맥락은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가 바람직한 양육태도와 그 기술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자녀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기를 기르는 부모에게는 더 필요하다는 연구결과(Miller, 1995)와도 일치한다. 아동발달 단계에 대한 지식습득, 적절한 양육태도와 그 방법에 대한 교육 등은 부모로 하여금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갖게 만든다(Kochanska et al., 2000)는 연구결과에서도 지지하고 있다. 또한 부모역할의 변화는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효능감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 자신이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효능감이 있다고 지각할수록 자녀에게 더 반응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일관된 행동을 한다는 연구결과(Montigny & Lacharite, 2005)에서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바람직한 양육태도에 대

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치원에서 부모역할을 돕기 위해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양육태도와 기술을 지원하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부모코칭을 통해 자신의 양육태도를 반성하고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가지고 자녀와 생활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부모역할에 대한 안내와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많은 부모가 서로 다른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자녀와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려움은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강화시키게 되고 자녀에게 가치의 혼란을 초래하게 한다. 본 연구 참여한 부모들도 자녀의 문제 행동에 대한 부모 간의 상이한 태도로 인해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지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문제해소가 지연되면서 이를 배우자의 원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부모양육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배우자와의 관계였다(Cabrera et. al., 2004)는 연구결과에서도 같은 맥락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우 지금까지의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시되어 왔던 부모교육, 부모 상담도 필요하지만 부모코칭을 적용할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다. 부모코칭을 통해 부모가 서로 동일한 양육태도를 기르기 위해 양육기술을 나누고 배우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코칭을 통해 연구 참여자 자신의 보살핌을 제공하는 부모로서의 자신을 보살피는 실천기회와 배우자에게 보내는 격려활동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가정과 자녀 양육을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부모들은 서로 돕고 함께 양육해야하는 존재로 인식하면서 대화를 통해 양육태도의 일치로 향하는 변화를 보였다.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서로를 동반자로 인식하면서 자녀와의 관계도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

구 결과에 의하면 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의 양육태도의 일치는 부모역할을 원활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은 서로를 양육의 협력자로 인식하고 관계를 새롭게 향상시켜 자녀양육을 함께 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부모코칭을 적용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의 문제 행동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의견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자녀의 입장에서 고려해보면 부모 또한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는 것과 같다. 이는 부모들이 자녀들과 소통하는 방법적 기술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부모들에게 의사소통의 걸림돌, 적극적인 의사소통 5단계, 자녀에게 선택권 주기 등의 실천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적용하였다. 이러한 부모코칭을 통해 부모들은 자녀와의 문제 상황에서 자녀와 소통하는 기술을 익히고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태도의 변화가 나타났다. 부모들의 적극적인 소통의 자세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양육경험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결과에서 부모의 역할이 자녀의 발달뿐만 아니라 부부관계 및 부모성장을 증진시킨다(이정순, 2003)는 연구결과와 관계가 있다. 따라서 부모들에게 자녀의 발달수준에 맞게 소통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모들의 변화는 부모코칭이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유치원을 나눔의 장, 부모와 함께 하는 장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기관이 부모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인적·물적 자원을 나누며 부모들과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 정보, 경험, 격려를 나누었다. 부모역할을 돕는 나눔 활동은 부모들의 개별적인 요구에 맞추어 부모코칭을 구성하고 진행하였기 때문에 부모들은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양육 태도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 동영상 자료, 어려움을 해결

하는 실천방안제시, 테스트 자료의 제공들은 참여부모들로 하여금 자기반성과 함께 스스로 변화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데 효과적이었다. 이는 기존의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모역할지원(김경미, 2009; 이희란, 2001; 조미상, 2003; 허정명, 2000)이 전달위주의 일방적인 부모역할지원에 문제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부모들은 부모역할지원을 통해 일반적이고 총체적인 부모교육이나 정보전달이 아닌 자신들의 아이를 양육하는데 실제적인 도움과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싶어 했다는(홍연애, 2000) 연구결과도 지지한다. 또한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하고 각각의 부모들에게 적절한 내용을 부모코칭으로 구성하여 적용함으로써 일반적인 정보가 아닌 실제 양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움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나눔의 역할은 부모로 하여금 유아교육기관을 자녀 양육을 함께 하는 동반 교육기관으로 새롭게 인식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부모 스스로 유아교육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자세를 형성하게 되었고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합한 도움을 받을 있으므로 부모와 자녀가 모두 지원받는 체제가 구축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의 부모코칭은 효과적임을 증명했다고 본다.

2.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1) 유치원에서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코칭의 적용방안

일상생활에서 부모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모코칭을 실행하였다. 부모들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양육태도가 부적절한 점, 부부간의 양육태도가 일치하지 않은 점,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 자녀의 문제 행동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태도가 형성되어 않은 점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부모코칭은 부모들이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마음열기, 자녀와의 소통 코칭, 훈육을 위한 코칭 I, 훈육을 위한 코칭 II, 유아기 자녀를 위한 코칭, 지혜로운 부모되기 코칭으로 실행하였다. 부모코칭의 실행은 매 회기마다 부모들이 어려움을 발견하고 실행하면서 부모 스스로 자신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를 갖게 되었다. 부모코칭은 부모들의 요구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부모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부모코칭의 적용과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조건은 부모들의 참여율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 부모코칭을 통한 부모들의 변화양상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코칭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부부를 자녀 양육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자세 형성, 자녀와의 의사소통 기술의 향상, 유치원을 자녀 양육의 동반기관으로 인식하는 자세가 형성되는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부모코칭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부모역할이 개선되면서 변화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부모코칭을 통한 연구 참여자들의 변화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의 문제 행동에 대한 부모들의 태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문제행동이 해소되기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잦은 문제행동의 원인을 부모들이 서로 배우자의 탓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자녀와의 관계가 개선되는데 어

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이 부모코칭을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가 일치되고 서로를 양육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부모들의 변화는 부모들이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알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기회로 자녀와의 관계가 개선되었다. 또 부모가 함께 양육에 참여해야한다는 인식의 형성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와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점차 일치된 양육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둘째, 부모들이 자녀의 문제 행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자녀와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자신의 유아기 경험처럼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자녀의 문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고집부리기, 반항하기, 거부하기 등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러한 어려움이 부모코칭을 통해 부모 자신이 자녀와 대화하는 방법을 점검하고 부모들이 자주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걸림돌 전략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사소통방법과 자녀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법을 실천하면서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지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부모들의 변화는 의사소통의 걸림돌 전략을 해소하고 자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와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

셋째,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코칭에서 유치원은 나눔의 장, 부모와 함께 자녀 양육을 돕는 교육기관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부모코칭은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부모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돕기 위한 부모교육이다. 부모역할을 돕기 위한 부모코칭에서 유치원은 유치원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나누었다. 부모와 자녀들의 기본적인 배경과 정보를 활용하여 부모들의 어려움을 실제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실천하는 기회를 나누었으며 부모들이 부모코칭에 참여하는 동안 자녀들이 다른 교실에서 활동이 전개되도록 도와주었다. 이러한 유치원의 나눔 역할은 유

치원이 부모의 어려움을 돕는 기관으로 인식하여 자녀와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유치원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여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의 도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유치원에 소속된 학부모는 물론 유치원 주변에 유아기 자녀를 둔 이웃까지 자녀와의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요청해오기도 하였다. 또한 부모코칭의 참여 부모들은 자연스럽게 교류하면서 자녀를 위한 부모의 재능을 나누는 홈스쿨을 운영하는 등의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났다. 부모들은 유치원의 나눔 역할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유치원을 단순히 자녀를 교육하는 기관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부모와 함께 자녀를 교육하는 동반자로 인식하고 유치원을 통해 부모들 자신도 이웃과 나누는 다양한 모습이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코칭에 나타난 유치원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유치원이 부모를 돕고 가정을 지원하면서 유치원을 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기관으로 새로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3. 제언

이상의 논의 및 결론을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유치원에서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코칭 적용으로 유치원이 부모들의 어려움을 실제적으로 돕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였다. 이는 부모 역할에 대한 지원의 방향을 제시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들이 많이 나

타나고 있으므로 조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유치원은 단순히 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차원에서 벗어나 가정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제공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어려움을 돕는 부모코칭 적용에 관한 연구이다. 하지만 가족 내의 자녀 연령이 유아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입양가정 등 다양하다. 현대사회에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부모코칭은 현장개선연구이며 부모역할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자녀에 대해 부모보다 전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고 자녀의 발달과 수준을 잘 알고 있는 학급 내의 담임교사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가정과의 연계에 더 의미 있는 부모코칭의 실천이 될 것이므로 후속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참 고 문 헌

- 강문영, 최진아, 이숙(199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1-11.
- 고남희 (2009). 교류분석 활용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부모효능감 및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미 (2009).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모역할지원 멘토링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금주, 유윤영 (2005). 부모참여. 정민사.
- 김미옥 (2011). 부모코칭 프로그램이 부모의 분노, 양육스트레스 및 부모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태, 오정요, 원윤선, 정지은 (2009). 아이의 사생활. 마루한.
- 김소영 (2008).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부모교육 요구와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진, 배지현, 이경화 (2009). 자녀이해 및 발달지원을 위한 부모역할 프로그램의 의미 : 프로그램적 의미와 경험적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영육아보육학, 59, 57-80.
- 김연진, 배지현, 이경화 (2010).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문학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적용에 관한 실험연구. 어린이문화교육연구, 11(2), 153-177.
- 김영옥 (2012). 부모교육. 경기: 공동체.
- 김영철, 김지은, 이영선, 이호준 (1997).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종합보고서.

- 청소년상담연구, 1-159.
- 김오남 (1999). 편모자녀의 가족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 한국아동학회, 20(1), 99-114.
- 김유정 (2007). 분노조절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검증.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설 (2009). 육아지원기관 부모교육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숙 (2012). 부모역할 교육이 유아기 부모의 양육태도 및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영 (2012). 자녀의 유치원 생활 및 교육 이해를 돕기 위한 부모교육 실행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희 (2011). 에니어그램을 활용한 부모코칭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영, 김진원, 전선옥 (2001). 유아·부모·교사를 위한 부모교육. 서울: 창지사
- 김현주 (2008)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부모의 분노수준, 양육 스트레스 및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경 (2008). 교사들에게 적용한 적극적 부모역할 프로그램(A.P.T)이 학급 운영 능력향상에 미치는 효과.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진 (2002).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모교육에 대한 조사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40(2), 239-260.
- 김희진 (2005). 현대부모 및 가족지원프로그램: 포괄적 관점. 서울: 창지사.
- 김혜린, 김희진 (2002). 유아교육기관의 질적 환경에 따른 부모참여. 교육과학연구, 33(2), 93-119.
- 권기남, 권혜진, 민하영, 이순형, 정윤주, 최윤경, 한유진 (2012) 부모교육. 학지

사.

- 도미향, 채경선 (2006). 부모자녀관계 코칭기법 적용을 위한 기초연구. 부모 교육연구, 3(2). 69-89.
- 문영보, 최복기 (2009). 가족-보육시설 연계활동에 대한 부모참여 실태 분석. 한국보육학회지, 9(2), 35-52.
- 박명호 (2012). 유아교육기관의 부모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아버지의 인식과 요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실 (1981). 유아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및 부모참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원용 (2012). 어머니가 인식한 부모역할만족도 및 가족건강과 자녀와의 상호작용 및 자녀의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숙 (2006). 보육시설 부모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종성 (2009).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이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가 중학생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장오 (2008). 현장연구방법. 서현사.
- 배지희, 박은영, 박세진, 김은혜 (2012). 유아기 자녀의 교육 및 훈육에 대한 어머니들의 담론 분석.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6(1), 61-85.
- 배지희 (2008). 유아교육현장에서의 부모참여 실제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교육인류학연구, 11(1), 147-176.
- 서유리안나 (2010). 감정코칭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양육효능감 및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정애 (2008). 다문화가정자녀 보육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경기북부지역 보육교사를 중심으로. 한국여성교양학회지, 17, 33-58.
- 송정애, 정혜은, 김미영 (2008). 부모교육. 파주: 학현사.
- 신옥순 (2005). 교육 연구를 위한 심층면접법의 의의와 활용. 교육논총, 25(1), 121-139.
- 유영선 (2010). 부모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영유아부모의 인식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유자 (2000).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희 (2005). 부모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부모코칭. 한국가족복지학회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 이소희, 서우경 (2008). 부모교육에서의 코칭 접근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탐색적 연구. 부모교육연구, 5(1), 5-21.
- 이영자 (2007). 적극적인 부모역할 훈련(APT)프로그램과 부모의 양육태도.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원영 (2008). (영유아교사를 위한) 부모교육론 서울: 북카페
- 이원영, 배소연 (2000).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 한국아동학회, 21(2), 17-31.
- 이인정 (2009). 유치원 부모교육에 대한 아버지의 경험 실태 및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순 (2003). 유아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학회지, 8(2), 183-199
- 이희란 (2001) 유아교육기관의 부모교육 실시현황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효선 (2010). 가정 연계를 위한 유아교육기관의 부모참여 실태 및 인식 요구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안진·김연진 (1997). 부모교육. 동문사.
- 유효순, 이원영 (2003). 부모교육.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장성애 (2007).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지원 (2005). 부모-교사의 협력적 관계형성 및 상호이해를 위한 부모참여 활동.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계순 (2007). 부모교육 실태 및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순화 (2008). 부모교육. 서울: 학지사.
- 정진우 (2005).
- 조미상 (2003). 유치원에서의 부모 교육 유형 및 내용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미영 (2008).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모참여 활동 현황 및 교사의 인식.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정현 (2006). 보육시설에서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국.공립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양희 (2000) 중류층과 저소득층 유아 어머니의 부모교육 요구도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광희 (2004). 부모-교사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로서의 부모 참여에 대한 교사의 인식.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형윤 (2007). 유아교육기관의 부모 교육·부모 참여에 대한 맞벌이 부모의 인식 및 요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정명 (2000). 어린이집 가족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및 운영실태조사.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경미 (2003). 보육시설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참여 실태 및 인식요구조사. 군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연애 (2000). 유치원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분석. 대덕대학 논문집, 18, 427-435.
- 한국부모코칭센터 (2005). 우리 아이 잠재력 개발을 돕는 부모코칭 전략. 워크숍 자료집, 15-28.
- Spradley, J. P. (2006). 참여관찰법 [*Participant observation*]. (신재영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1980에 출판)
- MICHAEL H. POPKIN (2007). 부모코칭 프로그램: 적극적인 부모역할 NOW 만 5~12세 자녀의 부모를 위하여. 서울: 학지사.
- Cabrera, N. J., Ryan, R., Shannon, J. D., Brooks-Gunn, J., Vogel, c., Raikes, H., Tamis-Lemonda, C. S. (2004). Father in the early Head Start national research and evaluation study: How are they involved with their children? *Fathering: A Journal of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About Men As Father*, 2, 5-30.
- Kochanska, G., & Murray, K. T. (2000). Mother-child mutually responsive orientation and conscience development: From toddler to early school age. *Child Development*, 71(2), 417-431.
- Miller, S. A (1995). Parents's attributions for their children's behavior. *Child Behavior*, 66, 157-158.
- Montigny, C., & Lacharite, C. (2005). Perceived parental efficacy: Concept analysi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49(4), 387-396.

부 록

1. 부모코칭 적용을 위한 조사지

「부모코칭」 적용을 위한 조사지

안녕하세요? 우리 유치원에서는 각 가정의 부모님들 대상으로 「부모코칭」 적용에 관한 연구를 위해 학부모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평소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고 계신 의견을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면 부모코칭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각 가정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 조사지의 응답 자료는 무기명으로 작성되며
연구를 위한 통계 이외의 목적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은별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길 바라며
본 설문 조사지에 응답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OO 유 치 원

I. 기초자료 조사

(다음의 문항은 기초조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해당 부분에 ○표 해 주세요.)

1. 응답자는 어느 분입니까?

아버지	어머니	기타

2. 응답하시는 분의 나이는 몇 세이십니까?

25~30세	31~40세	41세 이상	기타

3. 응답하시는 분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직장인	가사	기타

4. 현재 살고 있는 가족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핵가족	확대가족(조부모 동거)	기타

5.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위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주택가 (아파트단지)	상가	기타

II. 유치원에서의 부모코칭의 필요성

(다음의 문항들은 부모코칭의 필요성 관련 내용입니다.

해당 부분에 ○표 해 주세요.)

1. 유치원에서 부모코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다 () ② 보통이다 () ③ 필요 없다 ()

3. 자녀교육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나 곤란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 ① 전문 서적이나 잡지를 본다. ()
- ② 다른 부모들에게 물어보거나 의논한다. ()
- ③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그냥 내버려둔다. ()
- ④ 유치원 선생님이나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한다. ()
- ⑤ 기타 ()

4. 자녀 교육에 대한 지식을 주로 무엇을 통해 얻기를 원하는지 1개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책 _____
- ② 잡지 _____ ③ 신문 _____
- ④ 라디오 _____ ⑤ TV ⑥ 강연회 _____
- ⑦ 팸플릿 _____ ⑧ 유치원 부모코칭 _____
- ⑨ 개인상담 및 면담 _____
- ⑩ 선배, 친구, 친지 _____ ⑪ 기타 _____

IV. 가정과 유치원과의 관계성

(다음의 문항들은 가정과 유치원과의 관계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부분에 ○표 해 주세요.)

1. 앞으로 가정(가정)과 유치원(교사)의 이상적인 관계는 어떠한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가정이 자녀 교육의 중심이 되고 유치원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 ② 유치원의 유아 교육의 중심이 되고 가정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 ③ 가정과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에 대해 상호관계를 대등하게 가져야 한다.()
- ④ 유치원이 교육을 일임해야 한다. ()
- ⑤ 무응답 ()

V. 부모코칭의 실시 관련 내용

(다음의 문항들은 부모코칭의 진행을 위한 기초조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표 해 주세요.)

1. 부모코칭 활동이 어느 요일에 실시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2. 부모코칭 활동이 어느 시간에 실시되었으면 좋겠습니까?

10:00 ~ 12:00	16:00 ~ 18:00	18:00 ~ 20:00	기타

3. 부모코칭 활동이 누구와 실시되었으면 좋겠습니까?

- ① 담임교사 ()
- ② 원장 ()
- ③ 외부강사 ()
- ④ 동료 학부모 ()
- ⑤ 기타 ()

4. 부모코칭에서 알고 싶은 내용을 3가지만 적어 주세요.

끝까지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부모코칭의 운영계획안

1) 1차 부모코칭 활동 계획안

날짜	2012년 5월 12일 토요일			
주제명	마음열기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코칭을 안내하고 적극 참여하는 자세를 갖는다. · 자녀에게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알고 양육태도를 점검한다. 			
소요시간	오전 10시 ~ 12시			
참여대상	인원	총 14명(학부모 12명, 교사 2명)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전음악 : 꽃별 해금 연주곡, CDP · 강의준비물 : 학부모 이름표, 소책자, 볼펜 · 강의기자재 : 멀티비전 · 간식 : 차, 컵 · 진행기록 : 디카, 기록지, 볼펜 			
활동내용		시간	준비물	담당
교육 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리안내 · 출석 체크 및 이름표 달기 · 간식 나누기 · 인사 나누기 : 이름, 참여 동기 	10:00 ~ 1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별 해금 연주곡 CD, Player · 출석부, 학부모이름표, 간식접시, 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개하기 : 동아리 학부모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코칭 PPT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줄 토의 : 나는 어떤 부모? (5자 토크) 	10:30 ~ 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 노트북, 빔, 마이크, 엠프, 원고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스로 평가 : 나의 양육방법 · 지식나누기 : 양육태도의 종류 	11:00 ~ 1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트북, 빔, 마이크, 엠프, 원고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려 나누기 : 동영상감상 『늙은 아버지와 아들』 · 행복한 아이들 위한 실천 : 행복한 가정생활 · 부모저널 : 보살핌을 제공하는 부모로서의 자신을 보살피기 · 평가 	11:30 ~ 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 엠프, 원고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및 다음 모임 안내 · 다음 한 줄 토의 주제 안내 			
평가				

2) 2차 부모코칭 활동 계획안

날짜	2012년 5월 26일 토요일			
주제명	부모-자녀 소통 코칭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부모코칭을 소개하고 적극 참여하는 자세를 갖는다. · 자신의 대화기술을 점검하고 자녀와의 바람직한 대화법을 알고 실천한다. 			
소요시간	오전 10시 ~ 12시			
참여대상	인원	총 14명(학부모 12명, 교사 2명)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전음악 : 꽃별 해금 연주곡, CDP · 강의준비물 : 학부모 이름표, 소책자, 볼펜 · 강의기자재 : 멀티비전 · 간식 : 차, 컵 · 진행기록 : 디카, 기록지, 볼펜 			
활동내용		시간	준비물	담당
교육 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리안내 · 출석 체크 및 이름표 달기 · 간식 나누기 · 인사 나누기 	10:00 ~ 10:30	꽃별 해금 연주곡 CD, Player 출석부, 학부모이름표, 간식접시, 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개하기 : 오늘의 활동 		부모코칭 PPT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험 나누기 : 행복한 가정생활 · 유익한 정보 : 자녀가 듣고 싶은 말 	10:30 ~ 11:00	부모저널 체크리스트, 볼펜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스로 평가 : 아이와 대화할 준비도 테스트 · 지식 나누기 : 자녀와의 바람직한 대화법 	11:00 ~ 11:30	노트북, 빔, 마이크, 엠프, 원고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려 나누기 : 동영상감상 『어느 아버지의 글』 · 행복한 아이들 위한 실천 : 의사소통의 걸림돌 · 부모저널 : 배우자에게 보내는 격려 	11:30 ~ 12:00	원고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및 다음 모임 안내 · 다음 한 줄 토의 주제 안내 			
평가				

3) 3차 부모코칭 활동 계획안

날짜	2012년 6월 9일 토요일			
주제명	훈육을 위한 코칭 I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 부모코칭을 안내하고 적극 참여하는 자세를 갖는다. · 의사소통의 걸림돌을 회상하고 적극적인 의사소통의 자세를 갖는다. 			
소요시간	오전 10시 ~ 12시			
참여대상	인원	총 14명(학부모 12명, 교사 2명)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전음악 : 꽃별 해금 연주곡, CDP · 강의준비물 : 학부모 이름표, 소책자, 볼펜 · 강의기자재 : 멀티비전 · 간식 : 차, 컵 · 진행기록 : 디카, 기록지, 볼펜 			
활동내용		시간	준비물	담당
교육 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리안내 · 출석 체크 및 이름표 달기 · 간식 나누기 · 인사 나누기 	10:00 ~ 10:30	꽃별 해금 연주곡 CD, Player 출석부, 학부모이름표, 간식접시, 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개하기 : 오늘의 활동 		부모코칭 PPT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험 나누기 : 의사소통이 걸림돌 	10:30 ~ 11:00	부모저널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 나누기 : 적극적인 의사소통 5단계 · 역할극 : 이럴 땐 이렇게 	11:00 ~ 11:30	노트북, 멀티비전, 원고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려 나누기 : 동영상감상 『부모의 자리』 · 행복한 아이들 위한 실천 : 적극적인 의사소통 5단계 · 평가 	11:30 ~ 12:00	마이크, 엠프, 원고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모임 안내 			
평가				

4) 4차 부모코칭 활동 계획안

날짜	2012년 6월 23일 토요일			
주제명	훈육을 위한 코칭 II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부모코칭을 안내하고 적극 참여하는 자세를 갖는다. · 적극적인 의사소통의 5단계를 회상하고 자녀에게 선택권 주기를 실천한다. 			
소요시간	오전 10시 ~ 12시			
참여대상		인원	총 14명(학부모 12명, 교사 2명)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전음악 : 꽃별 해금 연주곡, CDP · 강의준비물 : 학부모 이름표, 소책자, 볼펜 · 강의기자재 : 멀티비전 · 간식 : 차, 컵 · 진행기록 : 디카, 기록지, 볼펜 			
활동내용		시간	준비물	담당
교육 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리안내 · 출석 체크 및 이름표 달기 · 간식 나누기 · 인사 나누기 	10:00 ~ 1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별 해금 연주곡 CD, Player · 출석부, 학부모이름표, 간식접시, 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개하기 : 오늘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코칭 PPT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험 나누기 : 적극적인 의사소통 5단계 	10:30 ~ 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저널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 나누기 : 자녀에게 선택권 주기 	11:00 ~ 1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트북, 멀티비전, 원고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려 나누기 : 동영상감상 『자녀를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끌어라.』 · 행복한 아이들 위한 실천 : 자녀에게 선택권 주기 	11:30 ~ 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 엠프, 원고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모임 안내 			
평가				

5) 5차 부모코칭 활동 계획안

날짜	2012년 7월 7일 토요일			
주제명	유아기 자녀를 위한 코칭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차 부모코칭을 안내하고 적극 참여하는 자세를 갖는다. · 자녀에게 선택권 주기를 회상하고 유아기에 필요한 지도 내용을 안다. 			
소요시간	오전 10시 ~ 12시			
참여대상	인원	총 14명(학부모 12명, 교사 2명)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전음악 : 꽃별 해금 연주곡, CDP · 강의준비물 : 학부모 이름표, 소책자, 볼펜 · 강의기자재 : 멀티비전 · 간식 : 차, 컵 · 진행기록 : 디카, 기록지, 볼펜 			
활동내용		시간	준비물	담당
교육 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리안내 · 출석 체크 및 이름표 달기 · 간식 나누기 · 인사 나누기 	10:00 ~ 10:30	꽃별 해금 연주곡 CD, Player 출석부, 학부모이름표, 간식접시, 컵	
	· 소개하기 : 오늘의 활동		부모코칭 PPT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험 나누기 : 자녀에게 선택권주기 	10:30 ~ 11:00	부모저널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줄 토의: 좋은 부모의 조건 · 지식 나누기: 자아 존중감 	11:00 ~ 11:30	노트북, 멀티비전, 원고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려 나누기 : 동영상감상 『자녀는 부모에 따라 변한다.』 · 행복한 아이들 위한 실천 : 미래 일기 	11:30 ~ 12:00	마이크, 엠프, 원고	
광고	· 다음 모임 안내			
평가				

6) 6차 부모코칭 활동 계획안

날짜	2012년 7월 14일 토요일			
주제명	지혜로운 부모 되기 실천 코칭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차 부모코칭을 안내하고 적극 참여하는 자세를 갖는다. · 미래일기를 소개하고 유아기 자녀에게 지도해야 할 내용을 알고 실천한다. 			
소요시간	오전 10시 ~ 13시			
참여대상	인원	총 24명(학부모 12명, 교사 6명, 유아 6명)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전음악 : 꽃별 해금 연주곡, CDP · 강의준비물 : 학부모 이름표, 소책자, 볼펜 · 강의기자재 : 멀티비전 · 간식 : 차, 컵 · 진행기록 : 디카, 기록지, 볼펜 			
활동내용		시간	준비물	담당
교육 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리안내 · 출석 체크 및 이름표 달기 · 간식 나누기 · 인사 나누기 	10:00 ~ 1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별 해금 연주곡 CD, Player · 출석부, 학부모이름표, 간식접시, 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개하기 : 오늘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코칭 프로그램 PPT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험 나누기 : 미래 일기 	10:10 ~ 1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저널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한 아이를 위한 실천 『현명한 부모실천 서약서』 작성 · 평가 : 부모코칭프로그램 평가서 	10:30 ~ 1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트북, 멀티비전, 원고 · 실천 서약서, 액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하공연 : 아기 벗 합창 (이 세상에 좋은 건, 아빠, 힘내세요. 우리들의 마음 속엔) · 가족셔츠 만들기 · 축하 파르페 만들기 · 화답 : 참여아버님의 기타연주 	11:10 ~ 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들이 만든 꽃, 악보, 피아노, 반팔티셔츠, 염색물감, 스폰지,본, 가위, OHP필름, 아이스크림, 과일(수박, 바나나), 과자류 · 기타, 악보대, 사진기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촬영 : 가족별, 전체 기념 사진 촬영 	12:30 ~ 1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 엠프, 원고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의 인사 			
평가				

3. 부모양육태도검사

부모양육태도검사(PAT)

각 문항의 내용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전혀 아니면 ①, 다소 아니면 ②, 중간이면 ③, 조금 그렇다면 ④, 매우 그렇다면 ⑤를 답안지의 색칠해진 곳에 적으면 됩니다.

1. 자녀에게 무조건 지시하기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는 편이다.
2. 모든 면에서 남보다 잘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편이다.
3. 자녀의 사생활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편이다.
4. 작은 잘못에 대해서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5. 학교나 어떤 교육을 마친 후에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6. 부모의 기대만큼 자녀가 따라오지 못한다.
7. 같은 일에 대해서 화를 낼 때도 있고, 안 낼 때도 있다.
8. 자녀에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는 편이다.
9. 화난 이유를 자녀에게 잘 설명해 주는 편이다.
10. 자녀가 지닌 능력 이상으로 잘되기를 바라고 이야기하는 편이다.
11.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심하게 꾸짖는 편이다.
12. 자녀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13. 칭찬이나 벌을 줄 때는 자녀가 이해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
14. 자녀에게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15. 작은 일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상관하는 편이다.
16. 화가 났을 때도 좀 더 심하게 처벌했다.
17. 바깥 일보다는 자녀와 관련된 일을 더 중요시 여기는 편이다.
18. 보통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내 자녀는 잘 못하는 것 같다.
19. 같은 일에 대해서도 어떤 때는 야단 치고, 어떤 때는 야단을 안 친 적이 있다.
20. 자녀가 힘든 처지라고 생각 될 때, 용기를 북돋아 주는 편이다.

21. 잘못된 행동을 혼내기 전에 왜 그것이 옳지 않은지를 설명해 주는 편이다.
22. 좀 지켜보면 좋았던 일도 간섭하거나 잔소리한 적이 있다.
23.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자녀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있다.
24. 자녀가 힘들어 보일 때에 격려를 해 본 적이 있다.
25. 자녀의 일 중에서 공부에 신경을 가장 많이 기울인다.
26. 자녀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막은 적이 가끔 있다.
27.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꾸중을 많이 하는 편이다.
28. 자녀가 생각보다 늦게 들어오면 어디에서 시간을 보냈는지 알고 싶다.
29. 자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는 편이다.
30.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겨야 한다고 말하곤 한다.
31. 자주 칭찬을 해 주는 편이다.
32. 자녀가 외출하면 언제 들어오는지 알고 있는 편이다.
33. 자녀의 미래에 대해 너무 걱정하는 편이다.
34. 언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지켜보는 편이다.
35. 내 기분대로 자녀를 대한 적이 있다.
36. 가끔 자녀가 나를 무섭게 생각할 때도 있다.
37. 자녀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거절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38. 내 자녀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39.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자녀가 할 때, 계속 신경이 쓰인다.
40.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편이다.
41. 자녀가 아플 때에는 특히 신경을 많이 기울인다.
42. 매일 공부한 양을 확인하는 편이다.
43. 자녀가 공부할 때 들여다 보는 편이다.

ABSTRACT

The Search Application Process of Parent Coaching in Kindergartens

Min, Sun-Ok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implementation methods of parent coaching to assist their roles as parents in kindergarten, with understanding the difficulties of the parents in daily life, and the circumstance by the effects of parent coaching. The following aspects were studied to implement parent coaching programs at early childhood educational institutions.

First, how can a parent coaching program be implemented at early childhood educational institutions to supplement the roles of parents?

Second, what are the aspects of a parent while is implementing parent coaching program at early childhood educational institutions?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analyze how a parent coaching program can be implemented in kindergartens to help parents and what the

effects of the program might be. Parents of kindergarten children were selected as participants. Through a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earcher and the parents, parents shared their difficulties as parents. During this process, the parents reflected on how they nurtured their children and the researcher observed the behavior and mutual interaction of the participants. It was a qualitative method with observation and interviews. Because the researcher planned and suggested the means to implement the program, the research method of implementation was applied. The participants were parents of children in kindergarten. There were a total of twelve participants. Four parents of 3-year-olds, four parents of 4-year-olds and four parents of 5-year-olds. There were six fathers and six mothers. The study was carried out for twelve months from January, 2012 to December, 2012.

The study was to research application of a parent coaching program in kindergartens to assist parents and was divided into three stages : the preparation stage, implementation stage and evaluation stage. The preparation stage was from January, 2012 to April, 2012. It consisted of pre-analysis and establishment of the program and research process at this period. The implementation stage was from May, 2012 to July, 2012. The program was implemented by organization and six times of parent coaching during that period. The evaluation stage was from July, 2012 to December, 2012 and evaluated the changes in the parents and the effects while implemented the program. Questionnaires, on-site notes, observations, in-depth interviews, pictures and videos, participant journals and

evaluations were sorted, organized and categorized for analysis.

Based on this process, the results of the study of the implementation and aspects of the parents by parent coaching program at early childhood educational institutions were as follows.

First, the parent coaching program was implemented to assist parents fulfill their roles by analyzing the difficulties of the parents in daily life. The difficulties the parents experienced were a lacking attitude regarding child rearing, inconsistency between the parents regarding child rearing, difficulty communicating with the children and lacking the ability to understand the problems of children and finding a solution. To help the parents, the coaching program consisted of opening up, coaching to communicate with children, discipline coaching I, discipline coaching II, coaching for early childhood and coaching to become wise parents.

Second, throughout the parent coaching program process, the participants solved their difficulties and perceived their spouses as collaborators in child rearing. Their communication skills improved and their perceptions of the educational institution changed to see the educational institution as a partner in child rearing.

First of all, regarding the changes among the spouses, in the early stage, it was difficult to guide problematic behavior of children because the parents had different attitudes regarding child rearing. In addition, they saw the cause of the problematic behavior as the other spouse. However, by participating in the parent coaching program, they realized they have to work together when it comes to child rearing. With a better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 between themselves, their attitudes began to coincide and they started to see each other as collaborators in child rearing.

Secondary, regarding changes in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when guiding problematic behavior, the parents had difficulty communicating with their children. Through the parent coaching program, the parents reflected on their means of communication and learned how to communicate more aggressively with their children. By giving the children a choice, communication became smoother.

Finally, with regard to the changes in perception of kindergartens, the parent coaching program utilized th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of the kindergarten and established realistic solutions to solve the parents' problems. Such support from the kindergarten helped parents perceive the kindergarten as an institution that assisted parents. When difficulties arose, they naturally called or visited the kindergarten to ask for help. By telling about their experiences of how helpful it was, not only the parents of the other children at the kindergarten, but also parents of neighbors came to ask for help. The participants of the program naturally had interchange and showed a positive attitude like home schooling by sharing the talents they had. With the support of the kindergarte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s and the children improved and showed this changing of the perception of a kindergarten merely being an educational institution to it being a partner with the parents in educating children.